



2014

ANNUAL REPORT



세상을 바꾸는 작은 사랑의 실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합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생명보험이 지향하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일생에 걸친 ‘생애 보장’ 정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자금으로 진행되는 순수한 자선사업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전달하며,
복지공동체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지원하고,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자살예방 활동 등 생명을 존중하는
공익 서비스를 개인 및 단체에게
무상으로, 평등하게,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공익활동을 통해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진정한 복지 선진국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4

발간사

/

6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소개

/

8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사업

/

10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육사업

/

20

저출산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

30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

40

자살예방 지원사업

/

50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

60

사회적약인 지원사업

/

68

건강증진 지원사업

/

80

홍보·보도자료





상부상조 정신에서 생명존중 실천으로!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국내의 19개 생명보험사들이 생애보장 정신을 실천하고 진정한 의미의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으로 출연한 공익법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보다 직접적인 도움과 지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육사업, 저출산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자살예방 지원사업,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사회적인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스스로의 삶을 개선하고 일상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변화의 작은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개별 회사가 아닌 업계 차원에서 수익의 일부를 사회공헌 재원으로 출연하며 지속적으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은 국내 최초의 사례입니다. 더욱이 2007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한 활동을 통해 사회공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기업에서의 사회공헌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공헌 재원을 출연해 준 생명보험회사들은 물론 묵묵히 사회복지 현장에서 희망을 일구어 온 이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해 온 많은 분들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단순한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각 운영기관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최종 수혜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생명보험 공동 사회공헌사업 출연금이 도움이 손길이 절실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들이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앞장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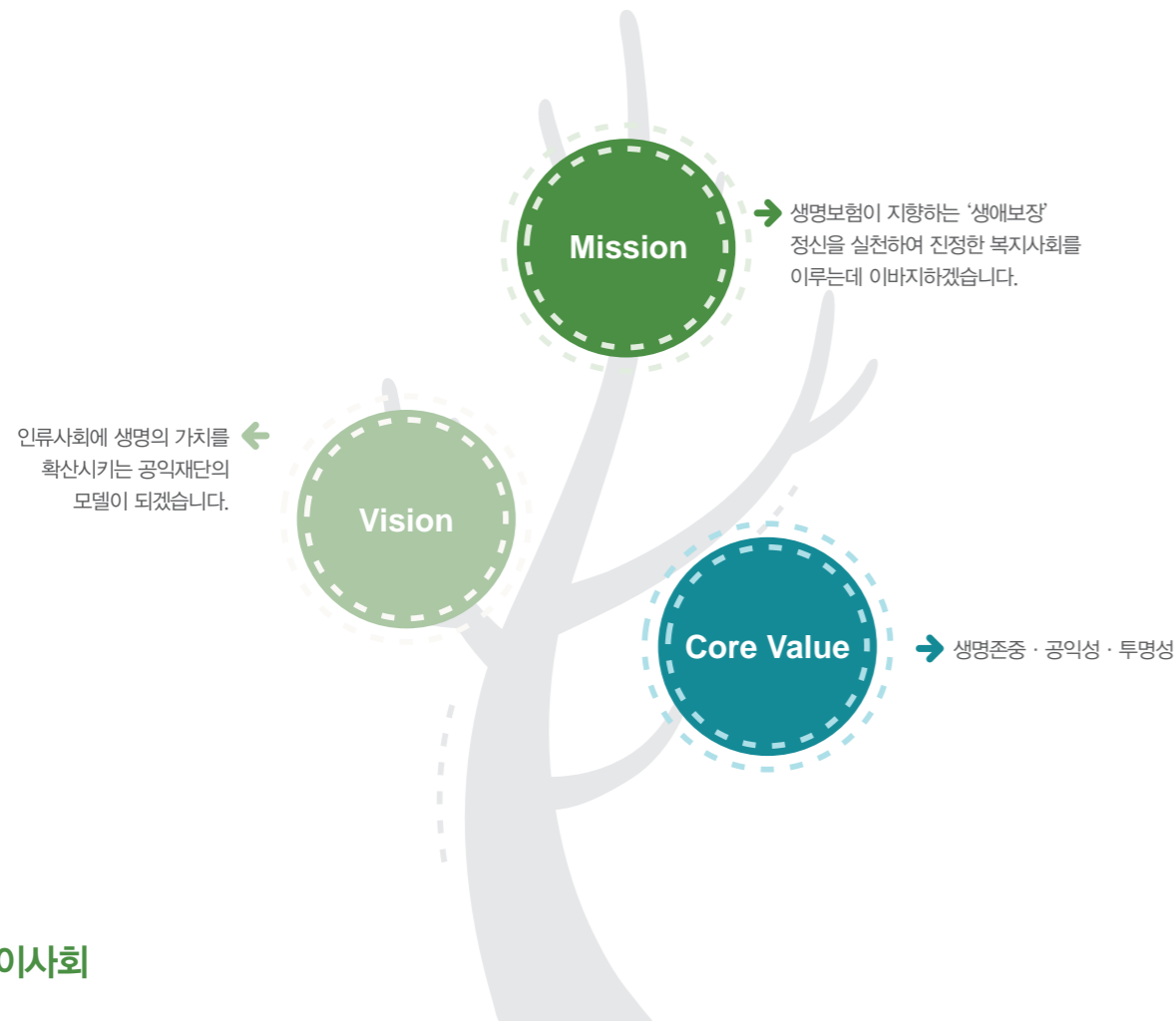
2015년 3월
(재)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이시형



소개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희망의 빛을 전하겠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사업 운영과 지속적인 복지 서비스를 통해 더불어 행복한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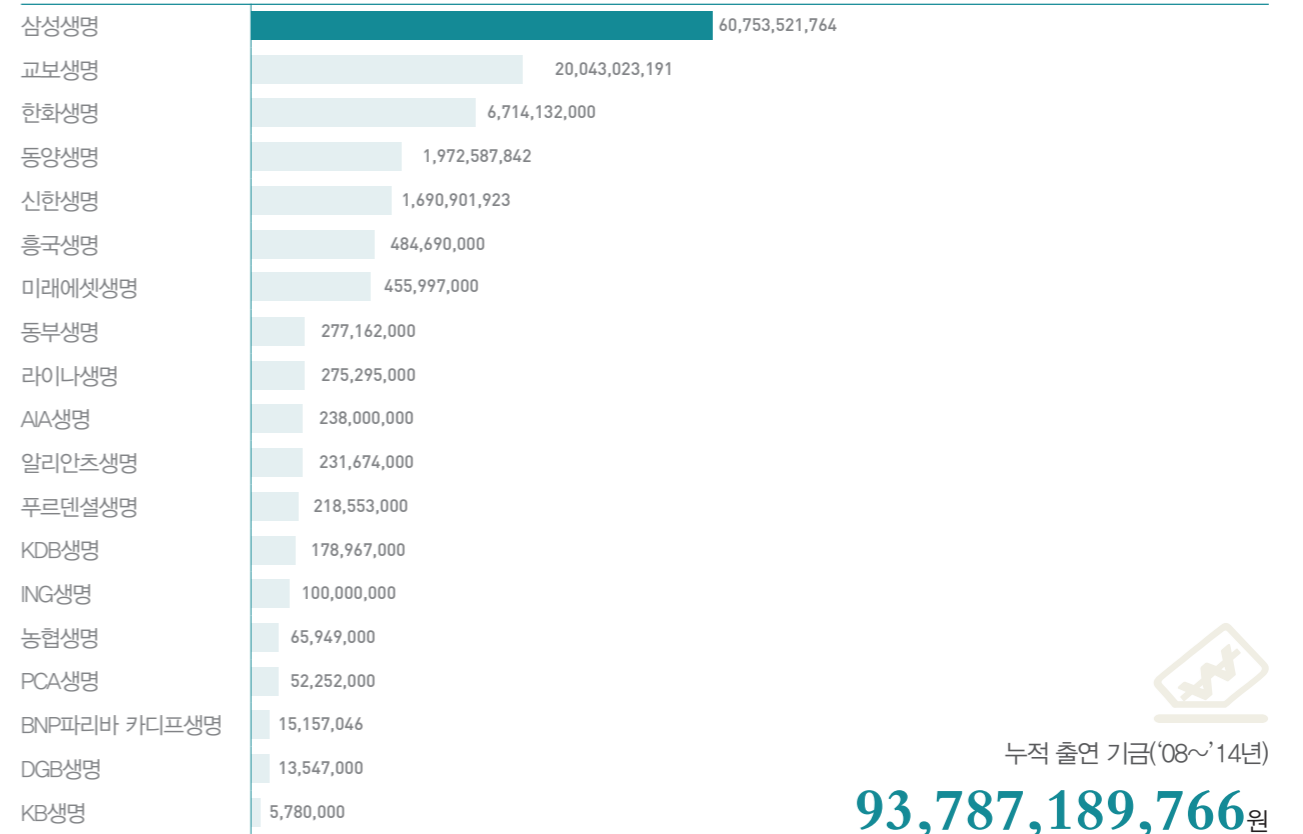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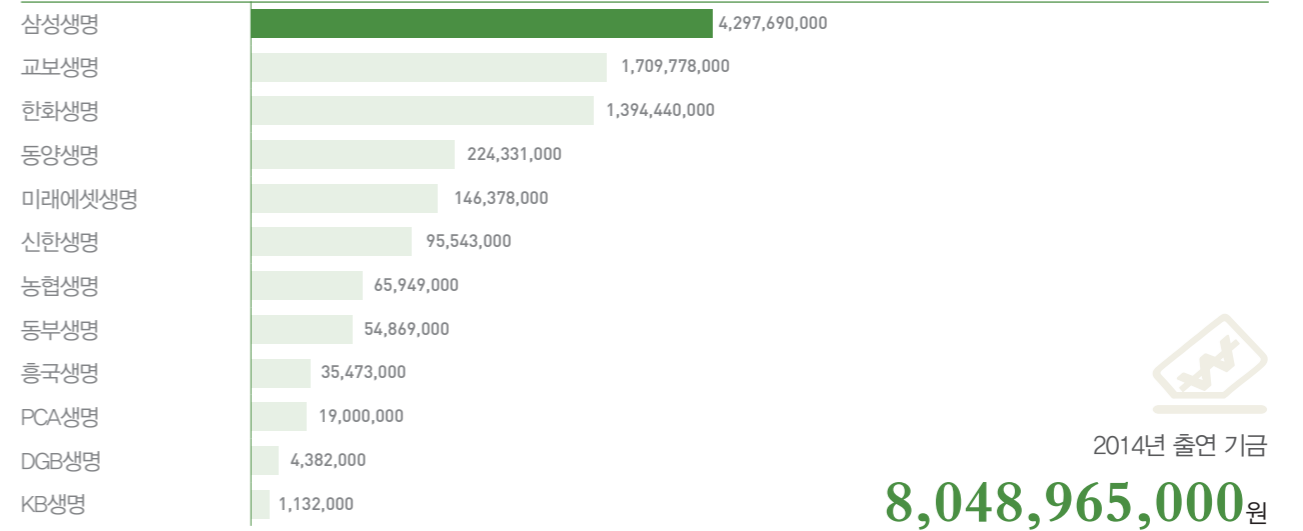


이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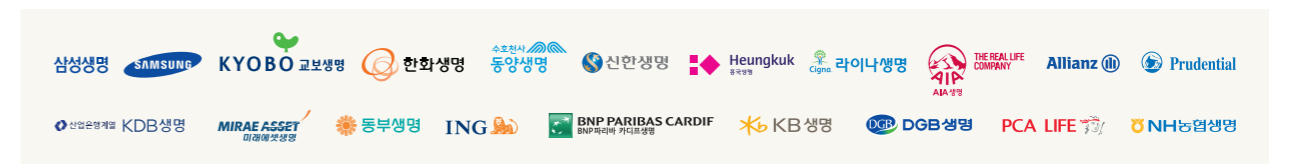
이사장	이시형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 원장, 세로토닌 문화원 원장
이사	진 념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前 경제부총리
	박진근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前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봉주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前 한국보험학회 회장
	정호열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공정거래위원장
	정무성	송실사이버대학교 부총장,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석쟁	재단 상임이사, 前 (주)교보생명심사 대표이사
감사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前 안건회계법인 대표
	양승우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장, 前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07년부터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9개 생명보험사들이 뜻을 모아 출연한 기금으로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기금



출연 기업



사업

기업과 사회가 공존하는 상생의 길을 열겠습니다!

생명존중과 상부상조, 생애보장 정신의 구현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7대 사업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육사업

집행액
68.3억 원



저출산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집행액
9.5억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집행액
16.2억 원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환경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국공립어린이집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 (1) 어린이집 건립 및 운영사업
- (2) 보육정보 제공사업
 - 서울 성북, 경기 광명, 전남 여수 3곳에 어린이집 추가 건립
 - 종로 · 인천연수 · 성남생명숲 3곳 추가 위탁운영
 - 종로구 ·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정보 제공사업 위탁운영

보육사각지대에 대한 지원과 고위험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합니다.

- (1)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2) 보육사각지대해소 지원사업
 - 보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어촌 중심의 돌봄센터 5곳 운영
 - 저소득 고위험임산부 537명 의료비 지원 및 정보제공 지원
 -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건강관리 정보 제공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의료 및 복지 지원을 통해 환자 및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1) 의료비 지원사업
- (2) 특수식이 및 의료보조용품 지원사업
- (3) 희귀난치성질환센터 지원사업
- (4) 학습용 보조기구 지원사업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총 607명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학생들을 위한 학습보조기구 지원
 - 서울대어린이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 및 심리정서 지원

자살예방 지원사업

집행액
9.1억 원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집행액
5.3억 원



사회적의인 지원사업

집행액
3.0억 원



건강증진 지원사업

집행액
5.4억 원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생명사랑을 실천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공동체를 구현합니다.

- (1) SOS생명의전화기 설치 및 운영사업
- (2)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 (3)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 (4) 자살예방 인식개선사업
 - 양화대교에 자살예방 Hot-line 전화기 4대 추가 설치
 - 취약계층 자살시도자 76명 응급의료비 지원
 - 농약안전보관함 853개 및 농약빈병수거함 40개 보급
 - 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 보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증치매노인 지원을 통해 치매노인 및 부양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제고합니다.

- (1) 등급외 주간보호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 (2) 국제심포지움 개최사업
 - 서울지역 4개 자치구 등급 외 치매노인 기억키움학교 운영지원
 - 지방지역 9개 등급 외 치매노인 주간보호 프로그램 운영지원
 - 2014 치매 국제심포지움 개최

타인의 생명을 위하여 헌신한 사회적인 지원을 통해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생명존중정신을 실천합니다.

- (1) 생명보험 의인상 지원사업
 - 순직 및 공상퇴직 소방관 30명의 노부모 생활지원금 및 자녀장학금 지원
 - 순직 경찰관 39명의 자녀장학금 지원
 - 생명존중을 몸소 실천한 일반의인 30명 지원

현대인의 식생활 개선 및 운동습관을 통해 생활습관병인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사회적 비용 감소 및 건강한 사회를 구현합니다.

- (1) 지하철 건강계단 조성 지원사업
- (2) 건강나눔 도심걷기 지원사업
- (3) 허리둘레5%줄이기 지원사업
 - 서울시청역 및 왕십리역 지하철 건강기부계단 조성
 - 서울소재 직장인 100명 대상 건강증진 프로젝트 진행 및 시상금 복지소외계층 기부
 - 서울소재 3개 직장 대상 대사증후군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 실시
 - '건강친화 직장문화 조성 매뉴얼' 제작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육사업

01 어린이집 건립 및 운영사업

02 보육정보 제공사업

사랑이
자란다

미래의 희망인 영유아들이
매 순간 사랑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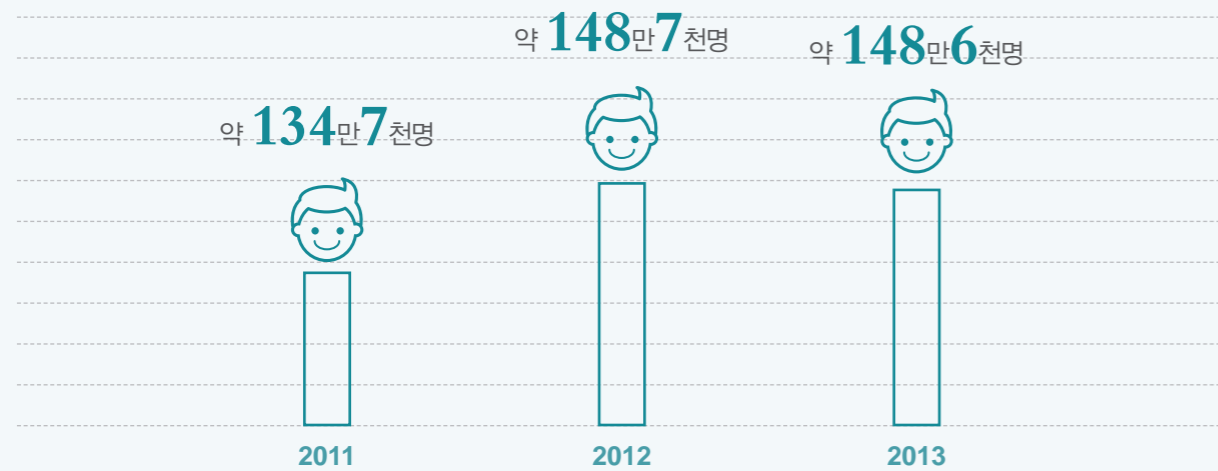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육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운영함으로써 차별화된 보육환경과 질 높은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Q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어린이는 증가하고 있어요!”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있으며, 향후 30개 건립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아동 현황]



Q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경쟁을 해야 한대요!”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한 대기 인원은 약 46만 명으로 평균 1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경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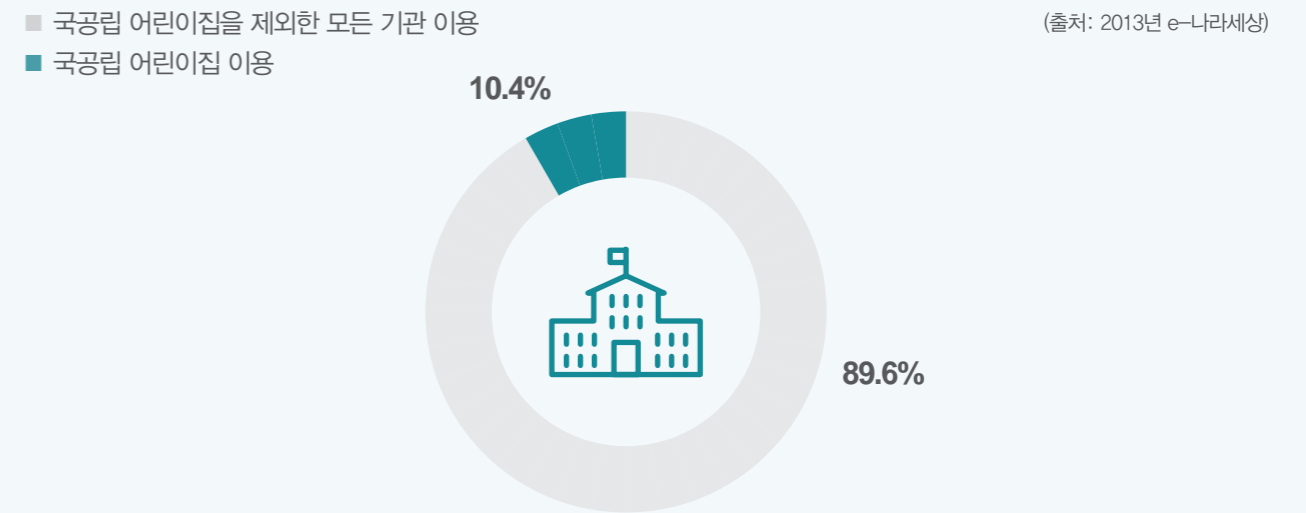
(2014년 7월 기준)



Q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기에 더욱 어려워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전체의 10.4%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질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아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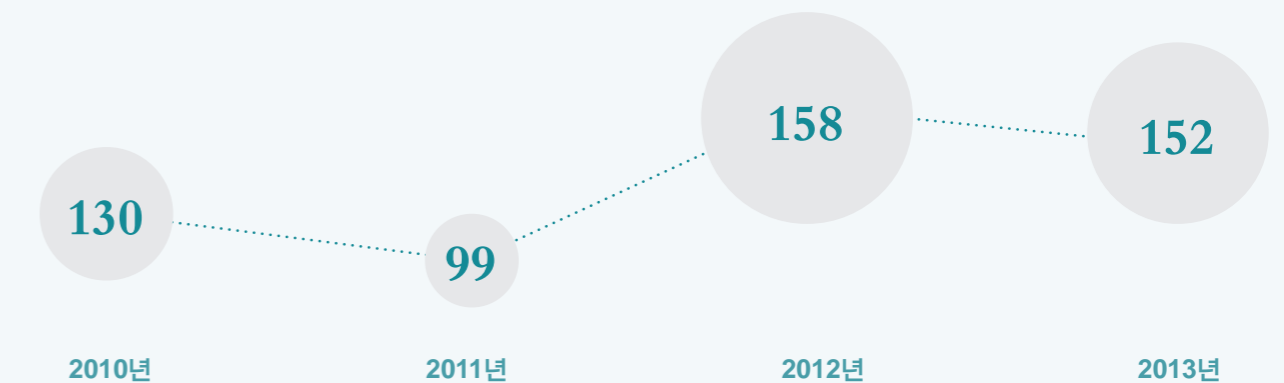


Q “새로 짓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여전히 부족해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설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수]

(출처: 복지부)



01 어린이들의 행복한 미소만을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의 건립과 운영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출산을 독려하여 지역사회 공헌과 가정복지에 기여합니다.

어린이집 건립사업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있으며, 향후 30개 건립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생명숲어린이집(8호)

- 위 치 : 광명시 성채로 78번길 5 (소하동)
- 연면적 : 1,091.82㎡
- 정 원 : 138명



성북생명숲어린이집(9호)

- 위 치 : 성북구 서경로 173 (정릉동)
- 연면적 : 889.37㎡
- 정 원 : 7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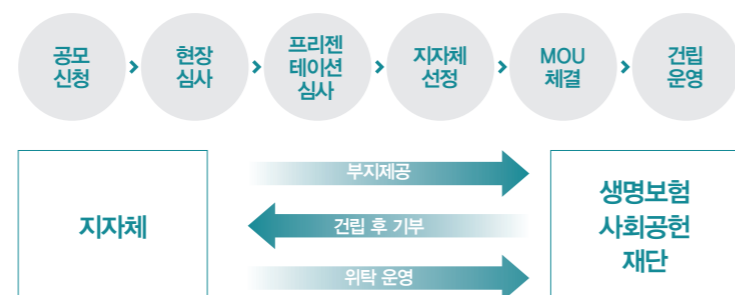
여수생명보험어린이집(10호)

- 위 치 : 여주시 웅천중앙로 54 (웅천동)
- 연면적 : 703.04㎡
- 정 원 : 8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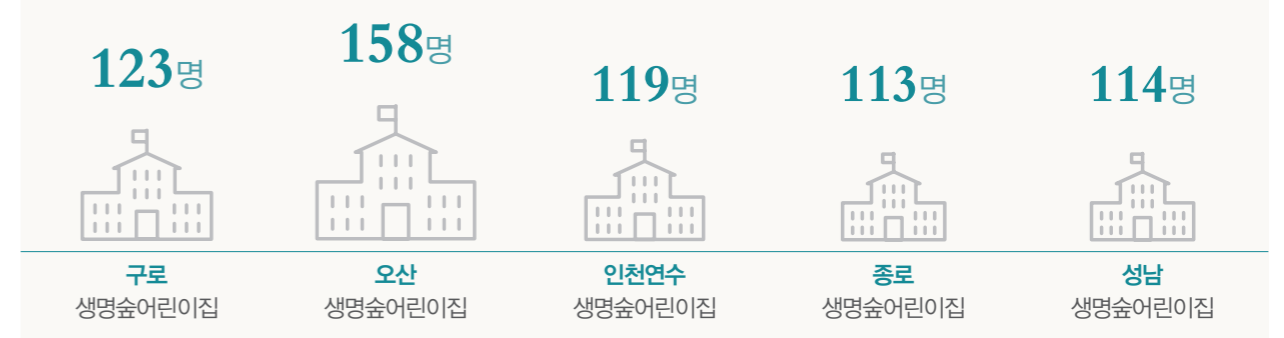
어린이집 건립 절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한 이후 지자체에 기부를 하며, 협의를 통해 보다 나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탁 운영사업까지 실시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건립한 생명숲어린이집 중 5개소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발달과 정서 함양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합니다.



차별화된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영유아 발달에 맞는 보육 환경 지원

친환경 소재의 보육 환경 조성 + 발달 연령에 맞는 교재교구 지원 + 원장·교사교육 및 부모교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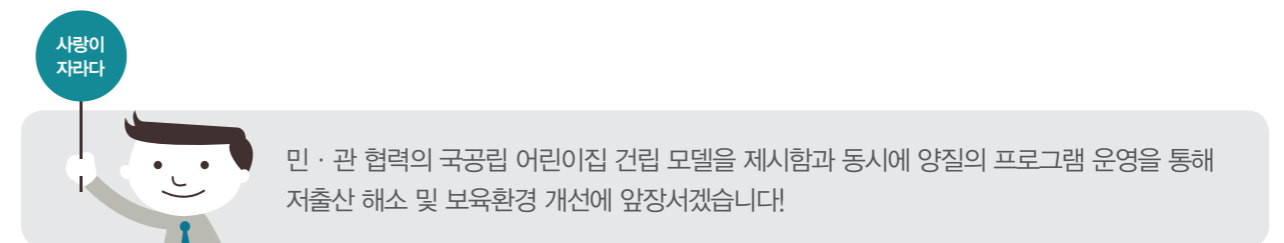
지자체 대표 우수 어린이집 선정 및 벤치마킹, 표창 수상

주요 기관 벤치마킹

- 종로생명숲 서울시 정책 보육 담당관 방문(14.04.17)
- 구로생명숲 구로구 공개 아동소방대피훈련 실시(14.05.15)
- 종로생명숲 종로구 공개 아동소방대피훈련 실시(14.06.20)
- 오산생명숲 경기도 우수 어린이집 탐방(14.06.28) 외

표창 수상 실적

- 2014.01.28. 감사패 수상(종로구청장)
- 2014.03.27. 표창장 수상(종로구청장)
- 2014.04.03. 감사패 수상(성남시장)



02 신뢰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유아 일시보육 서비스를 비롯하여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상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육정보 제공사업

현재 전국 69개소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청 및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종로구, 광명시)위탁운영을 통해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01 보육 지원사업



1) 어린이집 지원사업

- 어린이집 업무 간소화
- 취약보육지원
- 교육지원
- 평가인증 설명회 및 조력
- 정보제공(보육교직원 상담, 식단, 보육프로그램, 문서서식 제공)



2) 컨설팅사업

- 품질관리 컨설팅
- 어린이집 희망자문단
- 맞춤 컨설팅



3) 대체교사 지원사업

- 대체교사 인력채용 및 파견
- 보육교사 연차, 월차 휴가에 대한 인력지원

02 육아 지원사업



1) 장난감 대여 및 도서 대여



2) 시간제보육 지원



3) 부모상담



4) 부모교육



5) 온라인 지원

-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 전자책도서관

03 정책 지원사업



1)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지원



2) 장애인 순회지원사업 지원



3) 홍보사업

사랑이 자라다



가정에서의 육아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질 높은 육아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INTERVIEW

민관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너무 뿌듯해요!



전수영 원장

2014년 3월 2일에 개원한 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 인터뷰를 진행하던 그날도 유난히 칼바람이 불던 날씨와 달리, 인천연수 생명숲어린이집 안은 따뜻하고 아늑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귀여운 아이들을 꼭 닮은 전수영 원장님을 만나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육사업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인천연수는 보육수요가 많고, 국공립 어린이집이라 경쟁도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생명숲어린이집을 설립하게 된 배경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은 2014년에 개원해 119명의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교육의 질이 일반 사립 유치원 못지 않으니 개원 당시 경쟁률이 7대 1 정도로 학부모님들의 뜨거운 관심이 있었어요. 연수지역은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은 3군데 정도로 부족하다보니 꼭 필요했어요. 특히 영아들에 비해 제대로 된 누리과정 교육이 필수인 5~7세 유아들이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연수구가 재단에 신청을 했고, 심사를 거쳐 지금의 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이 개원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이 지역은 맞벌이 가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보호자 같은 선생님과 규칙적인 일과표가 있는 생명숲어린이집 같은 곳이 필요했죠. 또한 교육에 사랑을 더한다는 재단의 보육이념이 교육자인 저와 이 지역 학부모님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생명숲어린이집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많이 뛰어놀아야 해요. 재단에서 지을 때부터 넓은 공간을 할애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재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세로토닌 키즈 프로그램, 창의인성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성품적으로 바르게 크고 리더로 클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보육하고 있죠. 세로토닌은 신경전달 물질로 행복, 사랑, 기쁨의 감정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이러한 세로토닌 분비를 위해 건강한 습관 개선, 꼭꼭 씹어 먹기, 아침 잠 깨우기 체조 등 아이들이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도록 하고 있죠.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우울하거나 속상한 감정을 떨쳐버리도록 돕고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신체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과 지내며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10여 년 전 장애통합 어린이집에서 몸이 불편한 원아를 맡은 적이 있었어요. 특수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친구라 사실 돌보는 것이 쉽지는 않았는데 아이의 부모님께서도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어요. 저도 젊었을 때라 서툰 부분도 많았는데 최선을 다한 저의 마음을 알아주셨을 때 보람도 느끼고 교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어요. 이후에 동료 교사들과 생태 교육 등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니 현재 생명숲어린이집의 보육이념과 잘 맞아 오늘날 이곳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생명숲어린이집에서도 모든 아이들이 소중하지만 생명숲어린이집 생활을 통해 밝게 변화된 아이들을 보면 참 기쁘고 기특하답니다.

생명숲어린이집처럼 민관이 협력해 만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한 편이에요. 가까운 곳 일반만 예를 들어도 국공립 보육

시설이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면 우리나라는 5% 대로 알고 있어요. 나라에서 보육을 다 책임지기 힘들다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같은 민관 협력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환경과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체감하며 좋아하시는 부분이 재단에서의 MOU 협정을 통해 미술심리치료, 요리 수업, 문화 공연 등 다른 기관보다 질 좋은 부가적인 프로그램의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단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보육교사 교육 등의 교육서비스 개선도 가능하죠. 이 모든 것들이 넓게는 원아를 보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1차적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원장님의 보육철학과 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 원아들이 어떤 아이들로 자라길 바라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안정된 환경과 부모님의 신뢰, 교사들의 관심과 사랑이 합쳐진다면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서적 안정감을 토대로 아이들이 밝고 씩씩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육사업을 통해 만난 인연 ①

재단에서 지원하는 특성화 프로그램 덕분에 웃음 가득해진 준우네 이야기



아름나무 7세반의 준우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한 달이 되도록 적응에 애를 먹었어요. 준우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린이집만 6~7번을 옮겼고, 그런 기억들이 준우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했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걱정도 많으시고,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다보니 지쳐 어린이집 다니기를 포기하려는 찰나 재단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권하며 계속 보낼 것을 설득을 했어요. 저는 준우를 믿어 보고 싶었어요.

이후 한 학기 동안 재단의 세로토닌 키즈프로그램, 창의인성리더십 프로그램, 미술치료 등을 통해 점차 밝아지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미술 치료 때는 싸움하는 장면이나 칼만 그리던 준우가 점차 밝은 그림을 그리며 좋아지더니 나중에는 “엄마,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 시작하게 했어?”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를 믿고 보내주신 준우어머니께 고맙고, 준우는 너무 기특하고 대견했어요. 준우가 변하니 걱정이 많았던 가족들까지 자연스럽게 밝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준우어머니는 부모교육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준우는 웃음이 가득한 따뜻한 아이로 잘 자라고 있어요. 준우 일을 계기로 아이 한명에게 대한 따뜻한 보육이 가정에,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어요. 준우가 밝게 변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해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내일이 빛나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빛낼
인재로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저출산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01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02 보육사각지대해소 지원사업

저출산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생명을 위협하는 고위험임신의 출산 관련 의료비와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보육 사각 지대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Q “여성의 결혼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여성들의 결혼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평균 출산 연령이 상승하고 있으며,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 평균 출산 연령]

(출처: 통계청, “2013년 출산통계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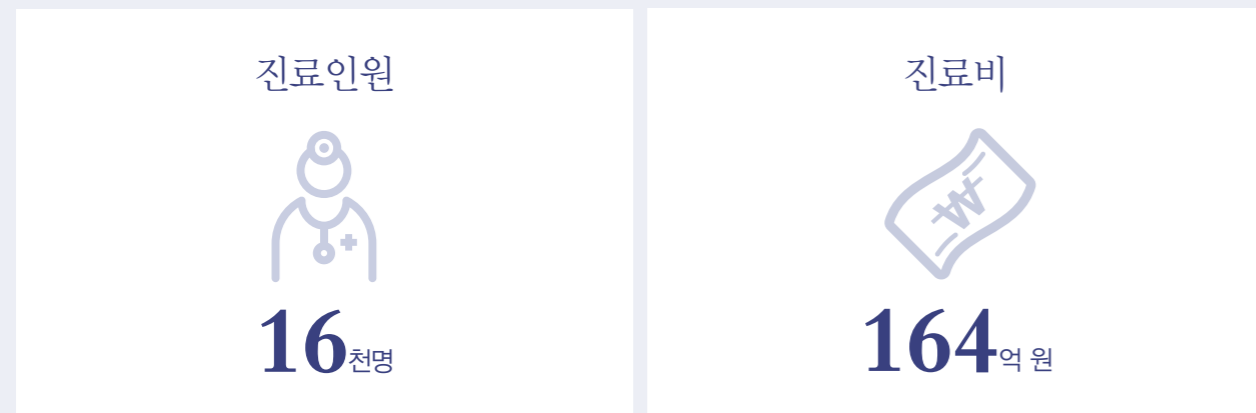


Q “고위험 산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조기진통, 분만 중 출혈 등으로 입원한 고위험 산모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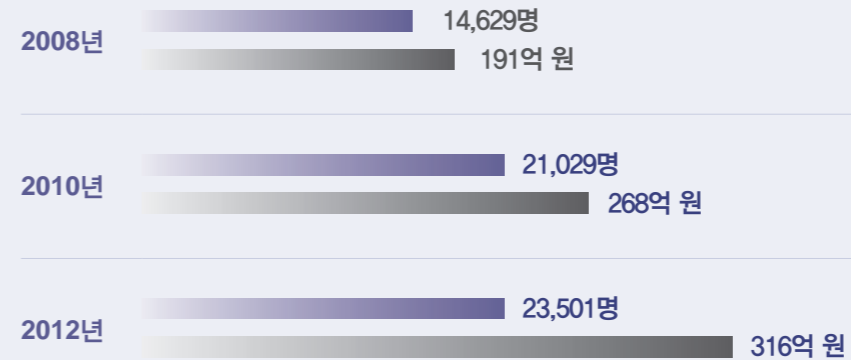
[고위험 산모 진료비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고위험 임신부 진료비 실태조사 및 수행체계 마련, 2014)



조기진통 및 분만 중 출혈환자 총 진료비

(출처: 보건복지부, 고위험 임신부 진료비 실태조사 및 수행체계 마련, 2014)



Q “대도시 중심으로 어린이집이 늘어나 농산어촌의 보육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어요!”

대도시 중심의 어린이집 확충으로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에서의 보육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육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육 사각지대의 원인]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삶의 격차
보육시설 부재로 인한 이농현상



01 산모와 아기의 건강한 미래를 기원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고위험임신으로 인한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임신부 건강관리, 산후의 산모 및 영아기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임신 인식 개선

- 고위험임신 예방관리 책자 제작 및 배포
- 고위험임신 SNS 운영을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

600,000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고위험임산부 지원대상자 1인 최대 60만원 의료비 지원
- 임신에서 분만하기 전까지 지출한 의료비(분만전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등 지원)

고위험임산부 대상자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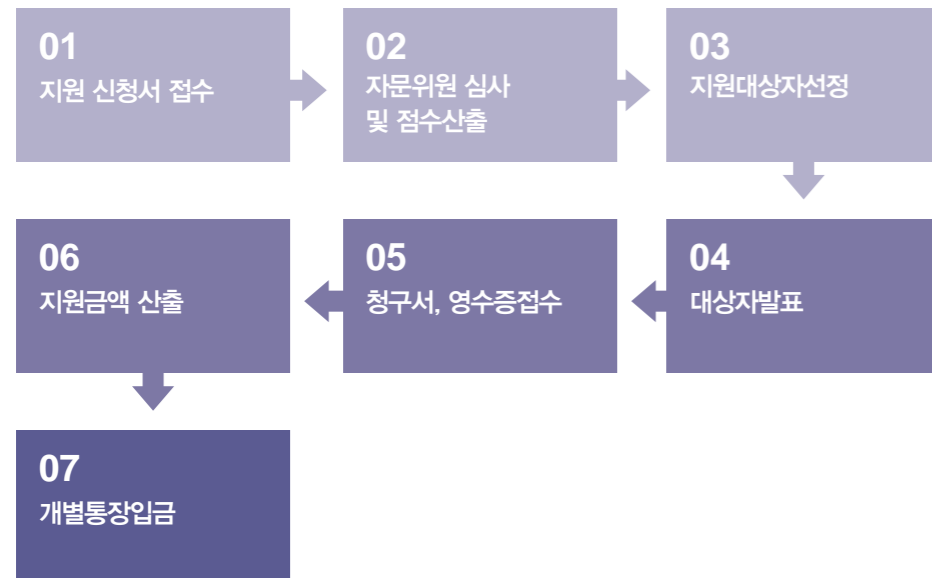
지원대상 : 고위험임산부로 전문의 진단을 받은 자

소득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이하

지원금액 : 1인 최대 60만원

지원범위 : 임신에서 분만하기 전까지 지출한 의료비(진료, 검사, 입원 등 / 분만전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등)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과정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블로그 및 SNS,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2009~2014년 누적

1,557 명 지원

2014년
537 명 지원

고위험임신 예방관리 책자



[고위험임신 예방·관리]



[고위험임신 수기사례집]

내일이
빛나다



의료비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고위험임산부에게 집중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다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02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보육시설이 부족한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에 '생명꿈나무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하여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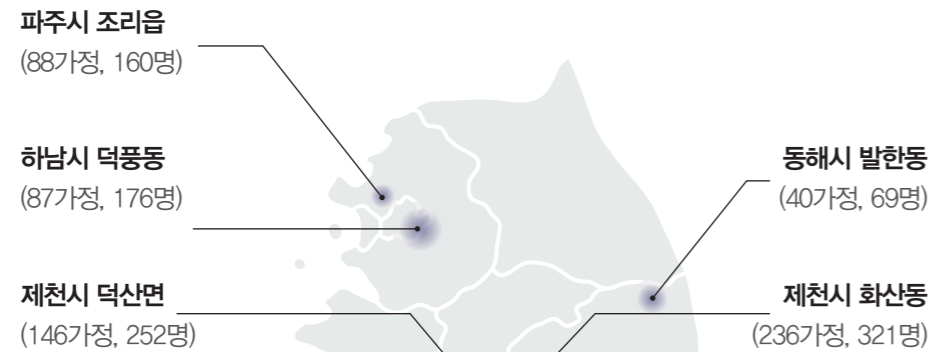
보육사각지대해소 지원사업

- 덕산, 화산, 파주, 동해, 하남 5개 생명꿈나무돌봄센터 지원
- 지역아동센터 등 및 보육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아동에게 서비스 제공
- 영유아 및 초등3년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중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가정 대상
- 부모의 다양한 취업형태에 따라 주간, 야간, 주말, 공휴일 보육서비스 지원

주요 지원내용

보육공간 마련	교재교구 지원
전담 보육사 지원	화재 및 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지원
원예집단상담 프로그램, 염색체험 등 문화·학습·체험프로그램	보육사 역량강화 워크숍 등 보육의 질을 높이는 보육사 교육 지원

보육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전문적인 돌봄과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2014. 12월 기준)

총 **597** 가정 / **978** 명 이용

특별활동



요리수업



현장체험



안전교육



보육사 워크숍

내일이
빛나다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 저소득 가정에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INTERVIEW

다문화 ·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에게도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김미경 센터장

보육시설은 흔히 '부모 없이 지내는 첫 외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보육시설을 고르는 건 부모에게 여간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다문화가정이 많고 마트, 공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맞벌이부부가 많은 제천시에서 생명꿈나무돌봄센터는 단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센터 아이들에게 저는 어머니 다름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화산 생명꿈나무돌봄센터의 김미경 센터장님을 만나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화산 생명꿈나무돌봄센터 설립 배경 및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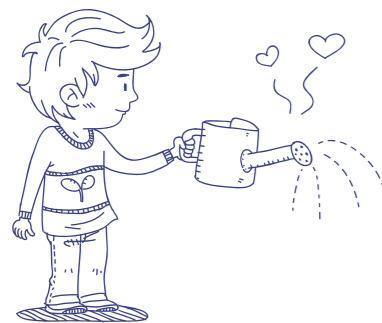
화산 생명꿈나무돌봄센터는 설립된 지 4년 정도가 됐어요. 사실 제천시는 규모에 비해 시 기능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특히 이 지역은 외곽에 떨어져있어서 많이 낙후된 곳이다 보니 주택수에 비해 어린이집 수도 부족한 편이에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지원을 받아 약 40여명의 아이들 대부분이 다문화가정 혹은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로 오전부터 저녁까지 머무르고 있어요.

도시에 비해 보육환경이 부족한 곳이다 보니, 아이들이 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 1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폭 넓은 보육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나요?

오전반 아이들은 어리다보니 교육보다는 보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오후반 아이들 대부분은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프로그램을 마치고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휴식에 중점을 두면서 독서활동, 멜로디언 수업, 체육 수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주말에는 요리 프로그램과 가족체험활동을 진행해요. 주말 요리프로그램은 토요일 오후 간식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보는 수업이에요. 매일 선생님들이 준비하다가 같이 간식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했는데 아이들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다보니, 보호자가 없으면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웠는데 요리수업을 통해 혼자서도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한 끼니를 챙겨먹을 수 있는 법을 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 가족체험활동은 1년에 전·후반기 두 번에 걸쳐 진행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라 생각되는데요. 평소 아이들과 함께하기 힘든 부모님들이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어렵게 시간을 내어 하루 가족 나들이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많다 보니 부모님의 한국어가 서투르러 그동안 나가지 못해 아이와 처음으로 나들이를 가는 가족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다보니 나들이 체험이 처음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자주보지 못해 어색했던 가족 간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엔 체험 활동을 꺼리시던 부모님들도 굉장히 만족하시고 호응도 좋으시더라고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열악했던 이 지역의 아이들에게 베풀 기회가 많아지고 관심을 더 줄 수 있어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생명꿈나무돌봄센터가 보육 기관으로서의 순기능을 잘 살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돌봄센터를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된 아이나 가정의 사례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민서의 사례를 들려주고 싶어요. 민서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거든요.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에는 엄마 뒤에서 숨어 나오려고 하지 않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격도 많이 밝아지고,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 한 예쁜 아이로 자라고 있어서 특별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 중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 감사한 부분이 많아요. 시설개선은 물론이고 교재교구, 교사 인건비 등 모든 부분을 지원해 주시거든요. 무엇보다도 단순한 교재교구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교재교구를 가지고 시연을 해주시기도 하고 교사 교육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도움이 돼요. 처음에는 단순히 보육만 하던 선생님들도 점차 수업을 이끌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들도 점점 성장해간다는 생각이 들죠.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꼽자면, 지금과 같은 3개월의 방학기간이 다소 아쉬워요. 운영상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지만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일 때문에 당장 3개월 동안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곳처럼 100% 무상으로 아이들을 돌봐주는 곳이 없다면 항상 센터와 생보재단에 감사해 하시면서도 3개월의 방학이 어머님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돌봄 센터 운영 시 어떨 때 가장 기쁘신지,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길 바라시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서 오는 반응을 느낄 때 가장 보람을 느껴요. 길에서 만났을 때 엄마한테 나 선생님 하고 갈래! 씩씩하게 엄마하고 인사하고 저한테 와서 안기는 경우도 있고, 아플 때도 엄마를 안 찾고 나에게 안겨줄 때, 그럴 때 참 고맙고 보람되죠. 우리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 갈 텐데 지금처럼만 건강히 커가면서 마음 다치지 않고 인성적인 부분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진 다문화 가족

민서네 이야기



민서를 처음 만났을 때에는 유독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였어요. 엄마 뒤에 숨어서 한 발자국도 나오려 하지 않았었죠.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었는데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내성적인 성격이 되었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한국어가 서투르고, 여자아이다 보니 집에만 두셔서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친구를 만날 일도 없었고, 밖으로 나오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민서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보니 등하교를 저희 선생님과 같이 하다시피 했죠. 한동안 낮을 가려 선생님 뒤에만 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애를 먹는 등 사회성이 좀 부족했어요.

지금은 1년 반 가까이 여기 있으면서 정말 많이 좋아졌죠. 왜 어린 나이에 남들 앞에 나서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은 물론이고 저녁 독서 활동 때에는 자기가 나서서 어린 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춤추고 노래도 부르는 것 보면 정말 많이 밝아졌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환한 웃음 가득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저출산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을 통해 만난 인연 ②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 01 의료비 지원사업
- 02 특수식이 및 의료보조용품 지원사업
- 03 희귀난치성질환센터 지원사업
- 04 학습용 보조기구 지원사업

희망이
번진다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다각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해 환자와 가족들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삶에
희망을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의료비 및 의료보조용품 지원, 센터운영 지원, 학습용 보조기구 지원 등을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Q “희귀난치성질환은 치료 방법이나 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병이에요!”

희귀난치성질환은 동일질환의 국내 환자 수가 2만 명 이하이며 적절한 치료방법과 대체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병을 의미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현황]

희귀난치성질환은
전 세계 약 6천여 종

우리나라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약 50만 명 추정

Q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비용도 부담스러워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중증장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 자신의 신체적 고통은 물론 가족들도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지고 있으며, 전문적 진료를 위한 시설 및 기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평균 진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1인당 1회 입원 · 수술비

평균 약 **400**만원

※ 재단 의료비 지원사업 13년
1인당 1회 입원 · 수술비 평균 진료비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부담액 ↑

Q “의료보조용품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증상관리를 위한 특수식이 및 의료보조용품은 희귀할뿐만 아니라 정부지원 항목에 미포함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식이 및 의료보조용품 현황]



로렌조오일
1병 19만 8천원
월 평균 70만원 소요

특수식이 지원	의료보조용품 지원
로렌조오일	피부재생용품
메디푸드	카테타 등

Q “원인조차 알 수 없는 희귀난치성질환도 있어요!”

소아의 희귀질환 중 다중 기형 및 이를 동반한 정신지체의 경우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 환자의 2/3 이상에 이릅니다. 이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수년에 걸쳐 많은 검사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이에 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희귀질환센터]

array-CGH 기법

기존의 검사 상 원인을 알 수 없었던 환자 중
15~20%의 정확한 염색체 이상부위를 발견 가능

01 현실적인 방안으로 의료부담을 해소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입원치료, 외래치료, 희귀의약품 등의 지원을 통해 의료비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의료비 지원사업

- 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에 고시된 질환에 해당되는 환자 중 최저생계비 기준 250% 이하인 자
- 급여 및 비급여 지원



입원비(수술비 및 치료비)	외래·재활치료비, 검사비	희귀의약품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지원		

병원 의료비 599명 지원, 희귀의약품 8명 지원을 통해 희귀난치성환자의 의료부담 해소를 돕고 있습니다.



전국 **67**개 협약병원



607명 환자




수급자 환자 **375**명



건강보험 환자 **232**명

의료비 및 희귀의약품 지원

희귀난치의료비 산정특례 142종에 미포함된 질병 274종의 치료비와 비급여 항목 포함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가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02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로 질환을 극복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필수적인 특수식이 및 의료보조용품을 지원하여 증상의 호전 및 위생적인 질환관리를 지원합니다.

특수식이 및 의료보조용품 지원사업

	부신백질이영양증 로렌조 오일(특수식이) 지원		뮤코다당증 등 메디푸드(특수식이) 지원
	레트증후군 등 기저귀 지원		척수수막류 등 관장용 카테터 지원

부신백질이영양증, 뮤코다당증 등 75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특수식이 및 의료보조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신백질이영양증 환자의 증상개선 및 지연을 위한 로렌조 오일 지원	15 명
식도가 좁아져 유동식 식이가 필요한 뮤코다당증 등 환자에게 메디푸드 지원	30 명
다발성경화증 등 배뇨, 배변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기저귀 지원	20 명
자력으로 배변활동이 어려운 척수수막류 환자에게 관장용 카테터 지원	10 명



언제나 환자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며, 일상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03 전문치료 센터운영으로 다양한 의료 복지를 실현합니다

주요 거점지역에 희귀난치성질환센터를 운영하고 환자와 가족의 다양한 의료·복지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센터 지원사업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 운영지원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희귀질환센터」 운영지원



전남대학교병원
「희귀난치질환통합케어센터」 운영지원

- 호흡재활 전용병실, 재가방문간호서비스 운영
- 질환별 통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진단 검사비 지원
- 정서지원을 위한 '인문학 교실' 운영

신경근육계 환자 관리 및 호흡장애 관련 치료, 미진단 희귀염색체기형질환 대상자 array-CGH 검사, 희귀질환 교육 및 심리치료 등 센터에서의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

- 호흡재활 전용병실 운영 : 환자 727명 이용
- 방문간호 서비스 : 66건 방문간호 실시
- 호흡재활 정기검진비 지원 : 1인 45만원 / 45명 지원
- 인문학 교실 : 환자 및 가족 24명 / 8회기 지원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희귀질환센터

- 다중기형 환자 47명 의료진단 검사비용 지원
- 모아모아 질환 공개강좌 실시
- 인문학 교실 : 환자 및 가족 33명 / 8회기

전남대학교 희귀난치질환통합케어센터

- 심리치료를 위한 「음악, 미술 등 P/G」 운영 : 환자 397명 참여
- 환자 및 가족을 위한 희귀질환 교육 6회 실시 : 661명 참여
- 터너증후군 환자 및 가족 캠프 진행 : 84명 참여
- 인문학 교실 : 환자 및 가족 19명 / 9회기 지원

희망이
번지다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미진단 질환자까지
종합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04 맞춤 서비스 지원으로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학습용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원활한 학습여건 및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습용 보조기구 지원사업

- 학업에 대한 열정과 뚜렷한 학습목표 및 계획을 가지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대상
- 학습용 보조기구 지원 및 맞춤제작

컴퓨터 관련 학습보조기구
노트북, 인테그라마우스 등

독서용 학습보조기구
높낮이 조절 책상 및 의자 등

자세유지보조기구
틸팅휠체어, 전동침대 등

- 지원대상자 방문서비스, 사후관리(보조기기 사용법 훈련)



휠체어용 책상 (랩보드)



노트북 데스크탑PC



스마트TV-AT



책마루 OCR EZ



태블릿PC(핸드폰 겸용)



줌 텍스트



안구마우스



책마루x



인테그라 마우스



높낮이 조절 책상



한소네 U2



터치모니터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인테그라마우스, 아이패드 등의 학습용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고교·대학 진학 및 취업 등의 자립심을 키워줍니다.

지원 보조기구
23종 64개 구입

상담 및 평가 114건
지원 69건(기보유 기구 포함)

희망이
번지다



보조기구 지원을 통해 학습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INTERVIEW

꿈을 향한 열정과 노력에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시립서울 장애인증합복지관

강용원 센터장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몸은 불편할지 몰라도 꿈과 학습에 대한 열망은 누구 못지않습니다. 생보재단이 함께하는 학습용보조기구 지원사업은 환자들이 희귀병이라는 장애물을 넘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꿈과 학습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고 싶다”는 시립서울장애인증합복지관 보조공학서비스센터 강용원 센터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생보재단과 시립서울장애인증합복지관이 함께하는 ‘학습용 보조기구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시립서울장애인증합복지관 보조공학서비스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 지원하는 곳으로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해 상담, 평가, 임대, 지원 등 보조공학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학습용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작년 7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가운데 학령기, 취업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학습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개별적인 상담 및 평가를 통해 현재 가장 적합한 학습용 보조기구를 지원해 드리는 거죠.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질병 치료도 만만치 않다보니, 학습용 보조기구 구입 같은 부분은 환자 가족들이 느끼기에 금전적이나 정신적 부담이 매우 클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지원현황은 어떤 편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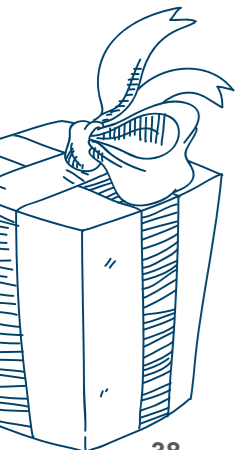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보조기구 시장은 주로 장애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선진국에 비해 많이 영세한 편이에요.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기구는 약 100여종 정도로 이마저도 경제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2만 여종의 보조기구가 유통되는 북미, 북유럽에 비해 우리나라는 보조기구 시장이 작다보니 어떤 학습용 보조기구가 있는지 모르시거나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구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한 고가라 구입하기 어려워신 분들도 많다보니 질환의 진행을 막기 위한 치료에만 집중하시고 학습용 보조기구에 대해 많이들 신경 쓰지 못하시죠.

질환에 따라 체형이나, 신체적 기능과 운동능력이 다 달라 다양한 학습용 보조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기구들이 지원되고, 지원범위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학령기의 희귀난치성질환자분들에게 학습용 보조기구를 지원해 드렸어요. 질환 때문에 학교를 못 가시는 분들의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컴퓨터, 노트북을 비롯해 높낮이 조절 책상, 맞춤형 랩보드, 욕창예방 방석, 인테그라 마우스, 모니터형 독서확대기, 모니터암 등 다양한 학습용 보조기구를 지원했어요. 대학 교수님들과 생보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학습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 학습 환경 및 학습에 대한 접근방법과 질환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선정된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지원을 통해 학습용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학습용 보조기구를 지원받아 수능공부를 다시 하시는 분도 계셨고, 시범고시를 준비하시는 분, 대학교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모두들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학습 환경은 열악했지만 그 열정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훌륭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재단의 지원을 받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의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분들에게 학습용 보조기구는 꼭 필요한 기기임에도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느끼신 점이나 앞으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편견을 깨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학습용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통해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어보면, 자신의 꿈과 사회의 한 구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 학습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한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고 저희 보조공학서비스센터에서 나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작년부터 재단과 인연을 맺어 함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단과 함께하시면서 좋으셨던 점이나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겠어요?

우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학습용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학습은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치료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하는 많은 질환자분들에게 학습용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나아가 전국에 있는 질환자분들에게도 확대가 되는데 밀거름이 되고 싶어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을 통해 만난 인연 ③

아픈 몸에도 포기하지 않는 꿈과 도전의 이야기

임보균씨 이야기



진행성 질환인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는 임보균(26세, 남)씨는 삼육대학교 경영정보학과를 3학년까지 마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휴학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학습에 대한 열의가 높아 빅데이터와 미래학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주로 누워서 지내다보니 체위 변화가 되는 침대가 필요했고 마침 보조공학서비스센터의 학습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신청해 선정되었죠. 센터에서 보균 씨에게 노트북, 모니터 및 모니터암을 지원한 덕분에 자세에 따라 모니터의 높이와 각도를 조절해 학습할 수 있게 됐어요. 올해는 학교로 복학해 전공은 물론 관심영역인 빅데이터와 미래학까지 계속 공부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니 참 뿌듯합니다.



자살예방 지원사업

- 01 SOS생명의전화기 설치 및 운영사업
- 02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 03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 04 자살예방 인식개선사업



용기를
더하다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관리함으로써
삶에 대한 용기를 더하고,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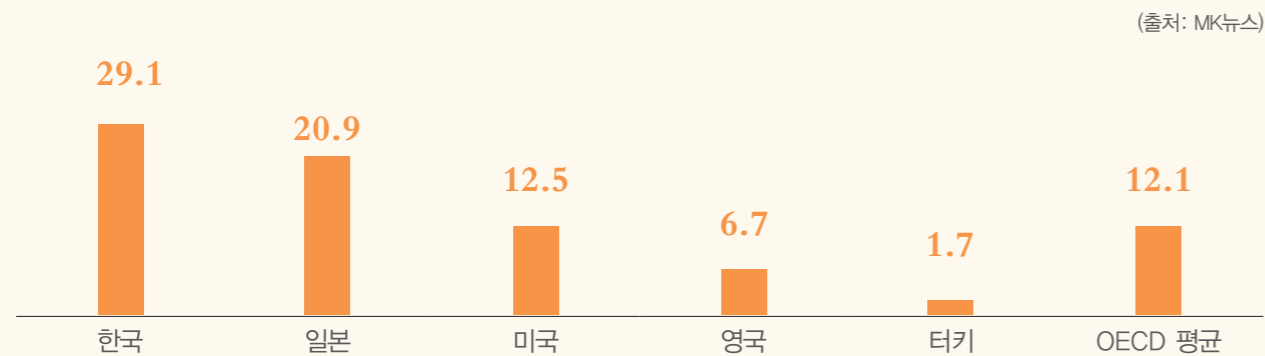
자살예방 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연령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자살수단을 통제하고, 자살충동을 막기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살률은 줄이고, 국민들의 정신건강은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Q “자살률이 OECD국가 1위예요”

우리나라가 10년 연속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살 사망자 수]



Q “노인자살 중 음독자살률이 1위예요”

농약 음독자살률은 10만명 당 4.2명이지만 지방지역일수록 관리가 취약하고, 고연령일수록 농약 음독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약 음독자살률]

〈출처: 2012자살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중앙자살예방센터〉



Q “청소년들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요!”

청소년들의 자살충동을 막기 위해서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와 치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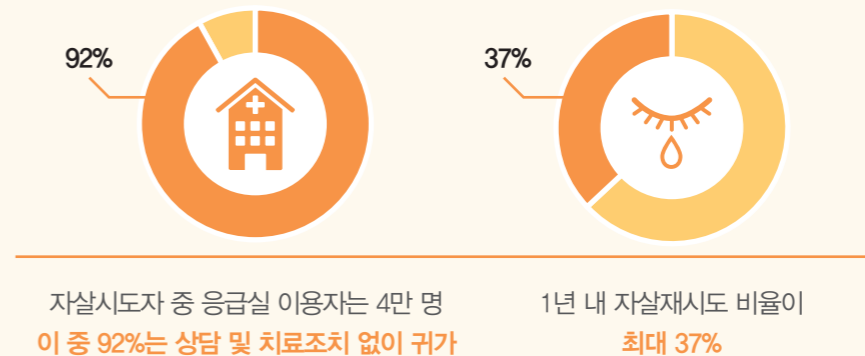
[청소년 사망원인 자살]



Q “자살사고는 재발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자살재시도자 관리]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 자살재시도를 방지해야 합니다.



01 작은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며 따뜻한 진심을 전합니다

자살이 주로 발생하는 장소에 상담 및 신고를 위한 SOS생명의전화기를 설치하여 투신자살을 예방합니다.

SOS생명의전화기 설치 및 운영사업



SOS생명의전화 상담 FLOW



2014년 사업결과

자살다발지인 한강교량에 'SOS생명의전화(Hot-line)'를 설치하여 상담과 신고를 통해 자살시도자를 구조합니다.

양화대교에 4대 설치 | 2014년

개통 이후 2,644 건 상담 및 구조	취약계층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총 76 명 / 3,760 만원 지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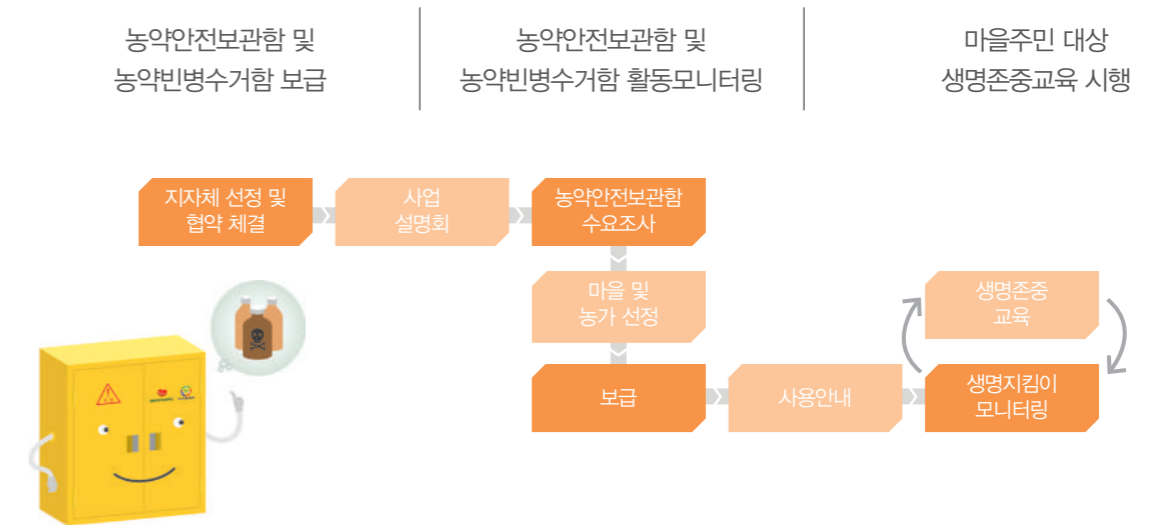
용기를 더하다

충동적인 투신자살을 방지하고, 자살시도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02 관리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까지 책임집니다

음독자살에 취약한 농촌마을에 농약안전보관함 및 빈병수거함을 보급함으로써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자살예방을 도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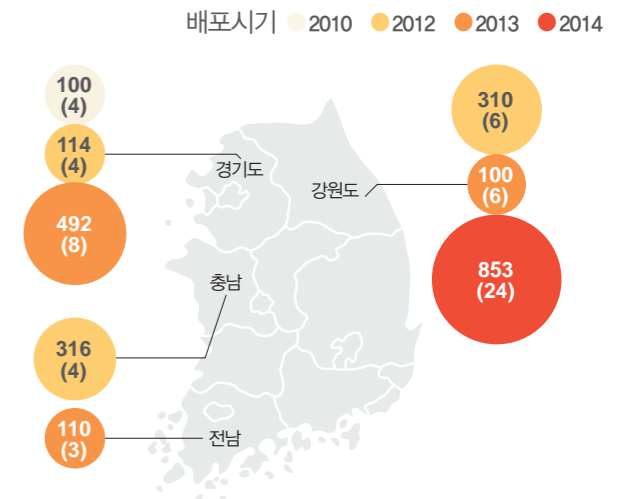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농약안전보관함 및 빈병수거함을 보급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함으로써 음독자살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농약안전보관함 853개	농약빈병수거함 40개
보급지역 - 강원도(원주시,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양양군)	

연도	지역	보급 마을수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개수
2010	경기도	4	100
	경기도	3	114
	충청남도	4	316
2013	강원도	6	100
	경기도	8	492
2014	전라남도	3	110
	강원도	24	853



전국 36,569개 마을 중 총 16개 시군, 58개 마을, 2,395개 농가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03 마음을 열고 한걸음씩 먼저 다가갑니다

청소년들의 충동적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지속적 관리와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연극심리치료 및 공연



미술심리치료



생명존중 인성교육

미술, 연극 심리치료 등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아를 표현하고 자살충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통합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16개 기관 96명 대상
연극치료 25회 진행

자살유가족, 일반시민 953명 대상
연극치료공연 상연



7개 중학교 70명 대상
미술치료 12회 진행



10개 중학교 2,683명 대상
생명존중 통합교육 8회 진행

용기를 더하다



민감한 청소년기임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04 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웁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살률을 줄이고 자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합니다.

자살예방 인식개선사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인식개선 캠페인
(MBC 정신건강박람회)



자살고위험군 집단의
미술치료 작품전시

우울증 등 정신장애가 있는 자살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미술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 활동을 실시합니다.

600명 상담



임상미술치료

220명 상담



연극치료

19,520명의 시민이 참가한 MBC 정신건강박람회 참가

전국 정신 장애아동
미술 공모전

+

대한민국
국회 전시회

+

아르브뤼 아웃사이드
미술관 개관

자살고위험군 청소년 미술치료 작품전시 지원

용기를 더하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명에 대한 가치와 존중의 마음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INTERVIEW

외롭고 소외된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이순덕 상담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처럼 누구나 소중한 존재다. 하지만 이런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우리나라 자살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SOS 생명의 전화를 설치해 그간 구한 목숨만 2 천여명. 이러한 성과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혹시나 걸려올 전화를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상담원들이 있다. SOS 생명의 전화 상담원 이순덕 선생님을 통해 자살예방사업을 들어보자.

전에는 교직에 몸 담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10대 시절부터 ‘내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곤 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상담원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교직생활 중 꾸준히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책을 보는 것은 물론 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기도 했어요. 은퇴 후에는 SOS 위기 전문상담사 연수를 받고 자격증도 취득해 지금처럼 SOS 생명의 전화 상담원이 될 수 있었죠. 지금은 재취업을 한 상태라 낮에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퇴근 후에 주 1회 상담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할수록 어렵게 느껴지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에 일조한다는 긍지와 보람을 느껴요. 교량에 와서 생명의 전화를 하는 분들은 좌절과 절망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거나, 삶에 대한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하는 상담원 일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작은 불씨를 피울 수 있길 희망해요.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생명의 전화기로 전화가 걸려오면 어떻게 상담을 진행하시나요?
보통 헤어진 연인과의 문제, 취업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전화가 걸려오는데 모든 전화가 위기 전화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긴박한 상황이라면 119에 신고해 소방대원들이 출동하도록 도움을 요청하죠. 119 소방대원들이 출동할 때까지 저는 전화로 내담자가 있는 곳이 안전한지를 계속 살펴보고 위험한 곳에 있으면 안전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중용해요. 그리고 나서 절망스럽고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도록 진솔한 상담을 이어가죠. 현장에서는 119 대원들이 내담자에게 같이 경찰서에 가서 그 곳에 있는 상담사와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해보기를 권하기도 해요. 내담자가 동의하면 119대원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지, 극소수이긴 하지만 예전에 자살 시도 경험에 있는 분이라면 재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는지, 몇 번째 시도인지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최대한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분들의 말에 경청하고 질문을 하며 조금씩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설득하고, 집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을 상담하다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상담이 쉽지 않을 텐데 상담을 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전화 상담이다 보니 마음이 조금해질 때가 많아요. 교량에서 걸려오는 전화다보니 짧은 시간에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항상 고민하죠. 우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위험한 장소나 난간에서 최대한 멀어지도록 해요. 교량 근처다보니 혹시나 난간위에 있지는 않은지 걱정될 때가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다리 위까지 오셔서 전화를 거신 분들의 대부분은 억울하고, 속상한 데 주변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극도로 외롭고 힘들어서 오시거든요. 주변에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힘든 현실도 많고요. 저희는 마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감하고자 노력해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최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꼬집어내 칭찬하고 공감해주죠. 얼마 전에는 여고생에게 연락이 왔어요. 단순히 이성문제나 학업 문제 일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연락이 왔더라고요. 교직에서 오랜 시간 학생들과 함께했던 터라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고 어머니는 투병 중에 어린동생도 돌봐야 하고 정작 본인이 하고픈 진로의 꿈은 포기해야 하는 자신의 현실이 너무 힘들다며 전화로 말하는 거

예요. 내담자의 사정이 너무 딱해서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씩씩하게 산다면 그에 대한 보답이 있으니 당장의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기운내라며 용기를 북돋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제서야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에 있는 동생이 눈에 아른거린다며 집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니 어느새 감정도 많이 누그러졌나 봐요. 정말 가슴 아팠죠.

상담을 끝내고 자살을 하려다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는 사례를 보면 SOS생명의전화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누구보다 자살예방사업을 온몸으로 느끼실 거 같아요. 재단의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SOS 생명의 전화 사업이 전화 하나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죽음까지 생각하고 온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점에서 값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협력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무엇보다 자살예방지원사업이 생명과 관련된 사업인 만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최전방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자살예방사업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계기, 그리고 우리 주변의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자살 상담전화에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용기와 희망을 얻어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을 보면 일에 대한 보람 있기도 하고 민감이 교차하실 것 같은데요. 자살 예방 상담원으로서 사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삶과 죽음에 대해 한 번씩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삶을 보다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기도 하고요. 다만 팍팍한 삶에 지친 감정을 추스르고 삶의 끈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일하면서 젊은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살면서 99번의 고비가 있다”고 하세요. 사실 살면서 고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고비 지나면 더 나은 길이 보이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것 같아도 탈출구가 있어 더 좋은 날은 반드시 온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자살예방 자원사업을 통해 만난 인연 ④

진심어린 위로와 용기가 필요했던 가슴 아픈 이야기 여고생 이야기



얼마 전에는 여고생에게 연락이 왔어요. 단순히 이성문제나 학업 문제일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연락이 왔더라고요. 교직에서 오랜 시간 학생들과 함께했던 터라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고 어머니는 투병 중에 어린동생도 돌봐야 하고 정작 본인이 하고픈 진로의 꿈은 포기해야 하는 자신의 현실이 너무 힘들다며 연락을 한 것이죠.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씩씩하게 산다면 그에 대한 보답이 있으니 당장의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기운내라며 용기를 북돋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제서야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에 있는 동생이 눈에 아른거린다며 집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니 어느새 감정도 많이 누그러졌나 봐요. 정말 가슴 아팠죠.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01 경증 치매노인 주간보호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02 국제심포지움 개최사업

행복을
만들어나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경증 치매어르신과
부양가족을 지원함으로써
모두에게 행복한 인생을 선물합니다.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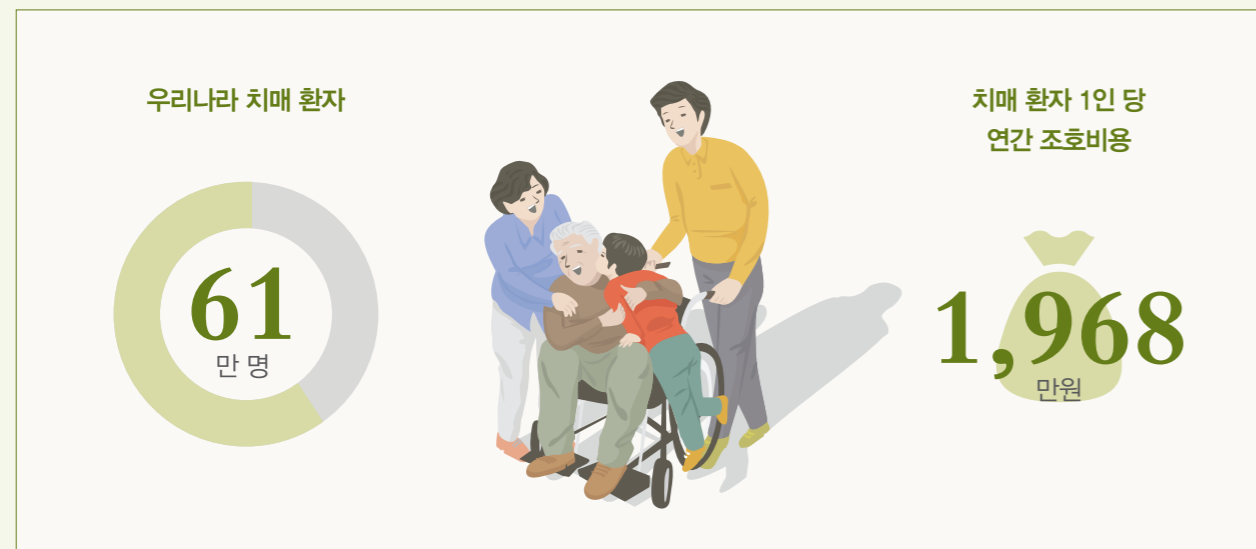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는 경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종사자, 치매가족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치매예방에 관한 최신정보와 동향, 프로그램 공유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만들어 고령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Q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해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61만 명의 치매인구가 살고 있으며, 고령화시대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치매 환자 현황]

(출처: 2014년 9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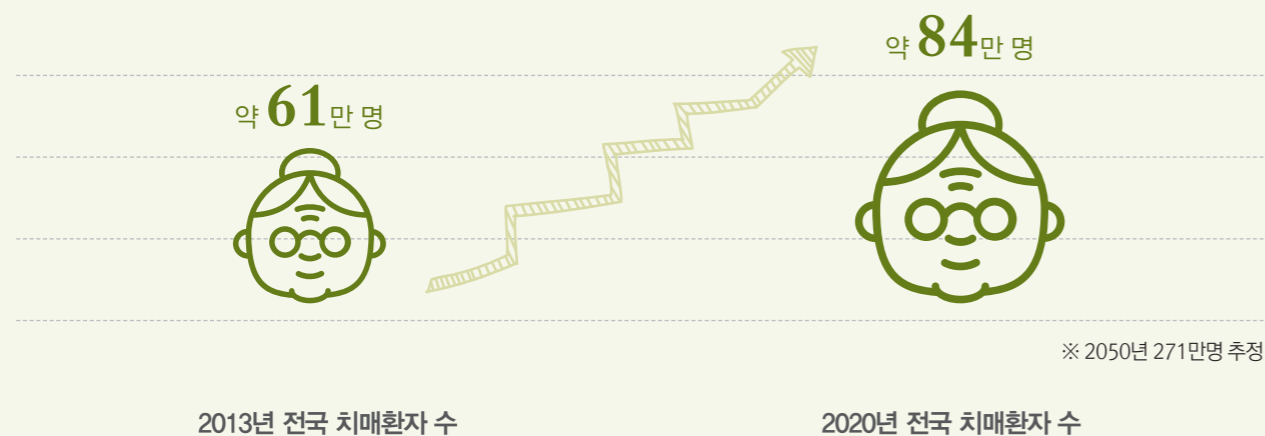


Q “치매 어르신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지신데요!”

치매가족의 부양부담은 앞으로 더욱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치매 환자 현황]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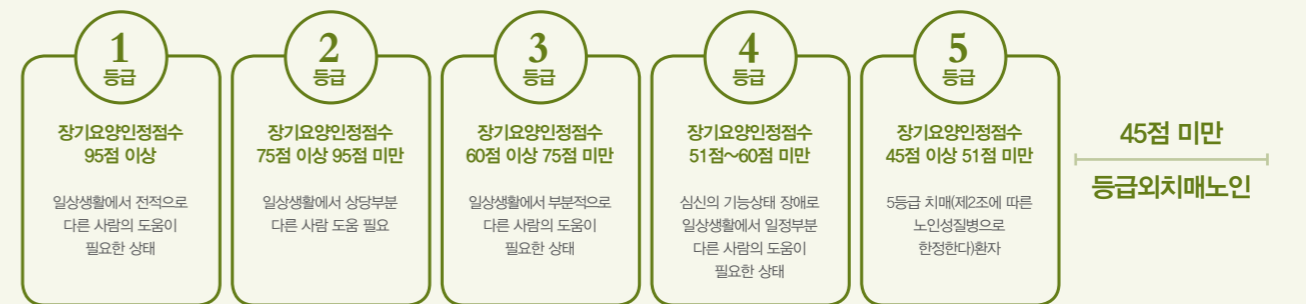


Q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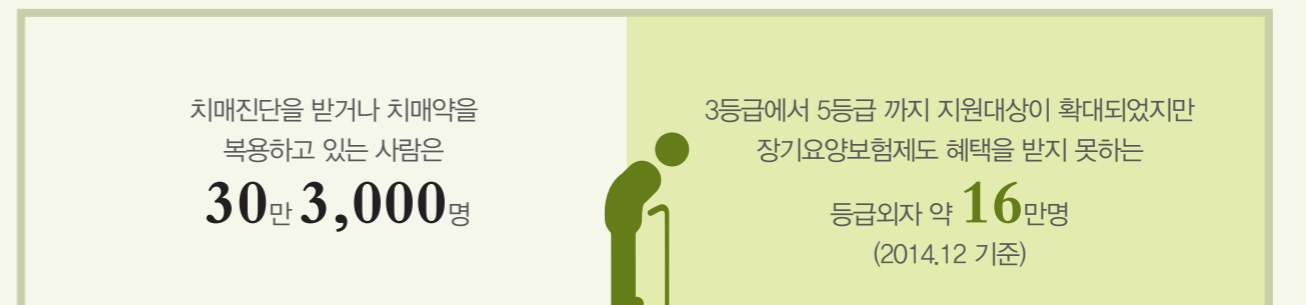
치매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5등급까지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014.7.1개정)

[등급외치매노인 기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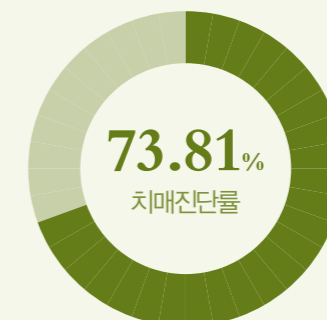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Q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올바른 인식 확산이 필요해요!”

사회 전반적으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이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출처: 중앙치매센터)



01 사회문제로 번져가고 있는 치매문제, 조기 치료에 앞장서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경증 치매노인 주간보호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 치매노인이 안락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 경증 치매노인들의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 운영

심리기능 강화 프로그램	기능회복 프로그램	건강관리 프로그램
미술, 음악, 원예, 웃음치료 등	실버가베, 레크레이션, 종이접기 등	발마사지, 수지침, 족욕, 건강체크 등

- 부양가족 스트레스 해소 지원 및 교육 정보 제공

치매 및 증상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치매노인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 지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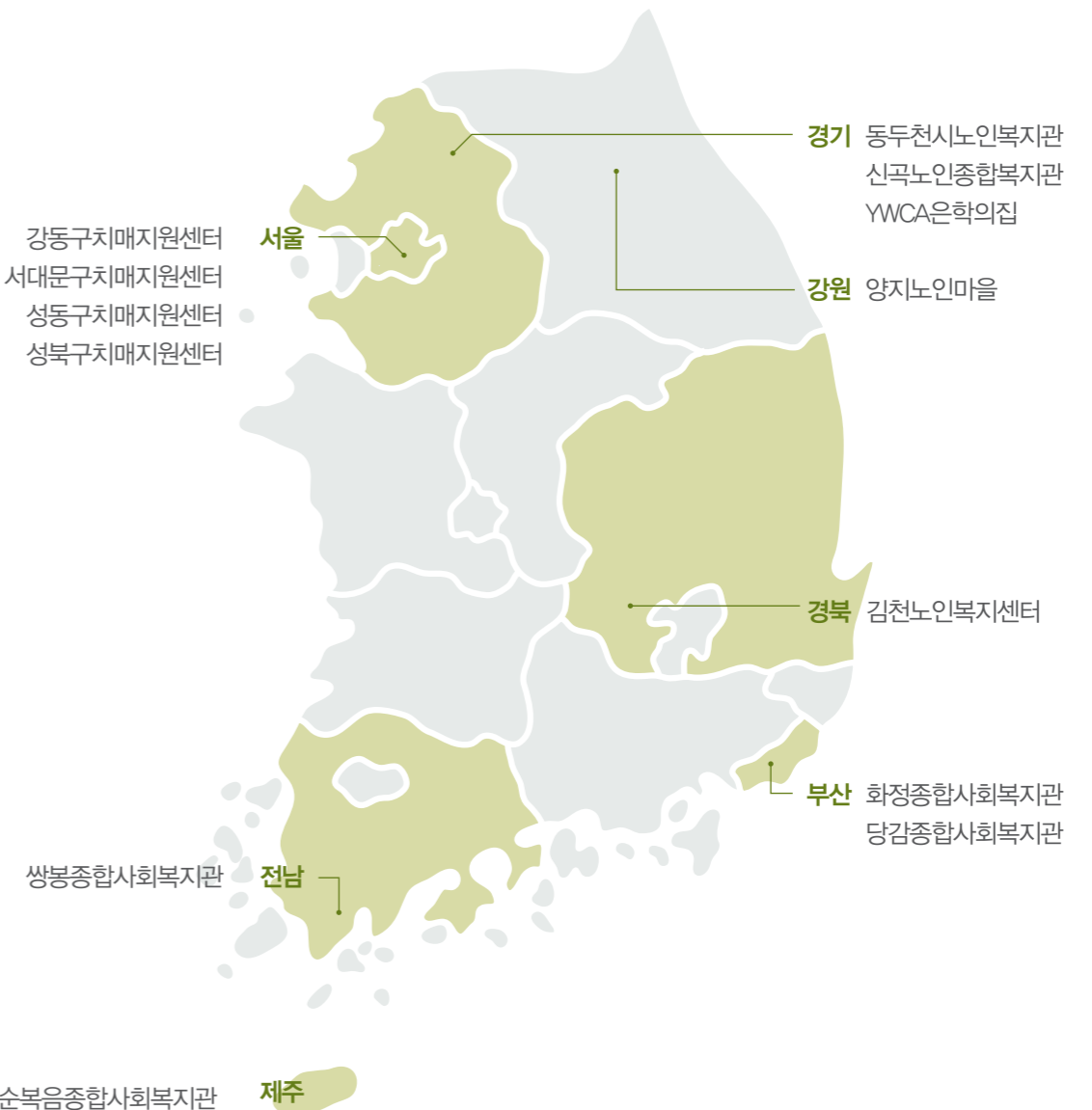
- 우수사례발표 및 워크숍 개최

전국 13개 시설을 선정하여 등급외 치매노인 주간보호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하였으며, 우수사례 발표 및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 13개 시설에 경증 치매노인 주간보호 프로그램 운영지원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 및 담당자 워크숍 개최



행복을
말하다



경증 치매어르신들의 증상완화를 위해 인지기능강화 및 심리정서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2 공공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국제 심포지엄은 치매 및 치매관리 전문가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최신정보와 동향, 프로그램 정보교류의 장으로써 효과적인 치매사업관리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국제심포지움 개최사업

2014 치매 국제 심포지움에는 치매기관 및 시설 종사자, 치매가족, 관련학교 교수 및 학생, 일반시민 등 353명이 참석하여 치매가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였습니다.



국제심포지움 개최사업

치매극복의 날 행사



행사명 2014 치매 국제 심포지움
주제 치매가족 지지프로그램
일시 2014. 10. 16(목) 13:30~18:00
장소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참석인원 총 353명(치매관련 전문가, 치매사업 관계자, 치매에 관심 있는 시민)
주최/주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서울시 / 서울광역치매센터

강연명	강연자
국내 치매환자 가족의 실태	한지원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치매환자 가족 부양 스트레스 개입전략	박창제 교수(경북대 사회복지학과)
서울시치매관리사업(기억키움학교)	박명화 교수(충남대 간호학과)
일본 및 미국 가족지지 프로그램 소개	Fumiko Makino(일본)/ Richard Schulz(미국)

행복을 말하다



치매가족의 부양부담에 대한 지지와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INTERVIEW

치료 이상으로 중요한 예방 지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류성곤 센터장

“긴 치매는 효자조차 무릎 꿇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과거 치매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치매예방을 위해 검진을 받는 등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 치매에 관한 인식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지원기관과 체계는 미흡한 편입니다. 류성곤 강동구 기억키움학교 센터장님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작년에 기억키움학교가 개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등급의 치매어르신, 강동구 기억키움학교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간단한 설명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보통 치매에는 등급이 있는데 등급의 치매 어르신들은 치매판정은 받았지만 등급을 받지 못한 분들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지만 건망증, 기억력감퇴, 언어능력 저하 등의 증상이 오죠. 하지만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환자들은 치매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지역에서 치매사업을 하는 센터 몇 곳을 선정하여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작년에 강동구 치매지원센터에 기억키움학교를 개소했어요. 치매라고 하기에는 증상이 심각하진 않지만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증상악화를 막고 지금의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여 현재의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등급의 치매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나요?

현재 오전 오후반 각 10명씩 총 2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은 크게 '인지능력 강화 훈련'과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 및 생활훈련' 두 가지로 운영하면서 그 외에도 정서적·심리적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의 건강한 기능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을 키우듯이 두뇌를 단련시켜 뇌의 회전과 기억력, 추론능력을 최대한 유지시키고 인지능력에 대한 학습을 진행해요. 또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엌일, 집안일과 같은 의식주 해결능력 등의 기본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훈련프로그램을 진행 하기도하고요. 그리고 1년간의 프로그램이 끝나면 지금까지 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억키움학교 개소 후 상태가 호전된 어르신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저희 기억키움학교를 다니시면서 환자와 보호자 모두 좋아진 김복순(가명)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기억키움학교에 다니시면서 요즘 김복순 할머니는 “예전하고 비교해서 내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라며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고 표정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따님께서도 “기억키움학교가 없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엄마랑 같이 기억키움학교에 다니면서 내 몸도 건강해지고 엄마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니깐 너무 좋아요” 라고 부담감을 많이 떨친 모습이에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며 우리가정에 행복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준 기억키움학교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 감사를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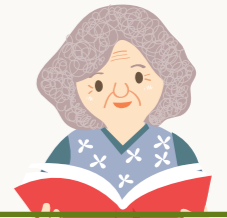
치매에 대한 선입견과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을 위해 기억키움학교가 어떻게 자리매김 하길 원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존 치매환자에 관한 정책은 치매가 중등도(3등급)이상 진행된 사람을 관리하고 수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실 말기환자에게 들어가는 의료비나 인건비 등은 조기 환자 100명을 관리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사회적비용이 소모되거든요. 조기에 환자들을 관리하면 사회적 비용, 인건비와 진료비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예방관리를 한다면 노인 분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로 고생하는 기간을 줄여 행복한 삶을 더 누리실 수도 있고요.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도 조기 예방·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기개입을 통해 훨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국가적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장관계자의 입장에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사업과 역할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생보재단의 치매예방지원 사업은 지역 치매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키움학교와 같은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치매예방사업이 정책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여건과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재단에서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시설들도 자발적으로 치매예방사업에 관심을 갖고 실행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 사업이 초석이 되어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국가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여러 면에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

예방 지원으로 치매를 극복하고 있는 희망 이야기



김복순 할머니 이야기

김복순(가명) 할머니는 알츠하이머로 진단 받은 지는 5년이 넘었었어요. 저희가 처음 할머니를 만나서 평가를 했을 때 인지상태는 기억력에서 현저한 저하를 보여서 10분전에 여쭙어 보았던 내용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따님이 잠깐 일을 보러 나가게 되어 미리 차려놓은 음식을 냉장고에서 꺼내 드셔야 하는 것 같이 비교적 쉬운 정도의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태였어요. 따님도 부양부담감 높아진 상태로 혼자서 어머니를 돌보려니 이제는 내 몸도 아프고 내 시간을 갖지 못한 기간이 길어지니 힘들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기억키움학교에 다니시면서 부터는 신체활동, 작업치료와 같은 인지활동, 일상생활활동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따님 역시 매일 할머니를 맡아주는 기억키움학교 덕분에 근처에 있는 스포츠센터에서 운동도 하시고 오전 중에 필요한 일과도 처리하세요. 가정에 행복을 되찾았다며, 항상 감사의 인사를 해주시는 할머니를 뵈 때마다 정말 뿌듯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을 통해 만난 인연 ⑥



2014년 생명보험의인상 시상식

2014년 12월 19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사회적의인 지원사업

01 생명보험 의인상

미소가
번지나

타인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의인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오늘보다 더 미소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사회적·인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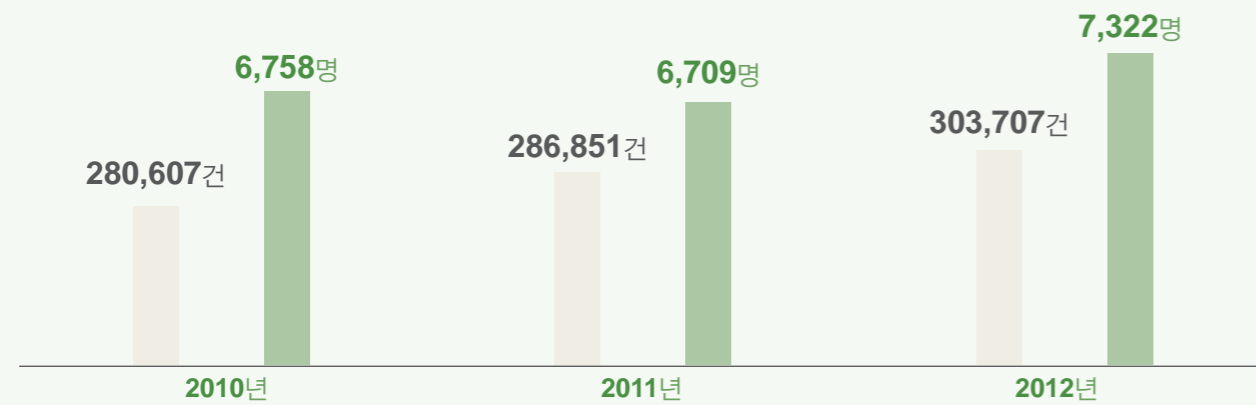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는 국가, 공동체, 타인의 생명을 위하여 헌신한 국가공무원 및 가족과 일반인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사고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들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관과 소방관, 용기 있는 일반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적재난 발생 현황]

(출처 : 국민안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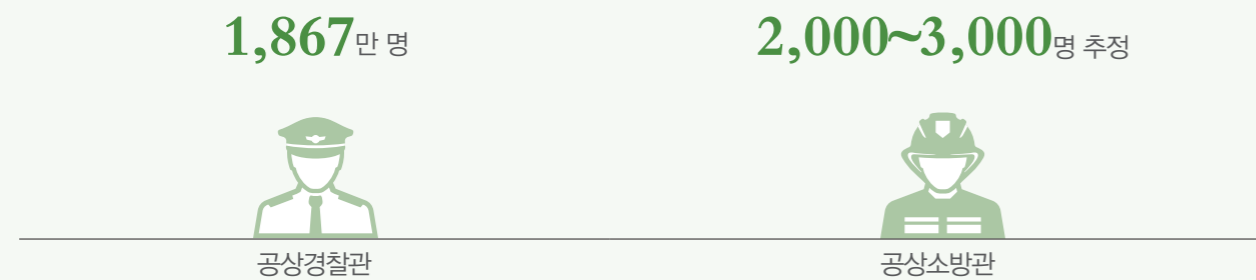


Q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해요!”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순직·공상 사례는 늘어났지만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여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찰 및 소방공무원 순직·공상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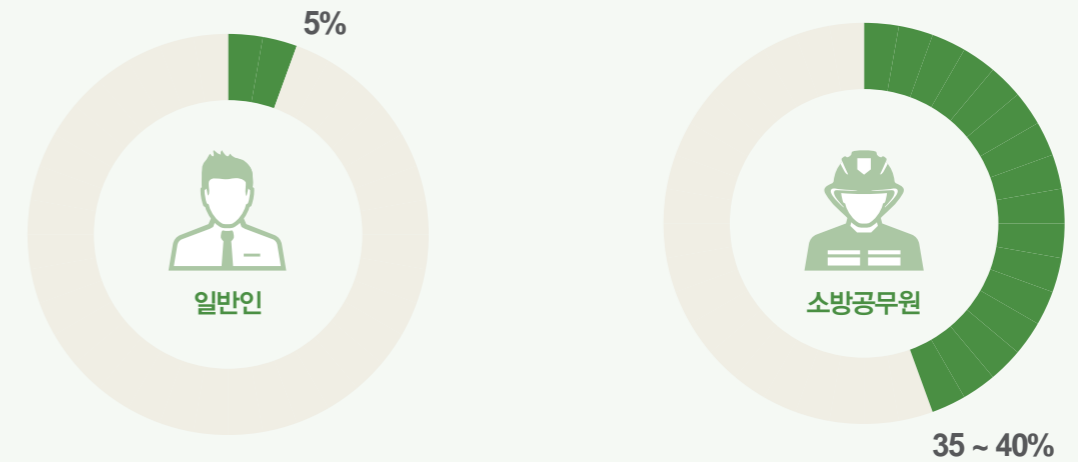
(2011년 기준)



Q “소방공무원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소방공무원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높고 작지 않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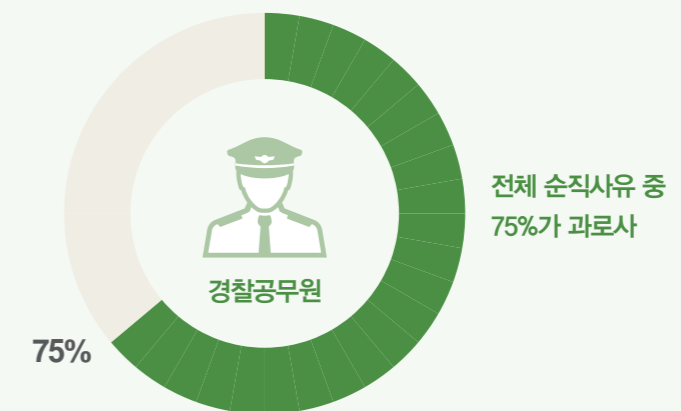
[소방공무원 PTSD 유병률]



Q “경찰공무원들은 과로로 인한 사고가 많아요!”

최근 3년간 순직한 경찰관 46명 중 30명이 과로사로 순직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 순직 사유]



01 살맛나는 세상의 따뜻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생명보험 의인상

타인의 생명을 구조하는 등 '생명존중정신'을 실천한 일반시민과 소방관 및 경찰관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공익을 확산시킵니다.

- 사업대상 : 일반시민, 순직공상 경찰관 및 소방관
- 사업내용 : 생명보험의인상 시상

구분	인원(명)	상금(억)
2009 (총 74명)	일반인	5
	소방방재청	37
	경찰청	32
	소계	74
2010 (총 28명)	일반인	7
	소방방재청	21
	경찰청	-
	소계	28
2011 (총 48명)	일반인	14
	소방방재청	18
	경찰청	16
	소계	48
2012 (총 50명)	일반인	13
	소방방재청	20
	경찰청	17
	소계	50
2013 (총 76명)	일반인	16
	소방방재청	20
	경찰청	40
	소계	76

생명존중을 실천한 의인 및 유가족을 지원하여 사회에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합니다.

2014
생명보험
의인상 시상
총 99명
3억 원 지원

<총 99명 3억 원 지원>
경찰부문 : 총 30명 시상, 1억 원 지원
소방부문 : 총 39명 시상, 1억 원 지원
일반부문 : 총 30명 시상, 1억 원 지원

행복을 말하다



사회적 의인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을 통해 생명존중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INTERVIEW

다양한 지원과 따뜻한 관심에서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신형욱 반장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 내 안위보다 타인의 생명을 위해 몸을 던져 희생함에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소중한 사람들,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회적 의인입니다. 점점 팍팍해지고 불의에 침묵하는 사회 속에 무엇보다 고귀한 것이 생명임을 몸소 보여주는 그들의 이야기를 소방방재청 신형욱 반장님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하고 있는 사회적인 지원사업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인인 자신을 헌신해 타인을 구한 분들로 군인, 경찰, 소방관, 공무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는 소방관, 경찰관, 일반인 분야 총 세 부분에서 사회적 의인 발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고 대한소방공제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지난 겨울 유난히 큰 화재도 많았고 사고도 많았습니다. 소방정책과에서 일하시면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순직한 동료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일반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 안타깝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어떤 편인가요?
소방 순직자들에 대한 지원은 크게 법적인 지원, 비법적인 지원으로 나뉩니다. 법적인 지원은 공무원 연금법상의 사망 조의금, 유족 급여, 순직 급여, 본인의 퇴직금 등으로 지원되며, 비법적으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주는 지원금 형태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 국가나, 재단에서 순직자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타 선진국에 비해 지원 규모와 체계가 부족한 편입니다.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일시적인 금전적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들, 즉 미망인과 자녀들의 취업보호 등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의인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의인이 계시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통계자료를 보니 소방관들은 평균 21분 18초마다 사건현장으로 출동하고 특수공무원 중 수명도 가장 짧아 평균 58세예요. 그만큼 현장에서 순직한 대원들도 많죠.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의인이라면 작년 세월호 구조 지원을 마치고 돌아오다 광주 도심에서 헬기추락사고로 순직한 강원도 특수구조단 대원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재단과 함께하는 사회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우선 재단의 지원에 무척 감사합니다. 매년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노부모에게는 생활비를, 자녀에게는 장학금의 형태로 나라에서 지원해주지 못하는 부분도 챙겨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지원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해 평균 소방 순직자들은 7명이에요. 이분들은 현장에서 순직한 분들로, 이 외에도 공무상 사망자들도 많거든요. 공무상 사망자는 출퇴근 길, 사무실 혹은 훈련 중에 돌아가신 분들을 말해요. 이분들의 유가족도 한 순간에 가장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는데 공무상 사망자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만남 인연 ⑥

사회적인으로 가슴 속 영원히 기억 될

강원도 특수구조단 대원들의 이야기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사건... 그 현장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사회적 의인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강원도 특수구조단 대원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본인들의 근무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도 팽목항 세월호 구조현장에 지원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 광주 도심에서 헬기추락 사고로 탑승했던 5명 전원이 순직하셨어요. 당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자칫 근처의 아파트와 충돌해 큰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특수구조단 대원들은 인명피해를 내지 않기 위해 도심 한복판에서 도로로 곧장 추락한 거예요.
소방관은 위험한 순간이 닥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아마 소방관의 희생정신과 소명감에 그러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 마음을 잘 알기에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들과 함께 특수구조단 및 모든 구조대 여러분의 희생정신 역시 영원히 잊혀 지지 않고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부하는 건강계단



계단을 걸으면 10원의 기부금이 적립되며,
히지장애아동의
재활운동기구 지원금으로 쓰입니다.

Step up and down for
children with paraplegia.
You can donate 10 Won (10 cents) by using stairs for
rehabilitation training tools.

每走一次楼梯, 就可以自动积累十元的捐款,
用来支援下肢残疾人康复训练器材。

階段を利用することで、
寄付金が10ウォン/歩立され、
下肢障害児のハビリのための支援金に使われます。



건강증진 지원사업

- 01 지하철 건강계단 조성 지원사업
- 02 건강나눔 도심걷기 지원사업
- 03 허리둘레5%줄이기 지원사업

건강을 지킴다

시공간적 제한이 많은 현대인을 위해
새롭게 시작된 건강증진 지원사업으로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활력 넘치는 일상을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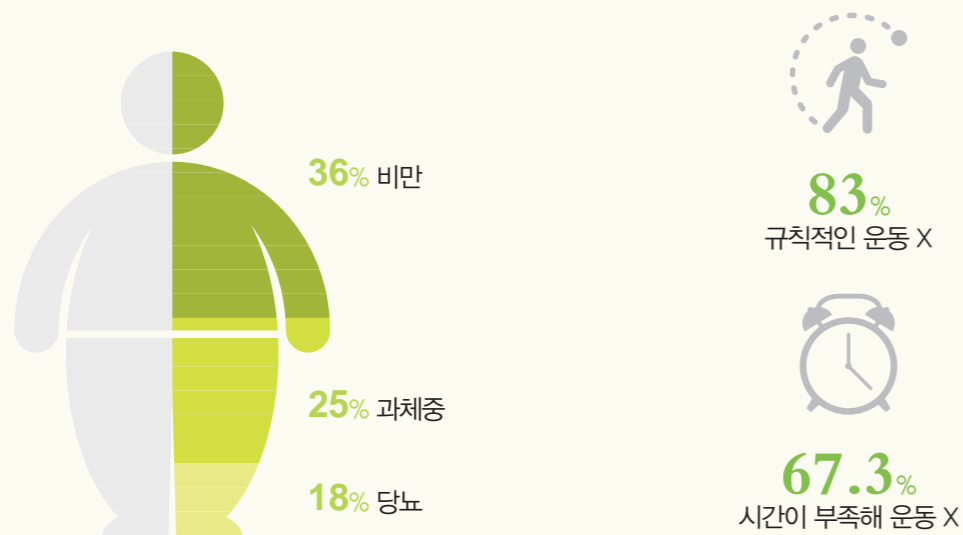
건강증진 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는 현대인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각종 질환 예방을 위해 지하철 건강계단 조성, 건강나눔 도심걷기, 허리 5%줄이기 사업 등 2014년부터 건강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Q “불규칙한 생활이 비만의 원인이예요!”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을 통해 생활 속 움직임 향상을 유도하는 전략 필요합니다.

[서울시민 대상 조사 결과]



Q “비만은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복부비만, 혈당장애 등 5가지 진단 기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사증후군이라 합니다.

[대사증후군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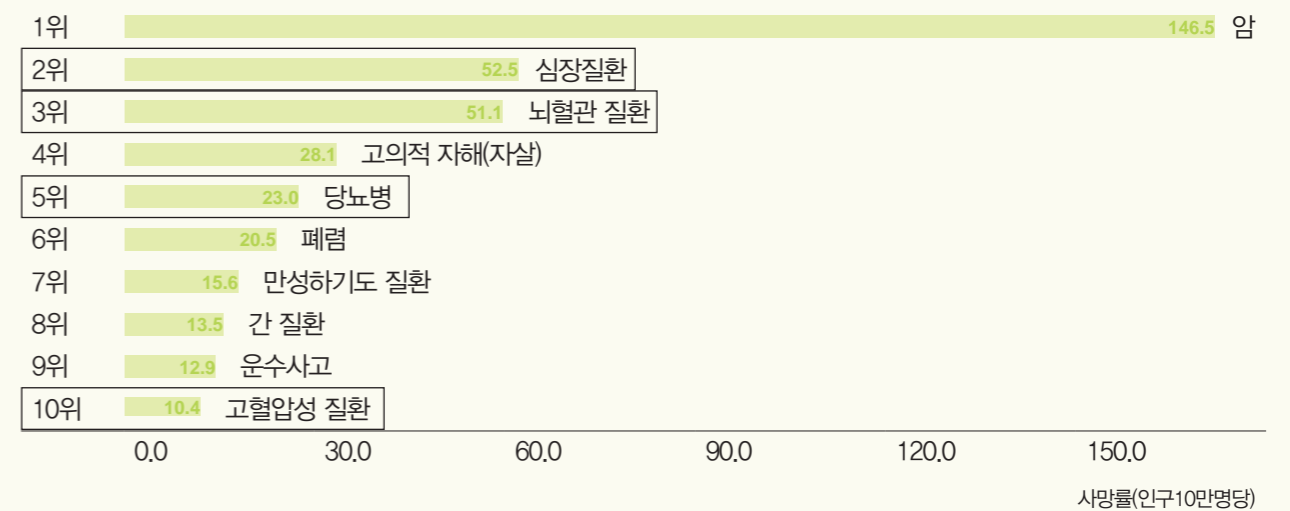
위험요인	진단기준
복부 비만	복부둘레 남성 90cm이상, 여성85cm이상 또는 BMI 25이상
높은 혈압	수축기혈압130mmHg이상 또는 이완기혈압85mmHg이상
혈당 장애	중성지방 150mg/dL이상
고중성지방혈증	중성지방 150mg/dL이상
낮은 HDL 콜레스테롤 혈증	HDL콜레스테롤 남자 40mg/dL, 여성 50mg/dL미만

대사증후군의 주요원인인 비만유병율은 31%로 계속 증가

Q “대사증후군은 생각보다 많이 위험해요!”

대사증후군은 국민 사망원인의 2위, 3위, 5위, 10위의 주요 원인으로 10만 명당 약 107명이 대사증후군에 의해 사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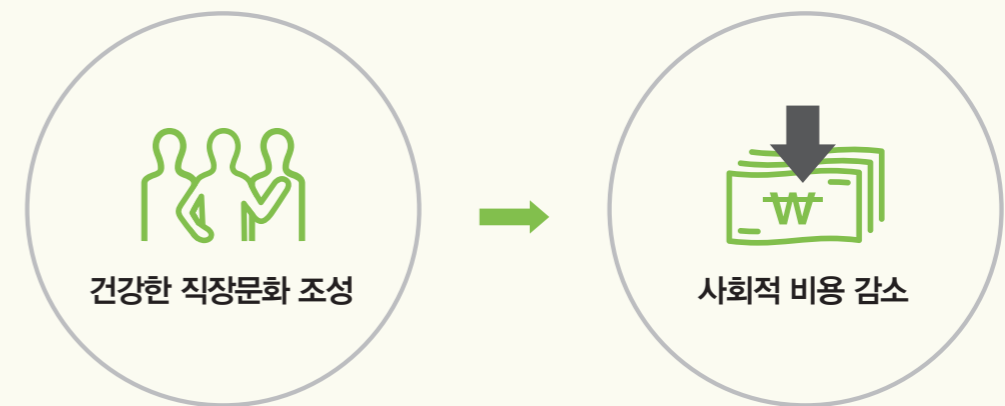
[국민 사망원인 주요현황]



Q “개인이 건강해지면 회사도 나라도 건강해져요!”

만성질환의 대표적 위험요소인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허리5%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직장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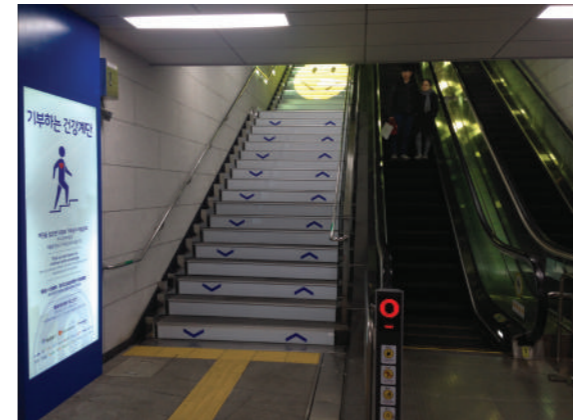
01 운동에서 시작되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듭니다

시간적·공간적 제한이 많은 직장인들을 위해 걷고 싶은 지하철 계단을 조성하여 현대인의 생활습관병인 '대사증후군'을 예방합니다.

지하철 건강계단 조성 사업

- 걷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색상, 조형물을 활용한 계단 조성
- 계단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부캠페인 (이용객 수에 따라 장애인동에게 이동보조기구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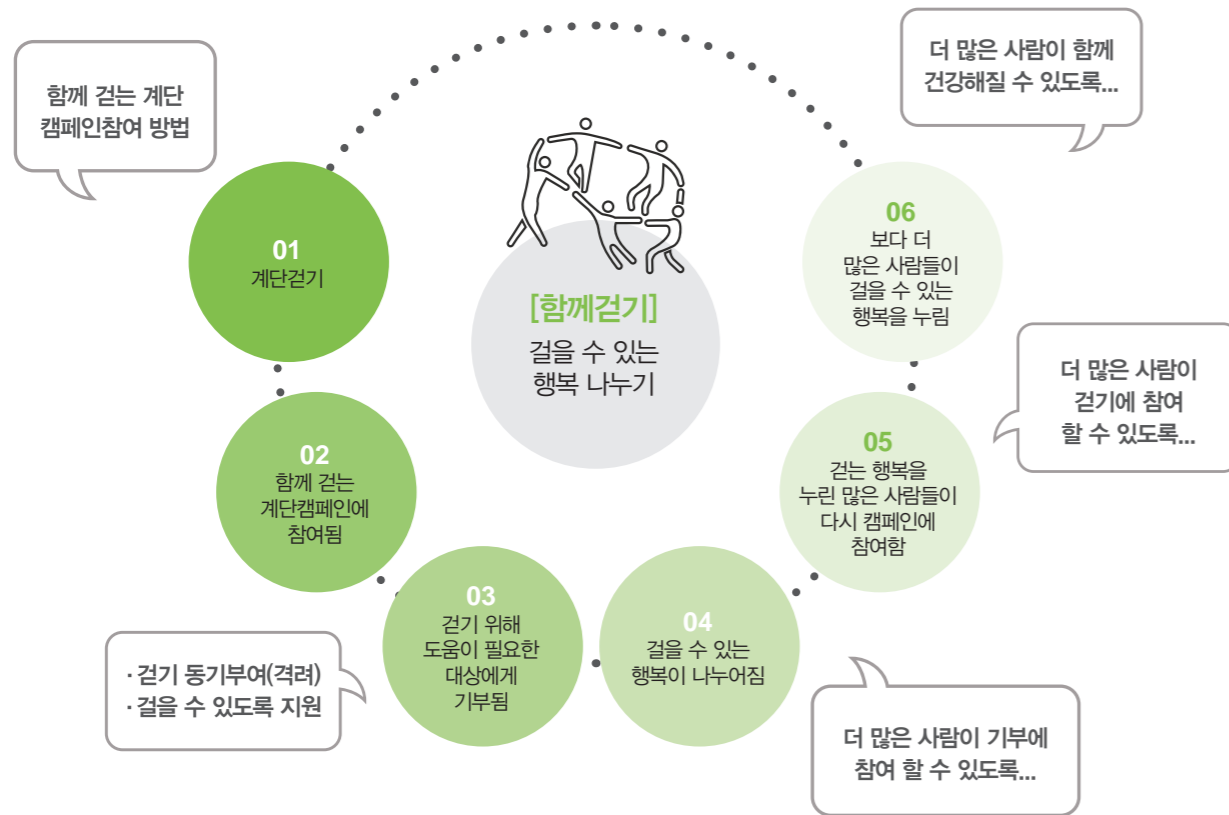
시청역, 왕십리역에 지하철 건강기부계단을 설치하여 걷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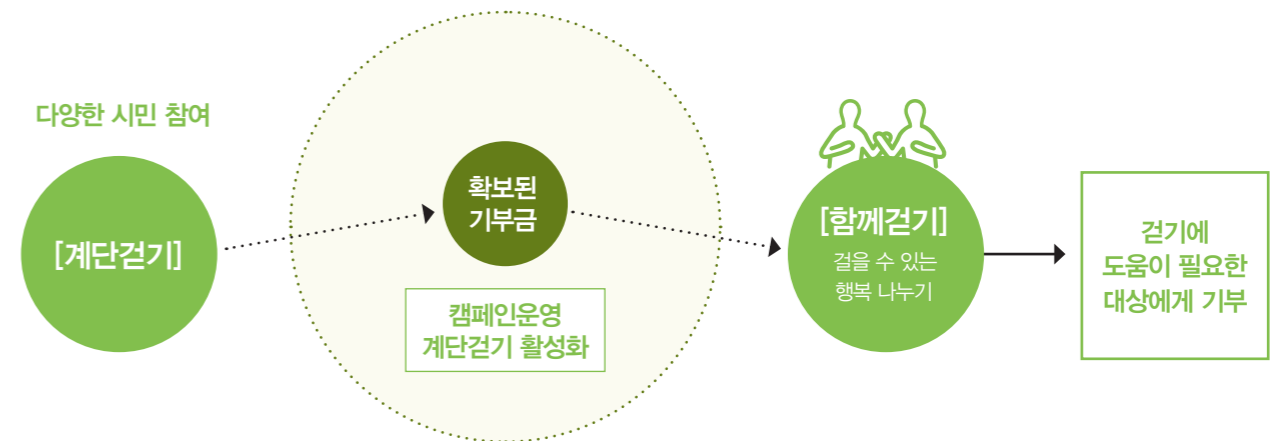
시청역 지하철 건강계단



왕십리역 지하철 건강계단



걸을 수 있는 행복 나눔 캠페인



건강을 지키다

지하철 계단을 활용한 생활 속 걷기 습관으로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02 지속가능한 생활 속 운동 방안을 모색합니다

바쁜 업무와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건강이 위협해진 현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도심걷기를 활용한 건강증진 경쟁프로젝트입니다.

건강나눔 도심걷기 지원사업

- 서울소재 직장인 100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젝트 진행
- 15주간 운동/식이/습관 부문 지원 및 걷기대회 진행
-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건강한 생활습관 체화

직장인 100명을 대상으로 15주간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으며, 최대 22.2kg을 감량하는 등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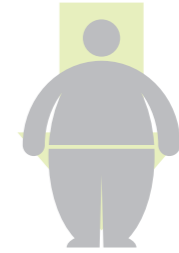


5.0%
전체 평균 체지방 감량



전체 평균 체중 4.3kg 감량

14.8%
최대 체지방 감량



최대 체중 22.2kg 감량

· 건강생활 지원금의 50%는 기업명으로 복지소외계층에 기부

LG전자

825만원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대우인터내셔널

76만원



기아대책본부

그 외 기업

365만원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협의회



건강을 지키다



건강도 지키고, 재미도 있는 다양한 일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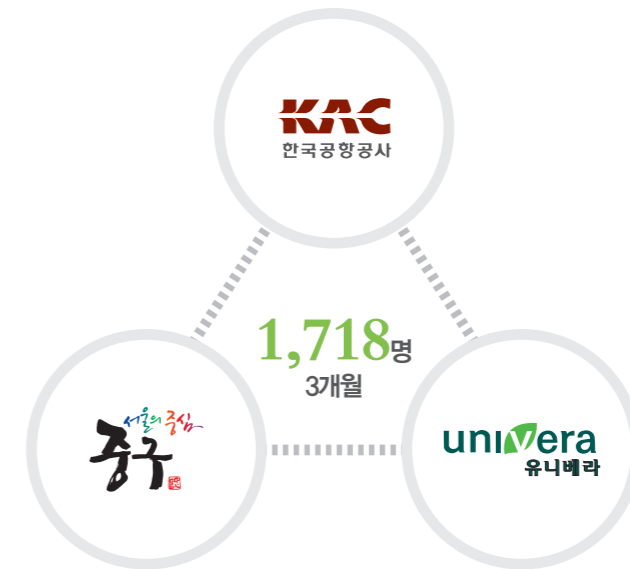
03 집중적인 관리로 건강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만성질환의 대표적 위험요소인 대사증후군 예방의 일환으로 허리 5%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합니다.

허리둘레5%줄이기 지원사업

- 서울소재 3개 직장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실시
- 직원식당 운영 실태 및 사내 운동프로그램 등 직장환경 진단
- 대사증후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개인 영양상담, 운동처방 및 프로그램 운영

- 3개 직장 환경진단 및 참여자 대사증후군 검진



허리둘레 평균
1.4cm 감소

대사증후군 유병률
평균 9% 감소

호전률 평균
45.9% 감소

- 건강문화 확산을 위한 「건강친화 직장문화 조성 매뉴얼」 보급



다양한 사업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직장환경 개선 매뉴얼 개발



대사증후군 교육용 책자 제작 및 배포



직장인을 위한 밴드 스트레칭 동영상 제작 배포

건강을 지키다



복부비만 중심의 운동과 종합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직장인들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겠습니다!

1



사업장 방문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된 직장을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전반적인 직장 환경을 관찰하고 변화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

2



사전검사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혈검사, 신체계측 및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대사증후군 관련인자를 측정하고 고위험군을 선별

4



사후검사

채혈검사, 신체계측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 전후의 직장 내 건강수준의 변화를 분석하고 대사증후군 위험인자의 개선 정도를 파악



대상: 전직원

전직원 대상 프로그램

- 01 집단 의학/영양/운동 교육
- 02 급식 및 간식 품질 변화
- 03 직장 건강문화 조성
- 04 다이나믹 밴드스트레칭

대사증후군 고위험군

고위험군 대상 프로그램

- 01 소그룹 영양교육(월1회)
- 02 개인영양상담(개인별 3회)
- 03 정밀체력검사
- 04 10주 운동프로그램(주 3회)

INTERVIEW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가 인생까지 바꿀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눔 코리아

정수덕 이사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심혈관계 죽상동맥 경화증 등의 여러 가지 질환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대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당장은 자각증상이 없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합병증으로 증상이 심각해져서야 병원을 찾습니다. 그만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대사 증후군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쉬운 예방 방법인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한 비만예방 및 적절한 체중유지를 돕고 있는 건강증진 지원사업!눔 코리아 정수덕 이사님을 통해 대사증후군 발병율이 높은 30~50 직장인 세대를 위해 건강한 첫 발을 내딛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건강나눔 도심걷기 지원사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생보재단과눔코리아가 함께하는 '건강나눔 도심걷기 지원사업'에 대해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한 '건강나눔 도심걷기 지원사업'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 시내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과 비만의 위험이 있는 분 100명을 선발하여 건강관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널리 보급된 스마트폰을 활용해 온라인 위주로 건강관리를 도왔습니다. 자기 건강관리를 못한 사람을 왜 사회공헌재단이 건강관리에 나서는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현대사회에서의 비만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선진국으로 진화하면서 공통적으로 생기는 현상으로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은 90년대 초반에 이미 소득과 비만도가 역으로 비례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한국도 2007년을 기점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아동일수록 비만도가 높은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가난한 사람이 비만하다는 것이죠. 소득 수준이 낮으면 영양 불균형에 따른 비만이 오기 쉽고 이는 곧 구직활동에서 차별을 받는 악순환의 구조인 것입니다.눔코리아의 주사업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업이지만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이라는 좋은 취지에서 재단의 지원을 받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눔 코리아 회사소개와 이번 '건강나눔 도심걷기 지원사업'에서눔코리아의 역할도 궁금합니다.

눔(Noom) 글로벌 본사는 모바일 기반으로 건강관리 기술을 만들어 구글 플레이 마켓 건강/운동 카테고리에서 지난 27개월 연속으로 매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제품군 사용자는 3000만이 넘고눔다이어트 코칭 이용자는 130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눔코리아는눔의 아시아 사업 전초기지로서눔 본사에서 개발한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장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보재단과 함께한 건강나눔 도심걷기 지원사업은 사업 기획부터 운영, 최종 보고서 정리까지 담당하며 참가자들의 건강관리를 도왔습니다.

건강나눔 도심걷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신청을 통해 모집한 100명의 참가자를 5명씩 20개의 팀으로 나누어, 팀 간 경쟁과 팀 내에서의 협동을 통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크게 체지방 감량-건강유지-건강습관 체화의 3단계로 나뉘며, 각각 6주/4주/5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단계인 체지방 감량에서는눔 다이어트 코치 앱을 기반으로 다양한 미션을 통해 건강하게 체지방을 감량하고, 2단계에서는 감량한 성과를 요요가 오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그간 실천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자가



관리 계획을 짜고 5주 동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습관을 몸에 배도록 하여,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건강한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건강이나 비만, 대사증후군이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제도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민건강보험의 95% 이상이 아픈 다음에 치료를 해주는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너무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기 전에 관리를 하면 비용, 삶의 질, 실제 신체 건강 측면에서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예방 의학'입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해서 관리하자는 뜻으로 실제로 미국 오바마케어에서 ACO라는 제도를 도입해 예방 의학적인 환자 관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건강나눔 도심걷기 지원사업도 예방의학적인 접근 인거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확대된다면 국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재단과 함께하는 건강증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이번 건강나눔 도심걷기의 경우 전체 참가자들의 94%가 프로그램을 완주할 정도로 성공적인 지원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중감량 1위를 달성하신 분의 경우 외모에서 건강까지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비만이나 건강을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시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강나눔 도심걷기 지원사업이 생보재단의 도움으로 이처럼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어낸 만큼 앞으로도 계속 도움을 주신다면 더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통해 만난 인연 ⑦

체중감량 1위로 프로젝트를 완주한

LG전자 연구원의 이야기



건강나눔 도심걷기 지원사업의 경우 94%의 참가자들이 프로젝트를 완주하며, 모두가 훌륭하게 살을 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체중 감량 1위를 달성하신 LG전자 연구원이 기억에 남습니다.

외모도 외모지만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적인 측면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원래 체중이 많이 나가셔서 쉽게 피로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족저근막염'을 앓고 있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이 너무 괴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프로그램 참가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하루하루 살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식습관과 체중조절에 중점을 두고 생활습관을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갔으며, 팀 별 경쟁으로 진행되다 보니 친목은 물론 중도 포기 없이 이처럼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보·보도자료

- 01 홍보 실적
- 02 보도 자료
- 03 보도 리스트

생명보험사와 재단의 진정성을 담아 소통합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는 재단의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과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방송, 신문, 라디오,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매체별 언론 보도 결과

재단뿐만 아니라 각각의 7대 지원사업에 대한 매체별 언론보도를 실시합니다. 2014년에는 방송, 신문, 라디오, 매거진 등 매체의 특성과 기념일에 맞춰진 적시적인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전년대비 44%증가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방송, 신문, 라디오, 매거진 106 개 주제 897 건 보도	2013년 대비 홍보실적 44% 증가
---	--------------------------------

2014년 재단 홍보 발간물 발행

2014년 한 해 동안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사업 및 홍보결과 보고를 위한 애뉴얼리포트와 언론보도집을 제작하여 임원, 자문위원, 출연사, 사업수행단체, 기자, 홈페이지 공시 등의 다양한 배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애뉴얼리포트 및 보도자료집 제작 및 배포

애뉴얼리포트/ 보도자료집 합본	1,500부
------------------	--------

더하기 제작 및 배포, 대학생기자단 운영

대학생기자단 운영하여 사회공헌전문지 '더하기' 월 1회 발행, on/off-line 배포



2014년 온라인 및 SNS 홍보

2014년에는 보도 외 직접 소통을 위한 온라인 및 SNS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기업사회공헌 전문지 더하기'의 경우 연간 페이지뷰 77,317를 기록하였으며, 페이스북을 활용한 홍보도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블로그 및 SNS(페이스북) 운영

연도	방문횟수	방문자수	페이지뷰
2014	70,896	67,087	77,317



[네이버 블로그 '기업사회공헌 전문지 더하기']

[페이스북 '기업사회공헌 전문지 더하기']

6년간 받은 선물... 제 삶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2014.04.22.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최태욱 기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6년이 만든 변화

지난 2008년 69조원이었던 복지 예산이 5년 만에 100조를 넘어섰다. 전체 정부 예산의 28.5%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가 미처 돌보지 못하는 곳은 여전히 존재한다. OECD 회원국 중에서 10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출산율 문제나, 연평균 200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청소년 자살 문제,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희귀·난치성질환, 경증 치매 노인 분야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007년 12월 설립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주목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18개 생명보험사가 사회공헌의 뜻을 한데 모은 만큼,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과 사회적 약자를 우선으로 지원해왔다. 지난 6년간 재단의 도움을 받아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기업 사회공헌이 미치는 영향력을 들여다봤다.



▲ 동두천시노인복지관에서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최순덕 할머니

학습용 보조기로 근이양증 말고 건국대 합격한 조연우 군

“다리 힘이 풀려 주저앉은 후 다시는 일어날 수 없었어요.” 조연우(23·건국대 정치외교학과)씨가 '근이양증' 진단을 받은 건 초등학교 1학년 때. 근이양증은 몸의 근육이 점점 없어지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조씨는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만 틀어박혔다. 가까스로 움직일 수 있는 팔로 온종일 컴퓨터 게임을 했다. 이후 7년 동안 근육은 더 굳고, 호흡은 힘들어졌다. 적어도 휘었다. 허송세월의 마침표를 찍은 건 지난 2008년. “공부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생기면서부터다. “재활 치료 중 같은 병을 가진 사람이 공부하는 걸 봤어요.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앉아 있기도

차 힘들어 누워서 책을 봤고, 늘 누군가가 옆에 붙어 있어야 했다. 힘든 상황이 이어질 무렵 '한벗재단'을 만났다. 한벗재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보재단)의 지원을 받아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학습용 보조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곳이다. 조씨는 이곳에서 '안구마우스'(눈동자에 따라 마우스를 움직이는 기기)를 받아 컴퓨터를 사용하고, '아이패드'로 독서를 대신했다. (중략)

5번 유산 끝에 의료비 지원받고 낳은 딸, 이제 유치원생



“계절 바뀌는 게 순리인데, 계절 계속 겨울인 것 같았어요.” 김진희(37·경기도 안산)씨는 2006년부터 매년 임신하고, 매년 유산을 했다. “원인조차 몰랐다”고 한다. 2010년 5번째 임신을 했을 땐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출산에 집중했다. 하지만 산부인과에서 “출산까지 못 갈 가능성도 크고, 출산을 해도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뱃속의 아이는 장기가 몸 밖으로 나와 있는 '선천성 제대탈장' 상태였다. (중략)

반항아가 자원봉사하고 맞벌이 세 자녀 엄마는 맘 놓고 출근해

'파주생명꿈나무돌봄센터' 라복심 센터장이 기억하는 민수(가명·10)군은 거친 아이였다. “처음 보자마자 'XX!' 이라고 욕부터 했어요. 아빠의 폭력으로 엄마가 도망갔는데, 그걸 지켜보며 욕을 배운 거죠.” 센터에서는 잦은 칭찬으로 민수군이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했다. 라 센터장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아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중략)

치매 어머니 돌보느라 '죽겠다'던 김씨... 이젠 삶의 질 회복해

“어느 날부터 물건을 서랍에 숨겨뒀어요. 사과 같은 게 서랍 속에서 썩었어요. 방금 말한 것도 잊고, 밤엔 이유 없이 보따리를 싸기도 했어요.” 김영숙(68·경기 의정부)씨의 어머니 박영희(88)씨는 '등급 외 치매'였다. 경



중이었기 때문에 치매 등급 판정을 받지는 못했다. 어머니를 돌보는 건 오롯이 김씨의 몫이었다. 등급 1~3 치매 환자와는 달리, 별다른 (정부)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 가족은 두 모녀가 전부여서, 김씨 혼자 남편과 보호자 뭉까지 했다. 김씨는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 갈등이 많이 생겼다”고 했다. 방금 한 말이 되풀이될 때마다 짜증도 되풀이됐다. “어머니 앞에서 죽겠다며 울기도 했다”고 한다. 심신의 피로가 극에 달할 무렵 신곡노인종합복지관을 알게 됐다. (중략)

난치병 연우에 '안구 마우스'... 대학 진학 꿈 실현

2014.06.13. 동아일보 이상훈 기자



▲ 손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난치질환 '사르코마리투스' 병을 앓고 있는 진성선 씨(강남대 사회복지학과·오른쪽)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지원한 학습보조 기기의 도움을 받아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학업에 정진하고 있다. 진 씨가 대학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생보사회공헌재단 제공

따뜻한 금융, 이제는 실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 잇단 사고와 반복되는 임직원의 일탈로 금융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자본주의의 근간인 금융이 신뢰를 잃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도약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지난달 28일 열린 '2014 동아국제금융포럼'에 참석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공익(公益)이 결합된 새로운 금융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악랄적 금융'에서 벗어나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다. 한국 금융의 신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인간 친화적 금융 혁신이 시급하다. 눈앞의 이익만 좇지 않고 금융 혁신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따뜻한 금융의 실천 사례들을 소개한다.》
근육이 굳고 척추가 휘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근이양

증을 앓고 있는 조연우 씨(20)는 올해 건국대 정치행정학부에 입학했다. 책상 앞에 앉는 것조차 힘들지만 대학 진학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매진해 당당히 합격증을 손에 쥐었다. 조 씨는 “희귀난치병이 있어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정치외교학을 전공해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복지를 실현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00만 원 상당의 안구 마우스와 아이패드 등 학습보조 기기를 지원해 조 씨의 도전

을 응원했다.

(중략)

사회가 건강해야 생보사도 성장

보험사들은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펀드를 조성해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모은 기금은 총 857억 원. 생보사회공헌위원회는 “보험사들이 힘을 합쳐 큰돈을 오랜 기간 투입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은 생보업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치료제가 없는 유전질환인 부신백질이영양증(ALD)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들에게는 병세 악화를 막는 의료용 식품인 '로렌조 오일'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전국 63개 협력병원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최대 500만 원의 의료비를 보조하고 있다.

(중략)

금융상품 혁신으로 약자 배려

최근에는 보험업의 본질을 살린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자립 의지를 갖고 성실히 일하면서 보험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는 금융상품을 내놓자는 것이다. 최근 선보인 장애인 연금보험은 업계와 금융당국이 힘을 합쳐 만든 대표적인 '따뜻한 금융상품'. 전국의 251만 등록 장애인만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사업비를 최소화해 낮은 보험료를 책정하면서도 수령액은 일반 연금보다 최대 25% 많다. 회사에 돌아오는 이윤은 매우 적지만 사회에 돌아가는 편익은 크다. 금융당국도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일부를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생보사회공헌재단은 올해 4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따뜻한 금융 실천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경룡 생보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서강대 명예교수)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약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적 도움뿐 아니라 자립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난제들을 푸는 단초를 보험업계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뛰어 내릴까... 전화 한통이 살린 1338명

2014.06.24.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총 지원액 464.7억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지원사업 (2007년 11월부터 5월 현재까지 누적 기준)	
보육사각지대해소 지원사업	2,462명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육사업	1,369명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9,377명
사회적·의인 자녀 희망키움 캠프	53명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	1,150명
건강증진 지원사업	1,000명(13개 기업)
등급외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지원사업	3,552명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1,545명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사업 (전체)	10,605명
자살예방 긴급상담전화(hot-line) 설치사업	1,231명
사회적·의인 지원사업	174명

#지난달 15일 오전 4시 20분, '생명의 전화기' 상담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넘어 10대 A군의 목소리는 떨렸다. A군은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교까지 그만뒀다"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

절망에 빠진 A군은 마포대교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 수화기를 힘없이 들었다.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즉시 출동한 경찰관은 통화중인 A군을 만났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아 귀중한 생명이 구출된 것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생명의 전화기'는 지금까지 총 1338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 지난 2007년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설립한 이 재단은 자살예방사업뿐 아니라 어린이집 건립, 미숙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사회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강 다리에 '생명의전화' 33대...1338명 투신막아=국내 자살시도자는 연간 15만명으로 추산된다. 더불어 자살시도자는 자살자 수의 10배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지만 정작 자살예방 상담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할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보재단이 지난 2011년부터 자살다발지인 한강 다리에 '생명의 전화(핫라인)'를 설치, 상담과 신고를 통해 자살시도자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11년 한남대교, 마포대교에서 각 4대씩 총 8대를 설치해 운영했으나, 2012년에는 한강대교, 원효대교에도 생명의전화기를 설치했다. 지난해 동작대교, 영동대교, 잠실대교 등에도 추가하는 등 현재까지 총 33대를 가동 중이다.

설치 첫해에는 11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했으며, 2012년에는 163명이 이 전화기로 통화를 하다가 마음을 돌려 투신을 막을 수 있었다. 현재까지는 총 1338명의 투신 시도자를 막으면서 자살예방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생명의 전화신고 덕분에 지난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투신자 구조율은 94.1%로 전년(51.1%)대비 2배 가량 개선됐다.

생보재단은 생명의전화기 전문상담원을 양성하고 상담라인을 2배 확대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월까지 현장실사를 마치고, 8월경 전화기를 설치할 다리를 선정할 뒤 10월에 설치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660명 지원...질환센터도 건립=생보재단은 또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오랜 치료기간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다.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연령 제한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민간재단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중략)

생보재단은 또 희귀질환자의 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담-치료-경제적 지원' 등을 연계하는 희귀질환센터 3곳을 운영 중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의 '호흡재활센터', 전남대학교병원의 '희귀난치통합케어센터',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희귀질환센터'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저출산 지원부터 치매노인 지원 사업까지=생명보험사들은 지난 2007년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를 설립했다. 산하에는 생보재단 등 3개 운영기관을 뒀다. 올해는 295억원 출연금 중 119억원이 생보재단에 지원됐다.

생보재단은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육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저출산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자살예방 지원사업,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사회적·의인 지원사업 등 6대 지원 사업을 펼쳤다. 올해는 여기에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이 사업은 현대인의 식생활과 운동습관을 개선해 생활습관병인 대사증후군을 예방·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시형 박사, 어린이 건강교육 강조

2014.11.24. 동아일보 김수연 기자

체육활동때 나오는 두뇌호르몬, 충동조절하고 집중력 발휘 도와...

아동 게임중독-학습장애 예방"

"선생님, 이렇게 힘차게 걸으면 '세로토닌' 나오죠?"

최근 찾아가 서울 구로구 구로생명숲어린이집. 이른 아침 체크무늬 체육복을 입은 아이들이 유치원 복도에 그려진 안내선을 따라 다리를 힘차게 들며 동요에 맞춰 걸었다. 이 어린이집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지원하는 곳으로, 재단의 철학에 따라 '행복, 건강, 존중, 사랑'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만난 이시형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사진)은 "몸이 건강한 아이가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란다"며 어린이 건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린이집의 특성화 프로그램인 '세로토닌 키즈 프로그램'이란...

"자살, 폭력 등 사회문제는 충동 조절 능력과 연관돼 있다. 세로토닌은 자신의 충동성을 조절하고, 집중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두뇌 호르몬이다. 이것이 부족한 아이들이 자라면서 게임중독, 학습장애 등에 빠진다."

아이들의 체육활동은 세로토닌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체육활동을 하며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몸을 단련하는 과정에서 세로토닌의 분비가 왕성하게 일어난다.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행복씨앗'이라고 설명한다. 신나게 걷기, 명상하며 요가하기 등 체육활동을 하면서 '행복씨앗'이 풍성하게 분비된다."

영어, 수학 등을 가르쳐주길 바라는 학부모가 많은 텐데...

"우리는 학부모 설명회를 하면서 분명히 말한다. 미취학 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체육활동이라고. 우리도 기본적인 지적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매몰되느라 체육활동에 소홀하면 안 된다. 어린 시절 세로토닌 분비를 통해 잘 형성된 자아 개념이 청소년기, 중·장년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생명숲어린이집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좋은 습관 형성이다.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절제력을 가진 아이로 키우는 게 목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자살, 게임중독, 폭력 문제 등은 어린 시절 이런 습관 형성에 소홀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정신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체육활동을 통해 신체가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앞으로 생명숲어린이집을 얼마나 늘려갈 계획인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12년부터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단지 등을 골라 현재까지 총 7곳에 생명숲어린이집을 건립했다. 앞으로 지역의 소득 수준과 숲·공원 등이 근처에 있는지 등을 고려해 2021년까지 어린이집을 30개로 늘려갈 계획이다."

생명보험재단, 아이들에게 설 맞이 전통교육과 나눔실천

2014.01.29. 아시아투데이 외 7건 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생명숲어린이집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세배하는 법을 배우는 데 한창이다. 설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에 방문해, 설 명절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생명숲어린이집 어린이들에게 설날을 맞아 지역사회 경로당에 방문해, 할아버지, 할머니께 세배를 드리고 노래를 부르는 등 어르신들과 정겨운 시간을 보내는 설 맞이 나눔실천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나눔실천교육은 어린이들이 직접 어르신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경험해 보면서 도덕적 가치와 인간관계의 소중함, 예절을 몸에 배도록 하려는 취지로 실시됐다.

또한 생명숲어린이집에서는 한복의 의미 나누기, 복주머니 만들기, 민속놀이 체험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우리나라 명절과 전통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설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유석쟁 재단 전무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생명숲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이번 경로당 방문은 어르신 공경의 예절을 직접 현장에서 느끼고 배우는 동시에 어르신들도 어린이들을 보며 기쁨을 느끼는 값진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생명숲어린이집은 공익법인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설립해 운영하는 만큼 생명숲어린이집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생명보험재단, 인천연수에 생명숲어린이집 개원

2014.03.04. 국민일보 외 23건 보도



[쿠키 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4일 이시형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고남석 연수구청장, 박기주 구의회 의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졌다.

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은 생명보험재단에서 5번째로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며, 지상3층 규모로 14명의 교직원과 119명의 어린이들을 보육하게 된다.

그동안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서울 구로구, 경기 오산 등에 총 4개 어린이집을 개원했고, 올해에 인천 연수구, 서울 종로구, 경기 성남시 등에 총 3개 어린이집을 추가 개원한다.

생명보험재단이 2013년도까지 건립하여 기부한 생명숲어린이집은 2013년도까지 78억원이며, 올해 개원하

는 3개 어린이집까지 포함한 기부액은 151억원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및 운영 사업은 저출산 문제 해소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30개의 어린이집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모든 재원은 18개 생명보험사들의 사회공헌 기금으로 이루어진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시형 이사장은 "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을 통해 생명보험이 지향하는 '생애보장' 정신과 저출산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이 발전되고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생명보험재단이 추구하는 세로토닌 키즈 프로그램으로 자연체험 활동을 통해 전국 최고의 친환경적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생보재단, 생명숲어린이집 교사 대상 리더십 교육 진행

2014.03.17. 아주경제 외 12건 보도



▲ EBS 당동맹유치원의 똑딱이아빠 김종석 교수가 생명숲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생보재단사회공헌재단은 지난 15일과 오는 22일 양일에 걸쳐 서울대학교 글로벌교육센터에서 전국 5개 생명숲어린이집과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생명숲어린이집 교사교육은 이소희 숙명대 교수, EBS 당동맹유치원 똑딱이아빠 김종석 서정대학 교수, 강경자 한국영리더십센터 대표 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창의·인성 리더십 교육, 윤리강령 교육, 긍정 이미지 트레이닝, 행복한 교사의 행복한 교실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유석재 생보재단사회공헌재단 전무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시설뿐만 아니라 보육 현장에 계시는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역량과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며 "재단은 어린이집 건립사업과 함께 교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아이들 보육 환경 뿐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그림을 통해 아이의 마음 이해해요

2014.06.23.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 서울 종로구 평창동 종로생명숲어린이집 만 5세반 아이들이 세로토닌 키즈 프로그램에 참여해 나무 그늘에서 명상을 하고 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습관을 배워요"

‘세로토닌 키즈 프로그램’ 운영하는 종로생명숲어린이집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어릴 때부터 올바른 생활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을 일찍이 인지한(재)생보재단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은 18개 생보보험사로부터 사회공헌 기금을 조성해 구립 생명숲어린이집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베이비뉴스는 생명숲어린이집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차례로 연재한다. 그 첫 번째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과 감수성을 키워주는 ‘세로토닌 키즈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버섯이 이거 주었어요.”
“저는 낙엽 주었어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창동 화정박물관 앞 공

원으로 나온 종로생명숲어린이집(원장 이선우) 아름나 무반(만 5세) 아이들이 동그랗게 모여앉아 익숙한 듯 땅을 만져보고 있다.

(중략)



이곳에서 교사는 아이를 통제하기보다는 자연을 활용한 놀이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풀이 높거나 나무턱이 있는 곳만 미리 알려주고 나머지는 아이들의 재량권에 맡기는 것이다.

김정은 담임교사는 “아이들은 일일이 알려주거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놀잇감을 찾고 관찰한다”며 “아이들끼리 규칙을 정해 노는 모습을 보면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실컷 뛰어는 다음에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명상에 들어간다. 바닥에 매트 깔고 앉은 아이들은 저마다 아빠 다리를 하고선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친구와 더 놀고 싶은 마음을 뒤로 한 채 조용히 명상에 들어간 아이들의 몸에서는 싱그러움 풀내음이 풍겼다.

이날 아이들을 푹 빠지게 한 야외활동 수업은 생명숲어린이집의 특화 프로그램인 ‘세로토닌 키즈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의 올바른 습관을 형성시켜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 특별히 개발됐다.

세로토닌이란 뇌 속의 신경전달물질로 폭력, 파괴, 중독을 일으키는 놀-아드레날린, 엔도르핀의 활동을 조절하는 물질이다. 또한 아이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생기와 의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만약 아이에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밥을 잘 먹지 않거나, 자신감이 부족하고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매번 피곤한 모습 등을 보이게 된다.

이처럼 세로토닌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어린 시절에 올바른 식습관, 몸습관, 마음습관을 익히고 실천하면 그 효과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이선우 원장은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평소 생활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일과 속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레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다”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 좋은 인성을 갖춘 건강한 인재로 자라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책하고 비눗방울 놀이하며 몸도 마음도 튼튼

2014.06.24.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최태욱 기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개망초다, 개망초!"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오산의 '여계산(如鷄山)' 소로를 오르던 아이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일본이 쳐들어와서 심은 꽃!"이라는 게 아이들의 설명. "여기 버섯은 다 죽었네." "맛난 썩떡을 만드는 썩." "앗, 대왕나비!" 그냥 걷기도 힘든 산비탈이지만, 오가며 만나는 식물과 곤충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숲을 놀이터 삼고, 자연을 친구 삼는 이들은 오산 생명숲어린이집 아름나무반(만 5세). '세르토닌 키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숲길 체험 활동을 진행 중이었다.



▲ 생명숲어린이 세르토닌 자연 활동 체험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한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육사업'에 '세르토닌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이들의 명상과 체조, 체험 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매일 한 시간씩 진행한다. 송정 오산 생명숲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서 한 시간 동안 실외 놀이를 시키는 건 복지부의 권장 사항이기도 하지만, 안전 문제 등으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고 했다.

산행이 아직 이른 동생들은 인근 '고인돌공원'에서 활개를 친다. '비눗방울 놀이'를 하며 뛰기도 하고, 자연보호 띠를 두르고 주변 쓰레기를 줍기도 한다. 휴장난을 하거나 소꿉놀이를 하는 아이들도 있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라 밖에 나간다고 하면 유독 말을 잘 듣는다"며 웃었다. 송정 원장은 "정형화된 일상



을 벗어나 변화무쌍한 자연을 접하다 보니 창의력도 쑥쑥 커진다"고 했다.

영·유아들에게 신체 활동은 모든 발달의 시작이다. 강경자 한국영리더십센터 대표는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노는 것은 정서·인지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하지만 아파트 중심의 주거나 핵가족 제도, 교육 환경의 변화는 아이들의 활동을 제한한다. 강 대표는 "아이들에겐 움직임 자체가 놀이인데,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스트레스, 과잉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올 초 복지부가 영유아 정신 건강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3~4명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아이와 산책하는데, 갑자기 '방아깨비'를 봤다며, 잡겠다고 뛰더라고요. 선생님한테 배웠대요. 신기하고 기특했죠." 김광현(43)씨는 아들 승기(4)군을 통해 '신체 활동'의 효과를 절감했다. 승기군은 7개월 만에 태어난 '미숙아'로, 출생 시 체중이 고작 1.2kg(신생아 평균 3.4kg)에 불과했다. 김씨는 "뒹든 조금씩 늦어 걱정이 컸다"며 "어린이집도 잘 안 가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했다"고 했다.

여섯 살이 된 김군은 이제 그 누구보다 건강하다. 2년 전 '오산 생명숲어린이집'을 다니면서부터 생김 변화다. "다녀와선 매일 야외 체험 활동 얘기를 해줘요. 부부가 맞벌이라 애 데리고 나갈 시간이 없는데, 대신 해주니 감사하죠."

유석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는 "사람의 기본 틀은 생후 3년 무렵 완성된다고 한다"며 "앞으로도 생명숲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올바른 영유아기 습관교육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남 여수에 10호점 '생명보험어린이집' 착공

2014.08.01. 매일경제 매경닷컴 전종현 기자



(왼쪽에서 세 번째 초록색 자켓부터) 최도자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김순빈 여수시 부의장, 유석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 주철현 여수시장, 최대식 전라남도 도의원 등이 여수생명보험어린이집(가칭) 건립을 위한 착공식에 참여, 첫 삽을 뜨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1일 여수시 주철현 시장, 김성곤 국회의원 및 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여수시 웅천동에 시립 여수생명보험어린이집(가칭)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가졌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18개 생명보험사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곳이다.

재단이 건립하는 열 번째 국공립어린이집인 여수생명보험어린이집은 지상 3층 규모(703.04㎡)로 내년 초 개원을 목표로 만들어진다.

웅천동지역은 택지개발이 활발히 추진된 지역으로 인근에 임대아파트 4개 단지(2300세대)도 건립예정인 것으로 보육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는 작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실시한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건립사업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됐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12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제공한 토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다시 위탁운영을 맡는 '민·관 협력의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30개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생명숲어린이집 덕분에 아이 맡길 걱정 덜었어요

2014.09.01. 서울경제 임지훈 기자



▲ 종로생명숲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인근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뛰놀고 있다. /사진제공=종로생명숲어린이집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저소득층 지역 골라 7곳 설치 2021년까지 30곳으로 확대

세로토닌 활동 · 자연체험 등 학부모 · 아이 반응 좋아 입소문

세살과 다섯살 자녀를 둔 김영미(가명·33)씨는 지난 3월까지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일을 하려면 아이들을 누군가에게 맡겨야만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김씨가 살고 있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단 한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꽤 먼 거리에 있는 이웃 동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고도 해봤지만 김씨가 부여 받은 대기순번은 첫째가 일곱살이 돼도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한 대기순번이었다.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던 그는 4월 평창동 최초의 국공립 어린이집인 종로생명숲 어린이집이 개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홈페이지 접속 시작 시간에 맞춰 부리나케 신청한 김씨는 첫째와 둘째 모두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됐다. 둘째의 경우 원래 순번대로라면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원을 5명 늘려줘서 입소가 가능했다.

시골도 지방도 아닌 서울 한복판에서도 이 같은 사례를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동네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더라도 그곳에 들어가는 하늘의 별따기다. 대기순번을 받아 아이를 보내자면 2~3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주변에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단지 등이 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지자체들은 저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 등에 발목이 잡혀 있는 모습이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8개 생명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출연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지난 2012년부터 전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현실 인식에서다. 재단은 2012년 9월 서울 구로를 시작으로 오산, 광주 남구, 이천, 인천 연수, 서울 종로, 성남 등에 총 7곳에 생명숲어린이집을 건립했다.

재단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해당 지역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주변에 공원이나 숲이 있는지 등을 감안해 어린이집 건립지를 선정하고 있다"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모두 30개의 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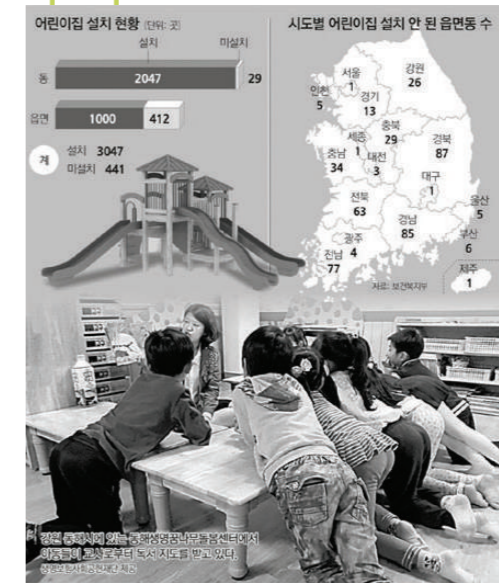
재단이 세운 생명숲어린이집에는 이시형 재단 이사장의 보육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세로토닌 키즈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올바른 생활습관을 익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테면 올바른 식사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30분짜리 모래시계 등을 활용해 아이들이 음식물을 꼭꼭 씹어먹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예다.

하루 일과는 주변 길기로 시작하고 자연체험활동도 강조된다. 아이들에게 영어나 한글 등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아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갖고 배움을 터득하도록 돕는 것도 생명숲어린이집의 특징이다. 서지후·지석군의 어머니 고유정씨는 "아이가 종로생명숲어린이집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는 어린이집이 즐거운 곳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며 "아이로부터 '엄마보다 선생님이 더 좋아'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고 밝혔다.

이선우 종로생명숲어린이집 원장은 "잘 노는 아이가 주도적으로 삶을 개척해나갈 수 있다"며 "이 시기만큼은 맘껏 뛰어 놀고 어떻게 놀면 좋을지 또래들과 의논하고 주도성을 길러 그것이 아이의 삶의 힘이 되도록 돕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변분들이 평창동은 노령인구가 많은데 어린이집이 생긴 뒤 동네가 활기차졌다고 한다"며 "요즘은 소문을 듣고 젊은이들도 이곳으로 이사를 많이 온다"며 웃음을 지었다.

0~4세 3만명, 부모가 집 비우면 돌볼 곳 없어

2014.04.15. 동아일보 이샘물 기자



어린이집 없는 읍면동 전국 441곳

《전국 3488곳의 읍면동 가운데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은 441곳(12.6%)이다. 주로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이다. 이곳의 아이들이 인근 읍면동의 어린이집에 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집에서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 일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을 짓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치 않다.》
 전국 읍면동 중 12.6%는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보육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읍면동 3488곳 가운데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은 441곳.

주로 농어촌이 사각지대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은 대부분 시골 지역이었다. 서울과 광역시, 세종시의 읍면동은 26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도 단위 지역에서는 415곳 중 401곳(96.6%)이 읍면 단위였다. 교통이 편리하고 행정기관이 밀집한 대도시에서는 인근 지역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된다. 반면 시골에서는 교통도 불편하고 관련 기관도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 다른

지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어린이집 대신 별도의 민간시설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부모가 농사일이나 출근으로 집을 비우면 방치될 수밖에 없다. 영유아들이 어린이집 같은 '시설 보육'에서 배제될 경우 설령 아동학대를 당하더라도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도 낮아진다.

어린이집 없이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의 수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다만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2012년 기준) 자료를 통해 보면,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 중 서울과 광역시의 읍면동 25곳을 제외한 지역에 사는 0~4세 영유아 수는 최소 40명에서 최대 110명이다. 평균 75명으로 계산하면 약 3만3075명으로 추산된다.

시골 지역에 어린이집이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수가 워낙 적기 때문. 어린이집을 만들어도 인원을 채우지 못하니 정부와 민간이 어린이집을 짓지 않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에 3~20명 규모의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을 때 시설비의 70%와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일부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이 어렵거나 보육의 지가 적으면 짓기가 어렵다.

국공립 신속 의욕 꺾는 보육지침

농어촌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보육현장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해 애를 먹는다. 지자체나 민간(지자체에 기부)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더라도 인센티브는 커녕 자체 예산 부담만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원장 인건비의 80%와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한다. 민간어린이집은 별도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현재 정부의 보육지침에서는 국고로 신속한 어린이집만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자체나 민간이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은 별도로 정부에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승인을 못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18개 생명보험회사가 만든 공익재단)이 이어 경기도에 기부한 A 국공립어린이집도 국고로 지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인건비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A 어린이집 원장은 "국고로 신속한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어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국공립 시설을 짓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와의 협의나 검증 없이 지자체나 민간에서 지은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긴 어렵다"며 "국고로 신속하지 않은 어린이집의 인건비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신속 추체가 중앙이든 지방이든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었다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원도 없던 산골에 무료로 아이 돌봐주는 곳 생겼어요”... 보육 사각지대에 내린 단비

2014.07.22.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최태욱 기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꿈나무돌봄센터

"가방 빨리 서랍에 정리하고 와. 블록 쌓기 놀이 해야지!"

지난 14일 오후 3시 월악산이 둘러싼 충북 제천 덕산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삼삼오오 손을 잡고 '생명꿈나무돌봄센터'의 문을 연다. 적막하던 센터는 순식간에 25명의 아이가 뛰노는 소리로 시끌시끌해진다.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의사 선생님이 사용하는 청진기를 만들려고 해요. 노끈 2개가 있죠? 이 노끈들을 플라스틱 컵 구멍에 넣고 안에서 짝 묶으면 예쁜 청진기가 된답니다."



▲ 생명꿈나무돌봄센터는 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 주말, 공휴일 보육 서비스를 편성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윤희 덕산생명꿈나무돌봄센터장이 나긋한 목소리로 만들기 수업을 시작하자, 50개의 톨망톨망한 눈이 일제히 선생님을 향한다. 아이들은 책상 앞에 나란히 앉은 뒤 조그만 손을 움직여 청진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소리가 잘 들려?" "오, 나는 심장 소리 들리는 것 같아." 몇몇 친구는 청진기를 서로의 가슴에 대고 소리를 듣는 데 열중한다. 인철(5)군은 청진기를 머리에 걸고 "꼬꼬덕 꼬꼬" 닭 흉내를 내며 주변의 웃음을 자아냈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한 해 2조7360억원의 영·유아 보육료를 집행하는 등 보육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하지만 '무상 보육' 초등학교 무상 돌봄교실 확대 등의 노력에도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보육 환경이 턱없이 열악해 보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농림수산식품 부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읍·면

1429곳 중 어린이집이 아예 없는 읍·면은 440곳에 달한다(2012년). 10개 읍·면 중 3곳은 보육 시설이 없는 셈이다. 돌봄 서비스의 질도 불안정하다. 지난 14일 경기도 시흥 시립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3세 여아의 귀를 잡아당긴 사실이 적발되는 등 보육 교사들의 자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류인숙 제천YWCA 사무총장은 "지방의 경우 저소득, 다문화 가정의 보육 수요가 많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로 인해 아동들은 안전사고나 최악의 경우 성폭행, 살인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10년 4월부터 충북 제천 덕산면과 화산면, 경기 파주와 하남, 강원 동해 등 전국 5개 농·산·어촌 지역에 생명꿈나무돌봄센터를 설립·운영해왔다.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등 18개 생명보험사가 공동으로 출연한 기금을 활용해 교재 및 교구 구입과 전담 보육사 고용비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0원'이다. 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 주말, 공휴일 보육 서비스를 편성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지난 4년간 생명꿈나무돌봄센터에서 돌봄을 받은 아이들의 수는 어느덧 9026명이 나 된다.

"얼마 전 돌봄센터에서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댄스 교실을 열었어요. 근데 첫째 아이가 그날 입을 의상이 마음에 든다고 집에 옷을 들고 와서 우리 앞에서 홀라춤을 추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두 아들 지호(7)·중호(6)군을 돌봄센터에 보내고 있는 임종섭(41)씨의 말이다. 농사일에 매달리느라 양육에 신경 쓰기 힘들었고, 주변에 학원도 없어 아이를 정기적으로 맡길 공간을 찾아 차로 20여분 떨어진 인근 마을의 작은 육아 공동체나 학원,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했던 임씨 부부. 이들에게 돌봄센터는 '지역에 찾아온 커다란 선물'이었다. 지호군은 얼마 전부터는 국어 학습지를 돌봄센터에 가져가 보육사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도 갖고 있다. "이 동네는 워낙 산골이라 학습지만 배달되고 선생님은 오지 못해요. 궁금한 내용이 있어도 아내나 제가 답해줄 수 없었는데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든든하지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보육사들이 만1세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다양한 연령의 어린이들을 바르게 돌볼 수 있도록 연 4~5회 주기적으로 보육사 교육 및 역량 강화 워크숍도 개최하고 있다. 이윤희 센터장은 "이번 달 초에는 서울로 가서 아이들과 올바르게 상호 작용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시설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경을 써주는 점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유석생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는 "아동들이 소득 수준, 지역에 상관없이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사회의 관심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면서 "재단은 앞으로도 생명보험회사들을 대신해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밭일 나간 엄마 대신 아이 봐드립니다

2014.09.02. 서울경제 임지훈 기자

생보사회공헌재단, 농촌 5곳서 꿈나무돌봄센터 운영해 호응 보육공간·교사 인건비까지 지원...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 다문화가정 갈등 해결 도움도

지난달 11일 충청북도 제천 시내에서 차를 타고 구불구불한 길을 50여분 달리자 행정구역상 '덕산면 도전리'라는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여느 시골처럼 길에서 아이들의 모습은 쉽사리 찾아볼 수 없었고 이따금 느린 경운기가 앞길을 막아 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형적인 농촌이었다. 마을에 들어서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합쳐진 초중학교가 보였고 그 바로 옆에 덕산생명꿈나무돌봄센터가 자리하고 있었다.

20평대 가정집을 임대해 세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약 30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이 센터는 어린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었다. 이윤희 센터장과 2명의 교사들은 교육 프로그램과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하느라 바빴고 방학을 맞아 자원봉사에 나선 중학생들도 교육교재 등을 살펴보고 있었다. 잠시 짬을 내 센터장과 함께 이곳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사과나무밭 인근에서 만난 김형수(67) 할아버지와 이영재(60) 할머니는 "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농사일을 하면서 은비와 수하(손녀들)를 돌보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며 "이 지역 특성상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할

▶ 충북 제천 덕산면 월악산 자락에 있는 덕산생명꿈나무돌봄센터에서 어린이들이 이윤희 센터장과 함께 교구놀이를 하고 있다.



경우가 많은데 센터가 오후8~9시까지 아이를 돌봐줘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돈을 주고라도 아이들을 맡길 곳이 꼭 필요했는데 센터에서 이렇게 무료로 아이들을 돌봐주니 정말 고맙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월악산 자락에 있는 덕산면은 이 무렵 브로콜리 재배로 실 틈 없이 바쁘다.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야간작업을 하기도 일쑤다. 지난 2010년 덕산생명꿈나무돌봄센터가 들어서기 전에는 부모가 밭일을 나가면 아이는 혼자 집에 있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집에서 아이를 챙겨야만 했다. 인적이 드문 시골에 아이가 혼자 있게 되면 안전사고, 심지어 성폭력 위협에도 노출된다는 게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한화생명 등 18개 생명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출연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대도시 중심의 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산어촌·중소도시 등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제천 화산·덕산, 경기 파주, 강원 동해, 경기 하남 등 전국 5곳에 생명꿈나무돌봄센터를 설립했다. 보육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은 물론 전담 보육사의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 교재교구 등도 지원하고 있다.

오후3시를 넘어서자 아이들이 삼삼오오 센터로 몰려들었다. 한쪽에서는 초등학교생들이 외로운 구구단을 선생님에게 검사 받았고 다른 방에서는 그보다 어린아이들이 교구놀이를 하기도 했다. 신윤철(9)군은 "집에서는 TV만 봤었는데 센터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어 재미있다"며 활짝 웃었다.

이 마을에서 센터의 역할은 아이들을 돌보는 데 그치지 않았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 센터장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언어소통, 문화적 차이 문제 등으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며 "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이들을 대신해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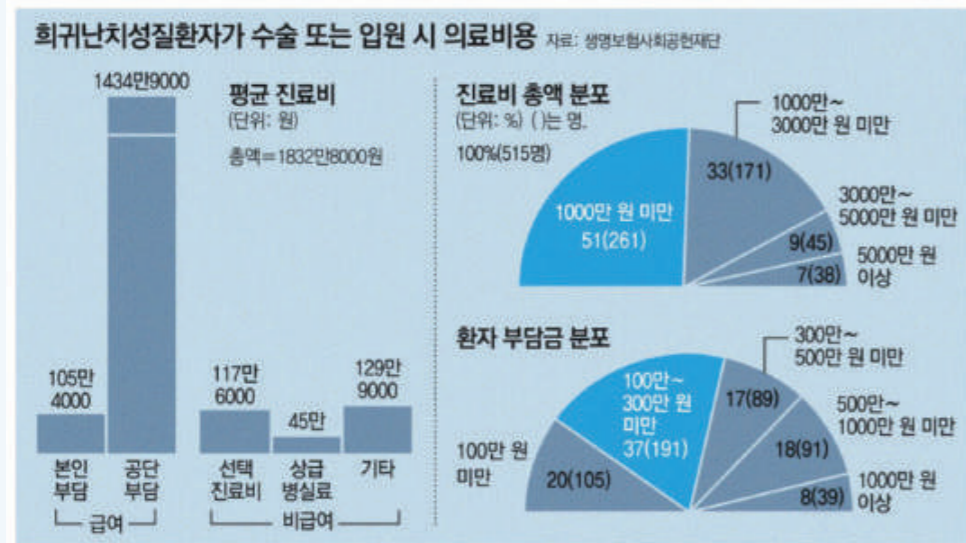
그에게 센터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이 센터장은 "교사들이 자신들의 차량으로 아이들을 데리러 가고 또 데리러 주고 있다"며 "보다 많은 아이들을 태울 수 있는 차량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프리미엄 리포트

한번 치료에 292만원... 두번 우는 난치환자

2014.02.10. 동아일보 이샘물, 유근형 기자



희귀난치질환 515명 진료비 분석... 93%가 비싼 비급여 선택진료 받아 정부, 11일 비급여 개선방안 발표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수술이나 입원 치료를 한 번 받을 때 비급여 진료비(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검사비 등)를 292만5000원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본보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희귀난치성질환자 515명의 진료비 명세서를 분석한 결과다.

재단에서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50%(4인 가족 기준 386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연간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분석은 지난해 재단의 지원을 받은 660명의 환자 중 수술이나 입원비를 지원받은 환자 515명을 추려 실시했다. 희귀난치성질환은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중에서도 특히 비급여 진료비가 많이 든다. 상당수가 선택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석정 생명보험재단 전무는 “희귀난치성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진료 경험이 많은 대학병원 조교수급 이상에게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대학병원은 다인실이 부족해 입원 초기에는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급병실료도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분석 결과 환자 515명 중 선택진료비가 발생한 환자는 482명으로 93%를 차지했다. 상급병실료를 낸 환자도 249명(48%)으로 거의 절반에 이르렀다. 환자들이 1회 수술이나 입원 치료를 받을 때 내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각각 117만6000원, 45만 원이었다.

비급여 진료비 중에서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환자의 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로 불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건강보험에 끌어들이려 급여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 최종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연두 업무보고 때 3대 비급여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20~30%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기준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후~”

이산화탄소-기침 체크... 인공호흡기 쓰자 답답

2014.05.19. 동아일보 이샘물 기자

[기자 체험 클리닉] (6) 난치성 환자 대상 호흡검진

근육병, 루게릭병 등은 근육이 서서히 마비돼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희귀난치성 신경근육계질환이다. 이 환자들은 타인에게 의지해 생활해야 하고, 호흡근육까지 마비되면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에는 이러한 환자를 관리해주는 호흡재활센터가 있다. 병원에 오기 어려운 환자엔 방문 간호사를 파견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의료비 지원 기관과 연계해주시기도 한다. 센터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후원으로 2008년 설립됐다. 기저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날’(22일)을 앞둔 12일, 이 센터를 찾았다.



호흡기능 조기 검진이 중요

신경근육계질환 환자는 팔다리 근육이 먼저 약해지고, 그 다음에 호흡근육이 약해진다. 보통 사람은 걸을 때 숨이 차면 호흡이 약해졌다는 걸 느끼지만, 이들은 일단 팔다리부터 약해져서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호흡이 나빠진 걸 호흡 마비 직전해야 아는 경우가 많다.

강성웅 호흡재활센터 소장은 “정기검진으로 암을 일찍 발견하면 치료가 되는데 통증으로 인해 병원에 오면 늦는 것처럼 호흡도 마찬가지다”라며 “숨이 차서 잠을 못 잘 지경이 되어서야 치료를 시작하면 늦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아 조기에 발견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일반인이 호흡기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 아

니다. 손발이 마비되는 걸 느끼는 사람이 검진 대상이다. 신경근육계질환 환자들은 보통 1년에 한 번꼴로 센터에서 호흡기능을 체크한다. 호흡 검진은 어떻게 받을까. 기저가 직접 호흡기능 검진을 해봤다.

우선 ‘이산화탄소 모니터링’을 받았다. 몸에서 이산화탄소를 제대로 뱉어내는 지 체크하는 것으로, 근육이 약해지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못해 수치가 높아진다. 기계를 입에 대고 “후” 하고 불었더니 38이라는 수치가 나왔다. 이산화탄소 수치가 30~40으로 나오면 정상이라고 했다. 환자는 대개 40이 넘고, 심할 경우 50~60까지 나오기도 한다.

(중략)

인공호흡기는 휠체어 같은 보조기기

호흡이 약화된 걸 미리 발견해 관리 받으면 인공호흡기를 쓰면서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보통 인공호흡기라고 하면 죽음을 앞둔 환자를 떠올리지만 그렇지 않다. 강 소장은 “인공호흡기는 보조도구”라고 설명했다. 몸의 근육이 약해지면 지팡이, 목발, 휠체어를 사용하듯이, 인공호흡기도 마찬가지다. 인공호흡기를 하루에 4~5시간만 쓰는 환자도 있고, 잠을 잘 때만 사용하는 환자도 있다.

인공호흡기를 쓰면 어떤 느낌일까. 센터에서 인공호흡기를 착용해 봤다. 가정용 인공호흡기에 부착된 마스크를 얼굴에 밀착시키고 입을 다물자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기계를 작동시키자 호스를 통해 공기가 코로 들어가고 나왔다. 여전히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중략)

희귀난치성질환자 위한 다각적 지원

환자들은 몸뿐 아니라 마음의 치료도 필요로 하고 있다. 호흡재활센터의 최원아 교수(재활의학과)는 “환자도 힘들지만, 보호자도 아이에게 병이 생긴 게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마음의 병을 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에서는 생보재단의 후원으로 환자와 가족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인문학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생보재단에서는 신경근육계질환 환자뿐 아니라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을 위해 비급여 의료비와 특수식이(로렌조 오일, 유동식 등), 피부재생용품, 주사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환자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안구마우스, 페이지터너, 리프트체어 등 학습용 보조기기도 지원한다.

희귀난치성질환은 치료는 물론이고 진단 자체가 어렵고 전문 의료진도 크게 부족하다. 재단에서는 2008~2013년에 약 96억 원을 들여 총 1만605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을 지원했다. 강 소장은 “정부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개개인에 맞는 지원은 힘든 상황”이라며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난 환자를 위해 민간 지원이 필수였는데, 재단의 지원은 정부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민관 협력체계의 좋은 모델”이라고 말했다.

생보재단,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위한 마음학교 수료식

2014.08.28. 머니투데이 외 26건 보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8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유석쟁 전무,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 강성웅 소장, 환우 및 보호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귀난치성질환 환우를 위한 '행복한 마음학교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은 최근 아이스버킷 챌린지 캠페인의 주인공인 ALS(루게릭병,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환자들을 포함해 근골격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투병중인 환우와 부모님을 대상으로 8주간 진행된 인문학 교실 '행복한 마음학교'의 이수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07년 삼성, 교보, 한화 등 18개 생명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된 공익 재단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학습용 보조기기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인문학수업은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희귀난치성질환 환우 및 가족 총 237명이 참여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나눔대축제

2014.10.12. 서울경제 외 18건 보도

유석쟁(왼쪽)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가 11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행사에 참석해 정용권(오른쪽 두번째부터) 국무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단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11일부터 이틀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에 참여해 희귀난치성질환 알리기에 동참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나눔대축제는 보건복지부와 나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행사로 국내 사회복지 단체와 주요 기업의 사회공헌팀 등 총 61개 기관이 참여했다. 재단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3년 연속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사용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정보관과 머린LCD, 인테그라마우스 등 학습용 보조기기 체험관 등을 통해 재단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을 홍보했다. 또 일반시민들이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캐리커처 그리기, 플라로이드 사진 촬영, 음료제공 등 체험 프로그램도 열렸다.

유석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는 "이번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개최가 일반인들에게 희귀난치성질환을 널리 알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따뜻한 관심이 더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재단, 희귀난치성질환자에 의료보조용품 지원

2014.11.18. 매일경제 외 22건 보도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유석쟁 전무(왼쪽)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신현민 회장에게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료보조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18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료보조용품 지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유석쟁 전무,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신현민 회장, 담도폐쇄증, 척수수막류 환우 등이 참석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총 193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보조용품을 지원했다. 올해에도 45명에게 5000만원 상당의 의료보조용품을 전달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07년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18개 생명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된 공익재단이다.

평생 치료 고통보다 무관심이 더 아프다는 걸 아시나요

2014.11.25.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최태욱 기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난치병 환자 지원 2011년부터 치료제·배변 보조용품 등 4년간 314명에게 5억원 상당 지원해 정부지원 134종 한정... 예산 점점 줄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연희동에 위치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서 만난 생후 4개월의 문정빈(가명)군. 문군은 분유통이 두 개다. 일반 분유와 소화를 돕는 '중쇄지방(MCT)' 분유를 함께 먹는다. "태어나면서 '담도폐쇄증' 진단을 받았어요. 소화를 못 시키는 병이죠." 어머니 강민지(30)씨의 설명이다. 강씨는 "특수 분유를 끊으면 아이 변 색깔이 바로 흰색으로 바뀔 정도로 티가 난다"라고 했다. 아이에겐 필수적인 식량이기 때문에, 보호자는 필사적으로 분유를 마련해야 한다. 담도폐쇄증 환우회를 이끌고 있는 방현진(41) 회장은 "특수 분유 한 통(400g)에 1만원이 넘는데, 일주일도 안 간다"며 "고가의 의료비·검사비·입원비 등에 더해 부담이 쌓여가는 것"이라고 했다. 10년 넘게 '척수수막류' 증상을 앓는 아들을 돌보고 있는 진청희(34)씨도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척수 쪽의 신경이 손상돼 대·소변 장애가 있어요. 기저귀나 관장용·카테터(자력으로 배변 활동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보조기구)를 집에 꼭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월평균 50만원이 들죠. 우리한테 한 달 생활비예요."

담도폐쇄증이나 척수수막류처럼 발병 원인이나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는 병을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한다. 국내에선 50만명의 환자가 2000여종의 질환을 앓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증상이 평생 따라다니기 때문에 치료비 부담이 매우 높고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사례도 많다. 이들을 더욱 고통받게 하는 건 세상의 무관심

▶ 지난 18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서 진행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의료 보조용품 지원식 현장.



이다. 강민정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국장은 "환자가 워낙 소수다 보니 관련 연구자나 의료진의 관심이 적은 게 사실이며, 대중의 시선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했다. 정부에서 지난 2001년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대상 질환이 134종에 그치고, 급여비용에만 해당하는 등 포괄적인 복지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마저도 2009년 432억1600만원이던 정부 지원예산이 올해 280억4300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들어 꾸준히 줄고 있는 추세다(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센터, 2014). 특히 치료법이 없는 만큼, 평생 보조용품과 특수 식이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제품들이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환자 부담을 크게 가중시킨다.

'부신백질이영양증' 치료제로 알려진 '로렌조오일'이 대표적이다. "한평생 이 병과 싸웠다"는 배순태(62) 부신백질이영양증 환우회 회장은 두 아들과 함께 이 질환을 앓았는데, 첫째는 이미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의학적으로 대안이 없어요. 유일하게 의지하는 건 로렌조오일 뿐이죠. 한 병에 20만원 남짓 하는데, 한 달에 5병 정도 들어요." 로렌조오일은 공공기관에서도 사실상 약효를 인정한 제품이다. 지난 1999년 9월 설립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구현민 수석부장은 "로렌조오일은 환자들의 증상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지만, 국내에선 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아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의 참여와 지원이 중요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기업이나 민간 재단의 후원을 받아 환자들에게 보조 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의료보조용품 지원 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활동. 이 재단은 2011년부터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도와 생활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특수 식이 및 의료보조용품을 지원해왔다. 올해에만 20명에게 배뇨·배변 보조용품(기저귀)을, 10명에게 관장용 카테터를, 15명에게는 4개월(16병)분의 로렌조오일을 지원하는 등 4년간 총 314명에게 5억1000만원 상당 보조용품을 전했다. 유석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는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했다. 강민정 국장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근간이 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진 뜻 있는 민간 기업의 지속적인 참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환자들은 재단의 이 같은 활동이 세상의 관심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국내에 '아이스버킷 챌린지' 붐이 일었을 때 사실 기대를 조금 했어요. 루게릭병에만 집중돼 있던 관심이 더 많은 희귀질환으로 확산되길 바랐던 거죠. 아쉽게도 그렇게 되진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필요한 법도 더 빨리 만들어지지 않을까요."(방현진 담도폐쇄증환우 회장)

학습 보조기로 공부할 생각 설레요

2014.12.12. 서울경제 임지훈 기자

"앞으로 사이버대학에 진학해 열심히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개발해 작으나마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11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가진 '희귀난치성질환 학생들을 위한 학습용 보조기기 지원식'에 참석한 장민기(18)군은 "근이영양증이라는 질환으로 몸의 모든 부위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 혼자서 책을 펴고 공부를 하거나 필기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 데스크톱 PC를 활용해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공부를 맘껏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니 무척 설렌다"고 소감을 밝혔다. 휠체어 생활을 하며 주로 인터넷 강의를 통해 학습하고 있는 그는 "사이버대학에 입학해 제과하고 싶었던 프로그래밍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근육이 퇴화돼 오른손으로 마우스 클릭 정도만 가능하고 호흡근도 약해져 밤마다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임보균(25)군은 "아무래도 모니터와 같은 학습용 보조기기 없이 공부할 때는 모르는 내용이나 단어를 검색하고 컴퓨터에 메모하려면 창을 열고닫는 데 2~3시간이 걸리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확장된 화면의 노트북으로 관심 분야인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에 대한 책을 읽고 에버노트나 구글닥을 활용해 메모하면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책장을 넘기기 힘들어 모든 내용을 혼자 힘으로 디지털화해 읽고 있는 그는 "빅데이터 전문

가가 돼 힘든 상황에서 공부하고 있는 장애인 친구들을 돕고 싶다"며 미소 지었다.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등 18개 생명보험회사가 지난 2007년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인 생보재단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총 293명의 희귀난치성질환 학생들에게 모두 8억원 규모의 안구마우스와 페이지터너(자동책장넘기기), 노트북, 틸트수동휠체어 등 학습용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안구마우스는 컴퓨터 입력장치의 사용이 불가능한 중증환자들이 눈동자의 움직임에 따라 마우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이다. 페이지터너를 활용하면 침대에 누운 자세에서도 리모컨으로 책장을 넘기는 것이 가능하다. 생보재단 관계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학습을 위해 보조기기가 필요하지만 어떤 보조기구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다 대부분의 보조기구가 고가의 제품이라 경제적 부담으로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원사업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유석쟁 생보재단 전무와 박춘선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열린 지원식에서는 모두 1억원의 보조기구가 38명의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유 전무는 "희귀난치성질환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계속 학습용 보조기기를 지원해 학생들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유석쟁(오른쪽)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가 11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희귀난치성질환 학생에게 학습용 보조기기를 전달하고 있다.

생보재단 강원도,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사업 협약식

2014.03.10. 매일경제 외 10건 보도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7일 강원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강원도 및 한국자살예방협회와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유석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안용민 한국자살예방협회장이 협약식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7일 강원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강원도 및 한국자살예방협회와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단과 강원도는 작년 강원도 화천군의 5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하게 된다.

농약안전보관함은 농약을 정리·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사업은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실태 모니터링, 정신건강 증진서비스 등 강원도와 한국자살예방협회의 지속적인 관리도 이뤄진다.



농약안전보관함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강원도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관함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석쟁 생명보험재단 전무는 "재단이 전국의 농촌마을에 지원한 농약안전보관함이 올해로 2000개를 넘어서게 된다"며 "이미 농약안전보관함이 보급된 마을에는 아직까지 자살사고가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농가에서도 이 사업에 호응이 좋은 만큼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화 한 통으로 SOS하면.. 골든타임 지키려 출동합니다

2014.08.19.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최태욱 기자

자살 예방하는 'SOS생명의 전화'
2년 동안 비상전화·관제 시스템 갖춰 나가
상담 전화 7배 늘고, 생존율 75.8%나 돼
민관합동 예방 체계 역할 특출히 하고 있어
꾸준히 사업 추진해 소중한 생명 구할 것



"빠~ 원효대교 남단. 출동! 출동!"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 갑작스럽게 울린 사이렌 소리. 서강대교 부근 한강변에 위치한 '119여의도수난구조대'의 풍경이 일순간에 바뀌었다. "원효대교에서 자살 시도자가 있다는 신고예요." 서형근 지대장이 날랜 손으로 장비를 챙기며 말했다. 오렌지색 복장을 한 6명의 대원이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0여초. 홍성삼 서울소방재난본부 수난구조대장은 "수상에서의 '골든타임'(생사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초기시간)은 4분"이라며 "이를 넘기면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신고의 발원지는 원효대교가 아닌, 종로구 이화동의 '한국생명의전화'. 원효대교 남단에 설치된 'SOS생명의전화'로 상담을 하던 중 들어온 위급 신호다. "남성인데, '도박 빚 때문에 죽고 싶다'고 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고 상담 도중 전화마저 끊어버렸어요." 상담사의 전언(傳言)이다. 홍성삼 대장은 "그 신호에 수난구조대를 비롯해, 한강경찰대, 육상 구조대, 현장지휘대, 구급대, 경찰대 등 6개 조직이 동시에 출동한다"고 했다.

30분 정도가 지나자 구조대원들이 복귀했다. 서형근 지대장은 "불만을 호소하며 육상 구조대와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에 인계됐다"며 "우리가 물에서 대비해도 투신을 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정말 다행이다"라

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2011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한남대교에 처음 설치했던 'SOS생명의전화'는 지난 3년간 총 48대(총 12개 교량, 이 중 16대는 서울시가 설치)로 늘며 민관합동 자살예방 시스템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작년 한 해 동안 'SOS생명의전화'를 통해 걸려온 위기상담은 총 1164건(누적 2062건) 이는 2012년에 비해 7배나 증가한 수치다.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구조에 참여한 건수도 152회에 이르며, 구조자 생존율(75.8%)은 2012년에 비해 7% 증가했다.

(중략)

여의도 수난구조대에서 근무하다 육상 구조대로 옮겨 4년간 활동하고, 올해 4월 복귀한 오재봉 대원은 "비상전화와 관제시스템으로,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게 됐더라"며 "우리 보람은 오로지 구조에 성공했을 때 얻어지는 것인데 덕분에 일하는 보람이 크게 늘었다"고 했다. 홍성삼 대장은 "SOS생명의전화를 통해 목격자들이 위험 상황을 빠르게 신고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자살 징후가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면 우리 쪽에서 먼저 상담원을 부르기도 한다"며 "단순히 상담전화만이 아니라, 민관합동 예방 체계의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유석생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는 "SOS생명의전화를 통해 지금까지 2062명의 생명을 지켜냈다"며 "앞으로도 생명보험사들의 기본정신인 생애보장과 생명존중 정신에 입각한 예방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미처 구조되지 못하고 응급실로 이송되는 자살 시도자를 위해 작년부터 응급의료비 지원도 시작했다. 이 역시 민관협력 체계다. 이혜영 팀장은 "한 해 자살 시도 끝에 응급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연간 4만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이 중 8%만이 상담 및 정신 치료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재발의 위험도 크다"고 했다. 재단의 응급의료비를 지원하는 환자는 자동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정신보건사들에게 연계돼 8주간 모니터링과 정신과 치료 등을 받는다.



연극치료로 마음속 응어리 풀었어요

2014.08.24. 서울경제 임진혁 기자

**생명보험재단 지난 3년간 자살위험군
청소년 364명에 프로그램 제공...
충동조절 효과**

성주(가명·17)는 2년 전 부모님이 이혼한 뒤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 아버지의 폭력과 어머니의 무관심 속에 사춘기를 지낸 성주는 정서불안과 애정결핍 증상을 보여 지난해 교내 심리검사에서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 때문인지 남학생인데도 앞머리를 길게 기른 성주는 상대방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등 자신감 없는 행동을 자주 보인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성동구 소재 모 고등학교 교실에서는 성주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심리상담사와 함께 한창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몸짓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느라 바빴는데 두 팔을 활짝 펴고 팔꿈치 뛰는가 하면 심각한 표정으로 턱을 괴거나 한쪽 발로 뒤뚱거리며 섰다. 그 사이로 성주는 몸에 있는 모든 힘을 뺀 채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김지선 연극심리상담사는 "자신이 앞으로 바뀌고 싶은 모습을 표현하라고 주문했더니 긴장과 불안을 모두 없앤 몸짓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현재 모습을 표현하라는 과제에서 성주는 양 주먹을 꽉 쥐고 몸에 잔뜩 힘을 넣었다. 김 상담사는 "연극치료를 통해 성주가 마음속의 압박과 부담 같은 짐을 찾아 털어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뒤틀리게 고개를 들고 다른 사람과 눈을

지난 22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연극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심리상담사로부터 수업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잘 마주치는 성주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회사들이 기금을 내 설립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12년부터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이런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99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364명이 참여했다.

각 학교에서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25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연기도 직접 해보며 마음속 갈등을 풀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 동화 '미운 오리 새끼'를 연기한다면 처음에는 주변의 따돌림을 받는 주인공이 됐다가 거꾸로 친구를 괴롭히는 다른 오리역도 맡으며 각자의 상황에서 느끼는 여러 감정을 겪는 것이다. 김 상담사는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를 간접적으로 마주하면서 나와 상대를 다시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란 걸 깨달으며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며 "참여하는 학생끼리 서로 지지하고 공감하는 과정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0년 연속 자살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10대와 20대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는 자살이 차지하고 있다. 최인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청소년 자살 예방 사업방향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울감과 스트레스, 비합리적 신념 같은 개인의 심리적 문제와 가장 큰 자살의 원인으로 꼽혔다. 연극치료는 이런 청소년의 심리 문제에 초점을 맞춰 고안됐다. 연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억압받고 우울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풀고 충동을 조절하는 것이다. 생명존중의식을 높이는 교육이나 미술치료 등도 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해 활용되는 기법으로 꼽힌다.



농약안전보관함 '농촌 안전' 지키다

2014.08.25. 서울경제 임진혁 기자

생보재단 2010년부터 보급... 전국 1,500여가구에 설치 잠금장치 있는 함에 농약 보관... 노인 음독자살·오용 사고 예방 주기적 방문 외로움도 달래줘

"어르신 안에 계세요?
농약안전보관함 점검 나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지난 19일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 외판집. 지나다니는 사람도 물론 개나 고양이가 같은 동물도 눈에 띄지 않고 오로지 적막함만 가득한 이곳에 녹색 조끼를 입은 흥성군 보건소 직원들이 찾아왔다. 오랜만의 인기가치가 반가웠는지 이 집 안주인 전모(63)씨는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았다.

강원도 흥성군보건소 직원들이 지난 19일 오후 농약안전보관함이 설치된 강원도의 한 가정을 찾아가 올바른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전씨를 따라 마당 옆 창고로 들어가니 농기구와 비료 자루가 널려 있었고 한가운데 '농약안전보관함'이라고 적힌 큼직한 노란색 철제 수납장이 놓여 있었다. 다시 방으로 돌아가 열쇠를 가져온 전씨가 보관함의 문을 열자 층별로 가지런히 있는 제초제와 살충제 등을 볼 수 있었다. 신정인 보건소 주무관이 점검표를 펼치고 보관함이 제대로 활용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동안 전씨는 "정리하기 편하다" "농약이 함부로 나뒹굴지 않아 좋다"며 연신 만족감을 드러냈다.

10여분 남짓한 시간 전씨와 보건소 직원은 서울에 사는 손주 소식부터 마을 부녀회 돌아가는 얘기, 읍내에 새로 생긴 마트 위치까지 이야기보따리를 한 아름 풀어냈다. 다른 집도 방문해야 하는 신 주무관이 한 달 뒤에 또 오 겠다며 인사말을 건네자 전씨는 그냥 보내기가 못내 아쉬운 듯 대문 밖까지 나와 배웅했다.

201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61세 이상 노인의 자살기도 방법 중 농약음독은 39.6%에 달해 약물음독(43.8%)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농약음독 비율은 21.4%로 수도권(4.0%)의 다섯 배를 넘었다.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등 18개 생명보험사의 출연기금으로 운영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한국 자살예방협회와 함께 농촌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으로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강원도 화천과 속초, 경기도 화성과 이천, 충남 공주와 태안, 인천 강화군 등 33개 마을 1,545가구에 보관함이 설치됐고 올해는 강원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850가구에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보관함은 농약을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몰아둠으로써 충동적으로 농약을 먹으려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주고 농약을 피로회복제나 부침가루 등으로 잘못 알고 먹는 것을 막아준다. 또 주기적으로 지역 보건소 직원이 활용방법을 지도하고 마을 이장 등은 지킴이로 임명, 보관함 설치 가정을 둘러봄으로써 유대관계를 강화해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빨리 발견하는 기능도 있다. 한국자살예방협회장을 맡은 안용민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농약을 눈에 보이지 않는 데 두는 식으로 자살방법을 차단하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며 "관계자들이 집집마다 찾아가 얘기를 나누고 정신건강을 챙기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유석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는 "지금은 민간에서 보관함을 보급하고 있지만 1~2년 뒤 실제 성과가 입증되면 정부 정책에 반영해 전국에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화가 막힌 가정에서 자살은 시작된다

2014.09.19. 동아일보 최지연 기자



▲ 치료적 공연 '백색의 터널'은 연기하는 배우와 이를 지켜보는 관객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경험하게 해준다. 관객들이 새 아빠 역을 맡은 배우의 대사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연극치료협회 제공

자살예방 치료공연 '백색의 터널'

"상처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치료입니다."

16일 서울 대학로 극장 정미소에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연극치료협회가 주관하는 자살예방 연극치료 공연 '백색의 터널'이 열렸다. 12~21일 상연되는 이 공연은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자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치료적 공연. 백색 테러처럼 느닷없이 맞이한 불운의 터널을 함께 헤쳐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한 것이다.

공연은 파괴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큰딸 지영이, 친한 친구를 자살로 잃은 작은딸 지혜, 왕따로 괴로워하는 아들 찬형, 매일 술만 마시는 새 아빠와 그를 구박하는 엄마. 가족들은 서로의 상처를 알지 못한 채 또다시 서로에게 상처를 안겨준다. 연출가 김숙현 씨는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가족부터 귀를 닫고 근본적인 문제를 들어주려 하지 않는다면 평생의 상처로 남게 된다"며 "이는 사회생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연장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관계는 극단적으로 가면 자살을 부른다"고 말했다.

진짜 포인트는 연극이 끝난 뒤 시작됐다. 연극치료사 5명이 무대 위에 올라온 것. 치료사들은 극중 배우 5명의 대사와 연기를 한 소절씩 골라 재연했다. 그리고 김 연출가의 지시에 따라 대부분의 관객이 자신이 가장 공감했던 배우를 연기한 치료사 앞에 모였다.

"엄마는 왜 그렇게 딸에게 집착했던 거죠?" "지영이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심한 말을 내뱉을 수 있나요?"

치료사가 "이 배우에게 공감한 이유가 무엇이나"고 묻자 관객들이 하나둘 입을 떼기 시작했다. "배우의 감정을 직접 표현해 보라"는 치료사의 말에 한 관객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라며 크게 소리쳤다. 배우의 이야기를 하던 관객들은 가족과 친구, 자신의 이야기로 주제를 옮겨가며 곳곳에서 흐느꼈다. 아파하는 이들에게 누군가는 말없이 어깨를 토닥여주거나 조용히 휴지를 건네줬다.

관객들은 "배우들 속에서 나와 내 주변인들을 발견했다"고 입을 모았다. 중학생 유진화 양(13)은 "답답할 때마다 소리치고 화내는 지혜의 모습은 곧 내 모습이였다"며 "함께 이야기 나누는 관객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서로 위로해줬듯, 나도 힘들 때 스스로를 잘 다독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재호 씨(26)는 "극중 힘든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삼겹살 사먹으라며 돈을 쥐여주던 엄마의 모습이 특히 기억에 남았다"며 "우리 어머니도 자식에게 때로는 본인의 감정을 숨기며 사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관객은 물론 배우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었다. 배우들의 진짜 이야기는 연극 속 대사 하나하나에 각색돼 녹아들어 있었다. 김 연출가는 "배우들이 진한 상처와 아픔을 토해내며 백색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이 정말 고됐다"며 "대중 앞에서 아픔을 표현해내는 제작 과정은 곧 배우 자신들의 치료과정이었다"고 전했다.

연극을 마련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우울증과 자살 충동은 자신에게만 불행이 반복된다고 느낄 때 찾아온다"며 "이 연극을 통해 관객들이 자신의 문제를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고 서로에게 위안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강다리 '생명의 전화' 설치 4년

2014.11.13. 동아일보 김수연 기자



▶ 양화대교에 11번째 '생명의 전화'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왼쪽)이 12일 양화대교에 설치된 11번째 SOS생명의전화를 시범 사용하는 모습.

상담 2351건... 80%가 10, 20대, 진로-이성문제 가슴앓이 많아

“이 전화 고민 들어주는 전화 맞죠? 실업계고 3학년인데요, 휴게소에 취업을 했어요. 친구들은 대학 간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돈 시간 낭비하는 곳이라고 해도 나도 남들처럼 대학공부 해보고 싶은데, 난 애들 대학에 갈 때 휴게소에서 일해야 해요. 어떡하죠? 이미 뒤쳐진 인생인 것 같아 살 자신이 없어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주 앞둔 11월 초 어느 날. 오후 11시 서울 마포대교 위에서 흐느껴 울던 한 소녀가 생명의 전화를 집어 들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운영하는 이 SOS생명의전화는 다리 위에서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상담서비스를 하기 위해 설치한 것.

2011년 SOS생명의전화는 처음 설치된 이후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전화는 총 2351건. 이 중 1044건(44.4%)은 10대 청소년의 전화다. 뒤를 이어 20대가 853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10, 20대가 이용자의 절반을 차지하다 보니 상담 내용

도 진로 문제나 이성 문제가 절대적으로 많다. 지금까지의 상담을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진로 문제(693건) 이성 문제(425건) 가족 문제(316건) 생활고(170건) 우울 증 등 정신건강 문제(170건) 순이었다. 특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진로와 생계 문제를 고민하는 20대 젊은이들의 전화가 늘었다.

이용 시간을 보면 오후 6시가 넘는 저녁 시간이나 오전 6시 이전의 이른 새벽 시간이 가장 많았다. 다리 위 노출된 공간에 전화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 남의 주목을 받지 않는 시간에 상담전화를 주로 이용하는 것이다. 생명재단 측은 “장소 특성상 신분이 노출될까 봐 두려워 상담 전화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며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스나 가림막 등 다른 장치를 세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SOS생명의전화는 마포대교에 처음 설치된 이후 자살 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하지만 재단 측은 “자살은 예방이 우선”이라며 “조금이라도 심리적 갈등을 겪은 사람들의 상담창구 역할을 하는 것은 자살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생명재단은 12일 양화대교에 11번째 SOS생명의전화를 설치했다.

서울 양화대교에 'SOS 생명의 전화기' 설치

2014.11.13. YTN 외 39건 보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12일 한국생명의전화와 함께 양화대교에서 11번째 자살예방 긴급상담전화 'SOS생명의 전화기'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SOS생명의전화기는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에게 마지막 전화통화를 유도해 마음을 돌리도록 하거나 자살시도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이 신속하게 119상황실에 신고할 수 있는 전화기이다.

이날 행사에는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시형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 권순경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광자 한국생명의전화 이사, 구민성 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지난 2011년 설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1대의 SOS생명의전화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2351명의 목숨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시형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2011년 한강교량에 SOS생명의전화기를 설치한 후 투신 전에 다리 위에서 구조되거나 마음을 돌려 자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높아졌다”며 “SOS생명의전화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데 도움이 돼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보재단,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우수사례발표 · 워크숍 개최

2014.07.04. 머니투데이 외 19건 보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 세미나실에서 '경증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우수사례발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치매노인들과 부양가족을 위해 노력한 우수기관 및 담당자를 시상하고 치매 어르신 케어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구재관 연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경증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사업 효과성 연구'에 대한 결과 발표 및 강의를 통해 경증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가 치매노인 및 그 가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규명했다.

9개 기관 및 담당자에게 총 190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됐다. 대상은 동두천시노인복지관의 '도란도란 꽃내음'(사업명), 최우수상은 의정부 신곡노인종합복지관의 '쑥부쟁이', 우수상에는 당감종합사회복지관과 쌍봉종합사회복지관이 수상했다.

유석정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지역사회 케어현장에서 힘든 조건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경증 치매어르신들을 모시며 헌신하시는 분들이다"라면서 "오늘 이 행사가 그들의 헌신에 작은 보답이 되고 앞으로 더 많은 경증 치매어르신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원에서 소외되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등급 외 판정 치매 어르신만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서울·경기·강원·부산·경북·전남·제주 등 전국 9개 복지관 및 서울시 4개구 치매지원센터에 리모델링 및 인지능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성북구, 기억키움학교 개소

2014.08.26. 매일경제 매경닷컴 전종현 기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성북구는 26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성북구치매지원센터에서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인 '기억키움학교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북구 김영배 구청장,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유석정 전무 등이 참석해 앞으로 상호협력을 통해 경증 치매노인 및 부양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기억키움학교는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낮 동안 전문적인 인지능향상

프로그램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시에 부양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07년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8개 생명보험사가 출연해 설립한 곳이다. 이곳은 2011년부터 장기요양보험 등급에서 소외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치매노인들을 위해 전국 9개 복지관 및 서울시 4개구의 치매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 경증 치매노인 전용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했다.

인지능향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460명의 경증 치매노인과 그 가족들이 이용했다.



경증 치매 어르신, 웃음 되찾았어요.

2014.09.21. 서울경제 임지훈 기자



생보재단 운영 '기억키움학교' 등급의 치매 환자 돌봄 프로그램 호평 사회복지사 등 도움 받아 인지기능·운동능력 등 향상 가족에도 시간 여유 제공

'치매 극복의 날'을 3일 앞둔 지난 18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는 '등급의 치매 어르신 기억키움학교' 수업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화창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고 있었다. 인근에 위치한 성동구 치매지원센터에서 20여분을 걸어 이곳을 찾은 어르신들은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혼자 힘으로 주위를 거닐기도 하고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눴다.

"아빠, 엄마 이거 '딸랑이' 아니에요. 이걸 '작은 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죠. '작은 북'. 최세나(31) 작업치료사가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하자 어르신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됐다. 어르신들은 작업치료사의 안내에 따라 작은 북에 색을 입혔고 몇몇 분들은 작은 북의 손잡이 부위를 손으로 비벼 소리를 냈다. 이 같은 활동은 인지·운동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게 사회복지사의 설명이다.

성동구 치매지원센터 내에 있는 등급의 치매 어르신

기억키움학교는 경증 치매 어르신들을 낮 시간 동안 돌봐주고 치료해주는 시설이다. 2007년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등 18개 생명보험회사가 설립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인건비 등 이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치매는 증상의 수위에 따라 총 5등급으로 나뉜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지원받아 소액의 자기 부담금으로 어르신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등급의 치매 어르신의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정형미(46) 기억키움학교 사회복지사는 "등급의 치매 어르신들 중에서도 간혹 길을 잃는 어르신들이 있는 등 경증 치매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특히 저소득층 등급의 치매 어르신들은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지 못해 가정에 머물거나 동네 경로당을 찾고 있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들 어르신이 경로당 등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경로당에서도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는 어르신을 반겨줄 리 만무하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기억키움학교 학생인 한 어르신은 이곳에 오기 전 지역 경로당 등에서 따돌림을 당한 기억을 전하기도 했다.

기억키움학교는 달랐다. 이 곳에서는 친구들과 사귄 수도 있는데다 조장과 조원 등으로 조를 짜서 서로를 챙겨주며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가능하다. 기억키움학교는 등급의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 미술과 음악 등 인지 기능 강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부양 가족에게는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준다. 한 기억키움학교 어르신의 보호자는 "다른 시설에서는 만족하지 못하셨던 아버지가 이곳에 온 뒤 웃음이 크게 늘었다"며 "아버지가 기억키움학교에 있는 시간을 활용해 나도 내가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울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Health&Beauty] 경증치매 돌보는 주간보호센터 아세요?

2014.09.24. 동아일보 최지연 기자

고령화 치매환자 61만명... 등급의 판정 노인 돌보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회사원 이미정(가명·52) 씨는 몇 년 전부터 시어머니에게 이상 신호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퇴근 뒤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불 꺼진 방 안에 멍하니 앉아 있곤 했다. 낮에는 자식들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를 했다. 안 받으면 사고가 난 건 아닌지 걱정에 휩싸였다. 음식을 데운다고 가스레인지 불을 켜다가 깜빡하고 태우는 횟수도 늘었다. 수전증이 있는 것처럼 손도 자주 떨었다. 진단 결과 이 씨의 시어머니는 알츠하이머병(노인성 치매)였다.

치매환자 2050년엔 271만 명

고령화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씨의 시어머니 같은 치매 환자는 어느덧 61만 명에 이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치매 노인 환자가 2020년엔 84만 명, 2050년엔 271만 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또한 43조 원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치매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 나이,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뇌종양, 뇌혈관질환 등의 각종 원인으로 인해 뇌기능이 손상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치매에 걸리면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판단력 및 사고력 등 인지 기능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 이전과는 다른 이상 행동도 빈번해진다. 자주 우울하고 초조해하며, 환각 증세나 망상에 사로잡혀 주변 사람들을 오해하는 일이 발생한다.

동두천시노인복지관 제공



현재 국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자들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치매특별제도를 신설해 기존엔 1~3등급까지만 있었던 서비스 대상자를 5등급까지 늘려 경증 치매 환자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등급이 높을수록 질환 정도가 심한 경우에 속한다. 등급에 속하는 노인들은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해 목욕, 식사, 기본 간호 등을 도와주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주·야간 보호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경증 치매 환자

문제는 등급 외 노인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점. 특히 치매특별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5000여 명이 이르는 경증 치매 노인들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5등급까지 신설됐어도 사각지대가 생기는 건 마찬가지다. 구제관 연성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실제 육체적인 면에서 생활에 큰 불편이 있는 경우는 등급 판정을 받기가 수월하지만 인지적인 장애는 그렇지 않다"며 "경증 치매 환자의 경우 치매 등급 판정 검사를 받을 땐 낯선 곳에서 긴장을 하게 돼 잠시 정상인과 같은 사고를 하거나 행동할 수 있어 정상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중략)

치매는 치매 환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부양가족에게도 부담이 큰 질병이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부양가족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가족 간담회, 치매 관련 교육 지원 서비스 등도 운영 중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유석정 전무는 "앞으로도 정부가 미처 관리하지 못하는 등급의 치매 노인들을 위해 주간보호센터 운영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치매 노인과 그 가족,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노인의료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강동구 치매어르신 위한 기억키움학교 개소

2014.09.29. 아주경제 외 10건 보도



(왼쪽부터)
류성곤 강동치매지원센터장,
신무연 강동구의회의원,
이해식 강동구청장,
유석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
이삼열 강동성심병원 진료부원장,
강동기억키움학교 치매어르신 대표가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아주경제 장승기 기자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강동구와 함께 29일 오후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강동구치매지원센터에서 장기요양보험 등급의 치매어르신을 위한 주간보호 프로그램인 '기억키움학교'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식 강동구청장, 유석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 지역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해, 기억키움학교를 통해 경증 치매어르신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기억키움학교는 재단이 2011년부터 장기요양보험 등급의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주간보호 프로그램의 서울형 모델로, 낮 동안 인지기능향상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경증 치매어르신의 증상 악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석쟁 전무는 "치매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치매어르신이 많다"며 "생명보험이 지향하는 생애보장 정신을 바탕으로 치매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치매 환자 부양자 62%가 우울장애... 이젠 가족에게도 든든한...

2014.10.28.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김경하 기자

**치매 환자 가족 지원... 韓美日에서는
日 치매 가족 프로그램 수료한 사람들
서로 교류하며 다른 환자 가족 돕기도**

**美 1800쌍 부부 매뉴얼 적용해 보니
부양 가족 부담 줄어드는 것 증명**

**韓 서울시치매센터 '희망다이어리' 도입
응급상황 대처·자조모임 등 교육 지원**

올해 65세 이상 치매 노인 수는 61만명. 10명 중 1명(9.4%)꼴이다. 문제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3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치매 환자 진료비가 6462억원으로 가장 높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 환자 1명당 가족 부담 진료비를 연평균 1982만원으로 파악한다. 치매 환자 부양자의 62%가 경우우울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20%는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2011년 보건복지부, '치매노인 실태조사').

"앞으로도 정부가 미처 관리하지 못하는 등급외 치매 노인들을 위해 주간보호센터 운영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치매 노인과 그 가족,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노인의료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에서도 '치매 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1년에 최대 6일까지 환자를 요양기관에 맡길 수 있

동두천시노인복지관 제공



는 '치매 환자 가족 휴가제'를 실시했다. 더불어 '치매 특별 등급' 제도를 도입하며 이제는 경증 치매(5등급) 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거처온 일본과 미국의 치매 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어떨까. 지난 16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서울시가 '치매 가족을 품다'라는 주제로 마련한 '2014 치매 국제 심포지엄'에서 각 국가별 다양한 사례가 선보였다.

치매 환자 가족 지원, '동료 그룹'을 활용하라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이 치매 정책 추진 5개년 계획(2013~2017년) '오렌지 플랜' 속에 '치매 가족 지원 서비스 강화'를 아예 명시했다.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간호 교육을 전개하고 부양자들 간의 견을 교류할 수 있도록 '치매 카페'를 설치하거나, 2017년까지 지역 자원봉사자가 치매 환자(가족)를 도울 수 있는 '치매 서포터스'를 600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2012년 기준 '치매 서포터스'는 약 350만명이다).

(중략)

갈수록 증가하는 치매 환자... 이제는 가족 지원도 체계적으로

미국은 치매 환자 가족 지원 관련 연구도 활발하다. 미국 피츠버그대학 사회 및 도시연구센터 소장이자 정신의학과 명예교수인 리처드 슈츠(Richard Schulz) 박사의 '알츠하이머 환자 가족 건강 증진 연구(REACH-2)'가 대표적이다. 지난 2006년, 슈츠 박사 연구팀은 미국 보스턴·필라델피아·마이애미 등 6개 도시에서 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18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가족 부양자 지원 프로그램(치매 정보 제공·매뉴얼 제시 등)을 실시한 후, 6개월 동안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슈츠 박사는 "가족 부양자 지원 활동에 참여한 그룹이 통제 그룹에 비해 우울증, 스트레스, 문제 행동 등 5가지 영역에서 2~9배가량 개선됐다"면서 "비디오케어(Videocare)폰이나 스마트폰 원격 모니터링, GPS 기술 등을 유용하게 활용하면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실시된다면 치매 가족의 부담 또한 줄어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략)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8개 생명보험사가 출연해 설립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경증 치매어르신 기억키움학교'도 대표적인 사례다. '기억키움학교'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2011년부터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외)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와 인지 기능 향상, 정서 지지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민간에서 주도해 온 것. 유석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는 "이제는 치매 환자와 더불어 부양가족까지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과제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이동영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는 "치매 환자는 홀로 생활하기도 힘들고, 투병 기간도 평균 8년으로 길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름 유출 막은 한국 구조대원들, 생명보험의인상 수상

2014.02.26. 연합뉴스 외 21건 보도

▶
생보사회공헌재단,
신승용·이순형 경위에
생명보험의인상 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은 25일 오후 2시 오후2시 부산 동구 남해해양경찰청 청사에서 신승용·이순형 경위에게 생명보험의인상과 상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의인상’은 급박한 상황에서 국가나 공동체, 타인의 생명을 위해 헌신한 경찰, 소방 공무원 및 일반인을 지원하여 사회적 공의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서 유석쟁 생명보험재단 전무는 “오늘 수상하신 신승용·이순형 경위 덕분에 기름유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두 분의 용기와 희생정신이 우리사회에 널리 확산하는데 생명보험의인상이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역대 수상자로는 천안함 실종자를 구조하던 중 순직한 故 한주호 준위와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 여의도 칼부림 사건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하고 시민을 구조했던 이각수 명지대 교수 등이 있다.

한편, 재단은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275명에게 생명보험의인상을 수여하였으며 14억 규모의 상금을 전달했다.



생보재단, 순직·공상퇴직 소방관 가족에 ‘생명보험의인상’ 수여

2014.12.12. 연합뉴스 외 32건 보도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유석쟁 전무와
생명보험 의인상 수상자



생명존중을 몸소 실천한 순직·공상퇴직 소방관 노부모 생활지원금과 자녀 장학금 지원 2008년 소방방재청과 협약체결 후 162명에게 7억원 지원

화재 소식을 듣거나 소방관들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남의 일 같지 않고, 내 일 같아서 뉴스를 보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까워요. 소방관들은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위험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도 미비하고 장비도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위험한 일을 하는 소방관들에게는 항상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죠.” - 순직 소방관 가족인터뷰 중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은 12월 12일(금) 오후2시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소방서에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유석쟁 전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이형철 소방정책과장, 대한소방공제회 이태근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순직·공상퇴직 소방관 가족에게 생명보험의인상과 상금을 전달하였다.

이날 재단은 휴가 중에도 불구하고 제주 서귀포시 단란주점 화재 진압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던 중에 호흡기가 벗겨지면서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숨진 故강수철 소방관 등 39명의 소방관을 선정하여 생명보험의인상과 시상금 1억원을 전달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급박한 상황에서 국가나 공동체, 타인의 생명을 위해 헌신한 경찰, 소방, 일반인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공의(公義)를 확산하고자 ‘생명보험의인상’을 2008년에 제정하여 6년째 시상하고 있으며, 특히 소방관의 경우 생명존중을 몸소 실천한 순직 및 공상퇴직소방관의 노부모 생활지원금과 자녀 장학금으로 나누어 지금까지 162명에게 7억원을 전달하였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유석쟁 전무는 “소방관이야말로 이 시대의 의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 덕분에 소중한 생명이 구조되고 우리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며 “소방관들의 희생정신이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게 생명보험의인상이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4년 생명보험의인상 시상

2014.12.21. 서울경제 외 26건 보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19일 오후 2시 서울시 광화문에 위치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유석쟁 전무,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보험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날 재단은 2001년 전남 함평군에서 범죄용의 차량을 추격하다 언덕 밑으로 추락해 큰 부상을 입고 올 9월 숨진故신중환 경찰과 올해 7월 강릉시 사천해변 앞바다에서 파도에 휩쓸려 물에 빠진 어린이 2명과 성인남자 1명을 구조한 후 의식불명이 돼 19일 만에 사망한故이주훈님 등 순직경찰 30명과 일반시민 28명을 사회적 의인으로 선정하고 생명보험 의인상과 시상금 2억원을 전달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삼성, 교보, 한화 등 국내 18개 생보사가 공동출연해 2007년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2008년부터 급박한 상황에서 국가나 공동체, 타인의 생명을 위해 헌신한 경찰, 소방, 일반인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공의(公義)를 확산하고자 '생명보험 의인상'을 제정해 지난 6년 동안 375명에게 17억40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했다.

생보재단 유석쟁 전무는 "수상자들은 다급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헌신한 의인이다"며 "생명보험의인상이 의인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사회에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상 위해 헌신한 그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

2014.12.23.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최태욱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은평소방서에서 열린 생명보험의인상 시상식 현장.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제공

생명보험재단의 사회적 의인상 시상... 순직 소방관 유가족에 6년간 7억 지원

소방관 6명의 생명을 앗아가며 우리나라 소방 역사의 최대 비극으로 기록된 '홍제동 화재 사건'(2001년 3월), 고(故) 김기석 반장(서울은평소방서·순직 당시 44세)도 희생자 중 한 명이었다. 김씨 가족은 하루아침에 기둥을 잃고 표류했다. "머리가 멍했죠. 몇 달간은 온종일 울기만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 막막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김씨의 아내 조복수(51)씨의 말이다. 당시 자녀의 나이는 9세와 3세. 조씨가 현재 받고 있는 연금과 보상금은 당시 책정된 110만원 정도다. 세 가족이 한 달 살기엔 버거운 금액이다. 순직 소방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과거 사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그때 그 수준에서 멈춰 있다.

전국 소방 공무원은 약 3만9000명. 최근 5년간 29명이 화마(火魔)에 목숨을 잃었고, 1600여명은 부상을 당해 현장을 떠났다. 이는 일본의 2.6배, 미국의 약 2배다(소방방재청, 2014).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순직·공상(공무 중 부상) 사례는 점점 늘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신형욱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반장은 "순직 후 관심과 지원이 단편적이고,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연금법과 국가유공자법상으로 연금, 의료 보호, 자녀 교육

비 감면 정도의 지원을 받지만 직급이나 근무 연수에 따라 혜택이 제한된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유가족이 짊어 져야 한다. 신 반장은 "국가의 보장 체계가 빈약한 만큼, 민간 기업의 사후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 18곳의 출연금으로 조직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명보험재단)의 '사회적 의인 지원 사업'도 그중 하나다. 재단은 2008년부터 국가나 공동체, 타인의 생명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일반인을 발굴·지원하는 '생명보험의인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소방관은 순직·공상 소방관의 노부모 생활 지원금과 자녀 장학금으로 나누어 지금까지 162명에게 7억원을 전달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은평구의 은평소방서에선 고 김기석 반장을 포함, 순직 소방관 39명의 가족에게 총지원금 1억원을 전달하는 사회적 의인 소방 부문 시상식이 진행됐다. 조복수(51)씨는 "사회에서 우리를 잊지 않고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시는 덕분에 가족들도 자부심과 용기를 잃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유석쟁 생명보험재단 전무는 "이번 시상식이 사회적 의인들의 희생정신을 우리 사회에 알리고, 귀감 삼을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만 직장인 1대1 상담... 식단, 운동 방법도 조언

2014.02.25. 조선일보

단체 건강증진 6개월 프로그램

1. 기본 신체 계측 및 피검사
2. 건강 상태 현장 설문지
3. -특별한 건강 위험이 없으면(저위험군) 교육 자료 배포 및 단체 교육
-고위험군(당뇨·고혈압, 비만 등)이면 영양사, 운동처방사의 일대일 관리
4. 문화·습관 등 직장 환경 바꾸기 운동
5. 식사 문화 개선
6. 온라인으로 자가 모니터링하고, 직원들끼리 서로 독려하도록 모바일 앱 활용
7. 스트레스 상담 관리

[건강한 삶 9988(99세까지 팔팔하게 삽시다) 프로젝트 - 허리둘레 5cm 줄이자]
本紙 · 서울대 뱃살 프로젝트, 전국 각지 기업서 신청 몰려

조선일보와 서울대 의대 국민건강지식센터(소장 노동영 외과 교수),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이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뱃살 빼기 프로그램에 전국 공공기관·기업 20여곳이 신청하는 등 관심이 높다.

이 프로그램은 복부 비만이나 고혈압·고혈당·고콜레스테롤을 가진 대사증후군 회사원들에게 6개월 동안 단체 혹은 일대일 관리를 통해 운동 처방을 해주고, 식이요법, 습관 교정 등을 교육하는 것이다. 서울대 내분비내과 신찬수 교수와 가정의학과 의사, 영양사, 스포츠과 학팀이 함께 참여해 체계적으로 직장 건강 문화를 바꾸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청(직원 1600명)과 한국공항공사(700명), 한전 KDN(1200명), 코트라(680명) 등 다수의 공공 기관이 참여를 원했다.

국민건강지식센터는 신청한 곳 중 두 곳 정도를 선정할 예정인데, 현재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인 '유니베라'가 우선 선정됐다. 유니베라는 "건강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챙기면 가장 좋지만, 조직적으로 문화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 유니베라는 지난해에도 살을 빼 직원을 시상하거나, 직원들이 조를 짜 함께 운동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유니베라 관계자는 "올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아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男 100일 만에 22kg 감량...비결은?

2014.10.10. 매일경제 외 11건 보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지난 6월 21일부터 100일간 추진했던 '직장인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10일 집계한 결과, 비만고위험군에 근접했던 직장인 100명의 평균 체지방률이 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직장인 남성은 이 기간 22.2kg을 감량해 눈길을 끌었다. 생명보험재단은 지난 15주간 LG전자, 대우인터내셔널, 한일전기엠에쓰, 한양대학교병원, SH공사, 한국전력, 한국도박물관리센터, 성북장애인복지관 등 8개 기업의 대사증후군 고위험군 직장인 100명을 대상으로 생활습관개선 경쟁프로젝트 '건강나눔 도심걷기'를 진행했다.

그 결과, 프로젝트 참여자 100명은 쌀 5가마니 무게에 해당되는 405.8kg를 감량했다. 1인당 평균 체중은 4.3kg, 체지방률은 5% 포인트 감소했다. 최고 감량자는 체중 22.2kg, 체지방률 19.8% 감량에 성공했다.

재단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트레이너의 운동습관 코칭, 영양사의 건강 식단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건강 미션을 부여하는 한편, 건강도시락과 운동기구를 지원했다.

특히, 이런 지원을 단순 지원이 아닌 '경쟁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참여자들의 모든 활동은 같은 직장 내 5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진행, 건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함께 추구하고 온라인 카페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

스)를 통해 서로를 응원했다.

제갈정 인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인이나 대규모 단체에게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소그룹을 구성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룹 간 경쟁구도를 만들어 운영한 점이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직장인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직장인들의 바쁜 업무일과로 인해 탈락률이 높다는 인식과는 달리 이번 사업 참여자들은 94%의 완주율을 기록했다. 재단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6주간의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9주 동안 자율적으로 건강을 관리해 지속적으로 체중이 감량되는 성과를 거뒀다.



'건강나눔 도시걷기' 프로젝트를 통해 체중 22.2kg을 감량해 개인부문 1위를 차지한 LG전자 이준우(31) 씨는 "휴식시간마다 틈틈이 운동하며 15주 동안 총 115만2703 걸음을 걸었고 식단도 건강하게 조정했다"며 "바쁜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해 현재의 건강을 계속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재단은 프로젝트 참가자들과 함께 오는 11일 남산공원 백범광장에서 시상식과 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수 팀에게는 총 2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질 계획이며 상금의 50%는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된다.

생명보험재단은 국민 사망원인에서 암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순환기 계통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재단 조성 지원사업, 도심 건강걷기 지원사업, 허리둘레 5%줄이기 지원사업 등 다양한 대사증후군 예방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유석쟁 생명보험재단 전무는 "재단과 서울시가 힘을 합쳐 시민들의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내 생명보험사들을 대표해 건강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생보재단 · LG전자 겨울나기 지원금 전달

2014.11.11. 서울경제 외 29건 보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은 11일 LG전자와 서울 서초구립양재노인종합복지관에 저소득 어르신 겨울나기 지원금 825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지원금은 생명보험재단에서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100일동안 직장인 대사중후군 예방사업으로 추진했던 '건강나눔 도심걷기' 프로젝트에서 최고 감량을 한 LG전자팀의 시상금이며, 시상금 1650만원 중 50%를 기부하는 것이다.

기부금은 양재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목도리, 핫팩, 수면양말, 쌀 등으로 구성된 키트(Kit)를 제작하여 보급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생명보험재단의 건강나눔 도심걷기 프로젝트에는 총 8개 기업 20개 팀(총 100명)이 참여하여 100일동안 8천 7백만 걸음을 걸어 총 405kg을 감량했으며, 특히 LG전자 3개팀은 체지방률 감량비율에서 1, 2, 4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최대 상금을 수상했다.

생명보험재단 유석재 전무는 "건강나눔 도심걷기 프로젝트의 시상금 중 50%를 선뜻 기부해주신 LG전자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며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이번에 마련한 겨울나기 키트(Kit)가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재단, 저소득 아동 겨울 체육활동 지원금 전달

2014.11.27. 서울경제 외 20건 보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7일 서울특별시와 함께 이날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협의회에 저소득 아동 겨울 체육활동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재단에 따르면 이번 기부금은 서울지역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저소득 아동들의 스케이트 강습과 빙상장에서의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전달된 지원금은 생명보험재단에서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100일동안 직장인 대사중후군 예방사업으로 추진했던 '건강나눔 도심걷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SH공사, 한양대학교병원, 성북장애인복지관, 한일전기엠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전력의 시상금이며 6개 기업이 수상한 상금의 50%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부하는 것이다.

유석재 생명보험재단 전무는 "시상금의 50%를 기부해주신 기업들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며 "날씨가 추워지면 운동량이 부족해져 어린이들의 체력증진활동이 더 필요해진다"며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추운겨울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하여 체력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이어트 했을 뿐인데... 어려운 이웃 돕게 돼서 보람차네

2014.11.11. 서울경제 외 29건 보도

생명보험재단 '건강나눔도심걷기'
팀별 미션·경쟁 통해 체중 감량해...
상위팀 상금은 복지 소외계층 기부



지난달 11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노인종합복지관에 어르신 겨울나기를 위한 기부금 825만원이 전달됐다. 이는 소위 '땀내 나는 돈'이다. 지난 6월부터 100일 동안 직장인 20팀이 살 빼기 경쟁을 펼쳤는데, 최고점을 받아 수상한 LG전자의 '헬스킹' 팀이 상금의 절반을 쾌척한 것. 지난달 27일, 어린이 겨울 운동용품 구입을 위해 서울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기부된 365만원, 이튿날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을 후원한 76만원 역시 같은 성격이다. 모두 직장인 건강증진 사업 '건강나눔도심걷기' 상금으로부터 나왔다. '헬스킹' 팀의 이호진 과장(LG전자·CTO연구지원실)은 "고도비만으로부터 고생하던 몸을 바꿔보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뛰었는데, 그 열정이 주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더 뜻깊다"고 말했다.

**백해무익(百害無益)의 몸슬 병,
세계는 지금 '비만'과의 전쟁 중**

전 세계 비만 추정 인구는 약 21억 명. 3명 중 한 명이 '과체중'인 셈이다. 강재현 인제대 서울백병원 비만센터

교수는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병의 근원"이라며 "이로 인해 환자 본인과 가족이 노동력을 잃고, 경제적 부담은 쌓이면서 갖가지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20일, 글로벌 컨설팅회사 맥킨지는 "비만으로 인해 전 세계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2조달러(약 2221조원)"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전쟁의 여파와 맞먹는 수준이다. 미국은 한 해 평균 비만 관련 의료비로만 약 20조원을 쏟아붓는다.

우리나라에선 10여 년 전부터 각 자치구 보건소 등에서 건강증진 사업을 펼치며 비만 예방에 힘써 왔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김창보 서울시 복지건강실 국장은 "보건소 사업은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지만, 현실적으로 30~40대 직장인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세대별 비만율은 30대(36%)가 가장 높다. 백은미 한양대병원 직원보건관리실 계장은 "불규칙한 생활습관에 회식이 많은 직장인의 특성상 직장생활을 하면 할수록 비만에 쉽게 노출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중략)

15주에 22kg 빼기도... "혼자선 어렵었죠"

지난 6월 21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한 20개 팀은 건강 식단으로 채워진 도시락을 먹고, 운동 처방을 받으며 15주간의 '체중 감량' 경쟁을 펼쳤다. 자체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기도 했다. 한일전기엠엠씨(MMC)의 유영민(27·아기바람팀·3위)씨는 "앱에서 제공하는 미션에 따라 온종일 먹은 걸 빼집없이 기록하기도 하고, 팀원들과 100만보 걷기를 하기도 했다"며 "다른 팀이 올린 결과도 수시로 체크할 수 있게 해놓으니,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 말했다. 참가자 100명이 감량한 총량은 405kg으로 쌀 5가마니와 맞먹는 무게다. 15주 만에 22kg을 뺀 열혈 참가자도 탄생했다. 참가자들이 걸은 발걸음수를 모두 합하면 지구 한 바퀴 반을 도는 거리(8700백만 걸음)가 되며, 이를 통해 피자 1408판에 달하는 체지방(338만300kcal)을 걷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보 국장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허리둘레도 줄고, 혈액의 중성지방도 개선되는 등 단시간 내에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고 했다.

(중략)

강재현 교수는 "대부분 부모님인 직장인의 생활습관이 바뀌면 자녀를 포함한 온 가족에게 좋은 교육 효과를 미칠 수 있다"며 "이런 활동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좀 더 체계적인 비만 관리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서울시, 건강기부 계단 설치

2014.12.26. 조선일보 외 31건 보도



23일 서울 시청역 건강기부계단 개통식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부터 김광기 인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승범 서울메트로 차장, 유석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 김창보 서울시 보건정책관, 변은경 서울메트로 역장.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서울특별시와 23일 서울시청역 5번 출구에 건강기부계단을 설치하고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통식에는 생보재단 유석쟁 전무, 서울시 및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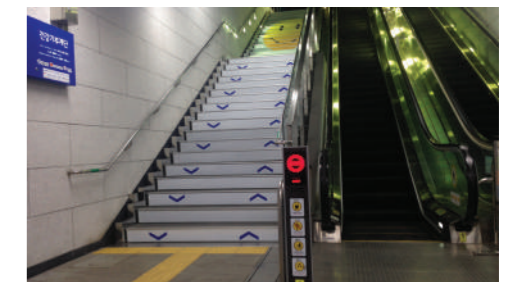
건강기부계단은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기부금이 적립되는 착한 계단이다.

건강기부계단이 설치되는 시청역 5번 출구는 서울광장과 연결돼 평소 유동인구가 많지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95%를 차지할 만큼 계단 이용률이 낮은 곳이었기 때문에 보행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단을 밟을 때마다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나오도록 건강기부계단을 제작했다.

또한 일별·월별 이용자 현황을 집계한 전광판도 설치해 기부금 적립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적립된 기부금은 혼자선 걷기 어려운 아동들의 보행보조기구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생보재단 유석쟁 전무는 "즐겁게 계단 걷기운동도 하고, 걷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할 수 있는 1석2조의 건강기부계단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생보재단은 18개 생명보험회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 2007년에 설립됐으며 국민들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살예방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사업, 어린이집 건립 및 운영사업, 치매노인 지원사업, 사회적인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보도리스트	날짜	매체	제목
	2014.01.17	한국보험신문	'생명존중.상부상조' 정신 실천 보험문화에 기여
	2014.01.17	CGN투데이	[기획뉴스] 차매,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4.01.22	서울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73억통큰기부
	2014.01.22	연합뉴스	인천 연수구 송도에 '연수생명숲어린이집' 3월 개소
	2014.01.22	메트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73억 기부
	2014.01.22	베이비뉴스	생명보험재단, 지자체 3곳에 국공립어린이집 기부
	2014.01.22	아시아투데이	생보재단,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73억 기부
	2014.01.22	서울파이낸스	생보재단,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에 73억 기부
	2014.01.22	금융경제신문	생보재단,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73억 지원
	2014.01.22	일요신문	인천 연수구, 생명숲어린이집 3월 개원..정원 119명 규모
	2014.01.22	보험매일	생보재단,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73억 기부
	2014.01.22	뉴스핌	생명보험재단, 지자체 어린이집 건립에 73억 기부
	2014.01.22	인더뉴스	생보재단,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73억 기부
	2014.01.22	프라임경제	생명보험재단, 지자체 어린이집 건립에 73억 쾌척
	2014.01.22	중인코리아인천	연수구, 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 오는 3월 개원
	2014.01.22	내외일보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사회공헌 동참
	2014.01.23	경기신문	오는 3월에 연수생명숲어린이집 개원
	2014.01.23	새한일보	'생명숲어린이집' 기부채납
	2014.01.23	우리일보	사회공헌 통한 공립 보육시설 확충
	2014.01.23	중부일보	송도국제도시에 '반값'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2014.01.23	현대일보	연수구, 연수생명숲어린이집 기부채납식
	2014.01.23	경도신문	연수생명숲어린이집개원'눈앞' 기부채납식개최·3월본격운영
	2014.01.23	내외일보	국·공립어린이집건립,사회공헌동참
	2014.01.23	서울일보	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 3월 개원
	2014.01.23	시민일보	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 3월 개원
	2014.01.23	아시아일보	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기부채납식개최, 3월개원...사회공헌 통한 공립보육시설 확충
	2014.01.23	경인종합일보	연수구, 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 기부채납식
	2014.01.23	수도권일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연수구에 기부채납 '생명숲어린이집' 3월 개원
	2014.01.24	문화일보	자살예방 기여 공로 서울시 표창
	2014.01.24	메트로	서울시 표창 받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2014.01.24	아시아투데이	생명보험재단, 자살예방사업 서울시장 유공기관 표창 수상
	2014.01.24	한국보험신문	생명보험재단, 자살예방사업 서울시장 표창 수상
	2014.01.24	금융경제신문	생보재단, 자살예방사업 서울시장 유공기관 표창 수상
	2014.01.24	뉴스웨이	생명보험재단, 자살예방사업 서울시장 유공기관 표창 수상
	2014.01.24	베이비뉴스	생명보험재단, 자살예방사업 유공기관 표창 수상
	2014.01.24	세계파이낸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서울시장 표창 수상
	2014.01.24	아주경제	생명보험재단, 자살예방사업 서울시장 표창 수상
	2014.01.27	보험신보	생보재단, 어린이집 기부사업 중점 전개
	2014.01.28	노컷뉴스	생명보험재단, 생명숲어린이집 전통·나눔교육
	2014.01.28	아시아투데이	생명보험재단, 아이들에게 설 맞이 전통교육과 나눔실천
	2014.01.28	서울파이낸스	생보재단, 설 맞이 나눔실천교육
	2014.01.28	이데일리	[포토] 생보재단, 설맞이 나눔실천교육을 실시
	2014.01.28	한국금융신문	생보재단, 설맞이 어린이와 나눔실천교육
	2014.01.28	베이비뉴스	어린이집서 세배하는 방법 배워 경로당으로
	2014.01.28	세계파이낸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어린이들과 행복한 설 명절 맞아
	2014.01.28	아주경제	생명보험재단, 설맞이 아이들과 전통교육 나눔실천
	2014.01.29	한국금융신문	생보재단, 종로생명숲어린이집 기부채납식 진행
	2014.01.29	아시아투데이	생보재단, 종로생명숲어린이집 기부채납식 가져
	2014.01.29	한국보험신문	생보재단, 종로생명숲어린이집 기부채납식 실시
	2014.01.31	옥야방송	육아매거진 "아이igo 신나Go" 오산생명숲어린이집
	2014.02.03	조선일보	벚살 즐기는 기 생활, 3개월 꾸준히... 몸이 기억하게 하자
	2014.02.05	위클리피플	18개 생명보험회사들과 동체 전국으로 사랑을 흠뻑리다
	2014.02.06	경인일보	시립 '성남 생명숲어린이집' 4월 개원
	2014.02.06	경인종합일보	성남생명숲 어린이집 오는 4월 개원
	2014.02.06	뉴스시스	정자동 '성남생명숲 어린이집' 4월 개원
	2014.02.06	OBS뉴스	이재명 성남시장...어린이집 기부 채납식
	2014.02.06	더리더	성남시장 "성남생명숲 어린이집, 민·관 협력의 대표 모델"
	2014.02.06	경기신문	성남시, 지역 주민 보육수요 문제 발벗고 나서
	2014.02.06	뉴스후	성남시, 성남생명숲 어린이집 4월 개원
	2014.02.06	경기인터넷뉴스	성남, 생명숲어린이집 오는 4월 개원
	2014.02.06	이뉴스투데이	성남시, (재)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기부 채납식 가져
	2014.02.06	신아일보	성남생명숲 어린이집 4월 3일 개원
	2014.02.06	인천일보	성남시-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아이들에 차원 높은 보육서비스
	2014.02.06	성남피플	성남생명숲 어린이집 오는 4월 개원
	2014.02.06	분당신문	성남생명숲 어린이집, 4월 개원
	2014.02.06	이타임즈	시립 '성남생명숲어린이집' 4월 개원
	2014.02.06	케이에스피뉴스	성남시 생명숲어린이집 오는 4월 개원
	2014.02.06	경기매일	성남생명숲어린이집, 4월 개원
	2014.02.06	국제뉴스	성남시, 생명숲어린이집 4월 개원
	2014.02.06	기호일보	민관합심 '성남생명숲어린이집' 4월 문 활짝
	2014.02.06	뉴스웨이브	성남생명숲어린이집 오는 4월 개원
	2014.02.06	시민일보	'성남생명숲 어린이집' 4월 문열어
	2014.02.06	아시아일보	성남생명숲어린이집 4월 3일 개원
	2014.02.06	아시아타임즈	성남생명숲어린이집 오는 4월 개원
	2014.02.06	여성종합뉴스	성남시, (재)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기부 채납식 가져

보도리스트	날짜	매체	제목
	2014.02.06	수도권일보	성남생명숲어린이집 기부 채납식
	2014.02.06	아주경제	성남시 성남생명숲어린이집 4월 문 열어
	2014.02.06	전국매일신문	'성남생명숲 어린이집' 4월 문 연다
	2014.02.10	동아일보	프리미엄 리포트 - 선택 못하는 선택진료제
	2014.02.17	뉴스웨이	"보험산업 신뢰도 향상에 온힘"
	2014.02.19	금융경제신문	생보재단, 강남세브란스 호흡재활센터와 지원 협약
	2014.02.19	뉴스웨이	생보사회공헌재단,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와 협약 체결
	2014.02.19	메트로	생보재단, 강남세브란스 호흡재활센터와 협약
	2014.02.19	베이비뉴스	희귀난치성질환 호흡재활센터 운영에 힘모아
	2014.02.19	서울경제	생보사회공헌재단 호흡재활센터 지원
	2014.02.19	서울파이낸스	생보재단, 희귀 신경근육환우 지원
	2014.02.19	아시아투데이	생보사회공헌재단,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와 협약 체결
	2014.02.19	이데일리	생보재단,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사업지원협약 체결
	2014.02.19	인더뉴스	생보재단, 희귀 신경근육환우 사업지원 체결
	2014.02.19	한국보험신문	생보사회공헌재단,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와 협약 체결
	2014.02.19	해럴드경제	생보사회공헌재단,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와 협약 체결
	2014.02.19	아주경제	생보사회공헌재단, 강남세브란스병원호흡재활센터와협약
	2014.02.25	조선일보	비만 직장인 1대1 상담... 식단, 운동 방법도 조언
	2014.02.26	뉴스시스	기름유출 막은 해경대원 2명, 생명보험의인상 수상
	2014.02.26	연합뉴스	기름유출 막은 구조대원들, '생명보험의인상' 수상
	2014.02.26	MBN뉴스	기름유출 막은 해경 대원 '생명보험의인상' 수상
	2014.02.26	굿모닝MBN	[부산] 기름유출 막은 해경 대원 '생명보험의인상' 수상
	2014.02.26	문화일보	부산 기름유출 막은 경관 2명에 상금
	2014.02.26	아시아투데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기름 유출 막은 해양경찰에 생명보험의인상 수여
	2014.02.26	CNB뉴스	부산 앞바다 기름유출 막은 해경 2명, 생명보험의인상 수상
	2014.02.26	뉴스A	기름유출 막은 해경, 생명보험의인상 수상
	2014.02.26	한국일보	기름 막은 해경, '생명보험의인상' 수상
	2014.02.26	메트로	몸으로 기름유출 막은 구조대원들 '생명보험의인상' 수상
	2014.02.26	국제신문	부산 앞바다 기름유출 막은 구조대원들, '생명보험의인상' 수상
	2014.02.26	연합뉴스	기름 유출 막은 한국 구조대원들, 생명보험의인상 수상
	2014.02.26	NGO신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부산해양사고 기름유출 막은...
	2014.02.26	금융경제신문	생보재단, 기름유출 방지 해경에 '생보의인상' 수여
	2014.02.26	베이비뉴스	생보재단, 부산해양경찰에 '생명보험의인상' 수여
	2014.02.26	해럴드경제	부산 기름 유출 은 몸으로 막은 신승용·이순형 경위에 상장 및 상금전달
	2014.02.26	서울신문	기름 유출 몸으로 막아 '생명보험의인상' 수상
	2014.02.26	한국보험신문	생보사회공헌재단, 신승용·이순형 경위에 생명보험의인상 수여
	2014.02.26	이뉴스투데이	부산 앞바다 기름유출 막은 해경 구조대원, 생명보험의인상 수상
	2014.02.26	이데일리	[포토] 생보재단, 생명보험의인상 전달식 개최
	2014.02.26	신아일보	부산항 기름유출 막은 구조대원, 생명보험의인상 수상
	2014.02.26	아주경제	생보재단, 기름유출 막은 해양경찰에 시상 및 상금 전달
	2014.03.01	신동아	"자살 줄일 최선의 방책은 '심리적 부검' 도입"
	2014.03.01	파일리에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저출산 대책 사업
	2014.03.03	금융경제신문	"생보재단, 생명존중 사업 적극 발굴, 지원"
	2014.03.04	경인방송	국·공립'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개원...민·관협력모델
	2014.03.04	해럴드경제	생명보험재단, 인천연수에생명숲어린이집 개원
	2014.03.04	국민일보	생명보험재단, 인천연수에생명숲어린이집 개원
	2014.03.04	메트로	생명보험재단, 인천연수에생명숲어린이집 개원
	2014.03.04	파이낸셜뉴스	생명보험재단, 인천연수에생명숲어린이집 개원
	2014.03.04	뉴스웨이	생명보험재단, 인천연수에생명숲어린이집 개원
	2014.03.04	아시아일보	국·공립 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 개원
	2014.03.04	타임뉴스	인천시, 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 개원
	2014.03.04	한국보험신문	생보사회공헌재단, 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 개원
	2014.03.04	베이비뉴스	생명보험재단, 인천연수구에생명숲어린이집 개원
	2014.03.04	아시아투데이	생명보험재단, 인천연수에생명숲어린이집 개원
	2014.03.04	서울파이낸스	생보재단, 인천연수에생명숲어린이집 개원
	2014.03.04	경기매일	국·공립 '연수생명숲어린이집' 개원
	2014.03.04	금융경제신문	생보재단, 인천연수구에'생명숲어린이집' 개원
	2014.03.04	베이비뉴스	민·관협력모델 '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 개원
	2014.03.04	이데일리	[포토] 생보재단, 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 개원
	2014.03.04	뉴스1	국·공립 '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 개원
	2014.03.04	오늘뉴스	국·공립 '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 개원
	2014.03.04	여성종합뉴스	국·공립 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 개원
	2014.03.04	시민일보	민·관협력안심어린이집 문열어
	2014.03.04	서울포스트	연수구 "사회공헌을 통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2014.03.04	노컷뉴스	숨처럼 향기롭게, 나무처럼 건강하게
	2014.03.04	인천일보	생명숲어린이집 개원
	2014.03.04	보험신보	생보재단, 인천연수어린이집 개원
	2014.03.04	국제뉴스	인천시, 연수생명숲어린이집 개원
	2014.03.04	세계파이낸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인천연수에 생명숲어린이집 개원
	2014.03.04	수도권일보	연수구-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민·관 협력사업
	2014.03.04	아주경제	생보재단, 인천연수에생명숲어린이집 개원
	2014.03.10	매일경제	생보재단 - 강원도,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사업 협약식
	2014.03.10	서울경제	생보사회재단 농약안전보관함지원
	2014.03.10	해럴드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강원도와「농약안전보관함 지원사업」협약식 체결
	2014.03.10	메트로	생명보험재단, 강원도 및 한국자살예방협회와 협약

보도리스트	날짜	매체	제목
	2014.03.10	뉴스웨이	생명보험재단, 강원도와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사업' 협약식 체결
	2014.03.10	한국보험신문	생보사회공헌재단, 강원도와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사업 협약
	2014.03.10	이데일리	[포토] 생보재단, 강원도와 농약안전보관함지원협약체결
	2014.03.10	대한국용신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강원도와 MOU 체결
	2014.03.10	보험매일	생보재단, '농약안전보관함지원사업' 협약식체결
	2014.03.10	아시아투데이	생보사회공헌재단, 강원도와 '농약안전보관함 지원협약' 체결
	2014.03.10	아주경제	생보재단, 강원도와 '농약안전보관함지원사업' 협약
	2014.03.13	남해안신문	생명보험재단, 여수에 도내 첫 어린이집 건립 지원
	2014.03.13	아침신문	여주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신축 협약 체결
	2014.03.13	CNB뉴스	생명보험어린이집, 내년 3월 여수에 개원
	2014.03.13	시민일보	여수에 전남도 첫 '국-공립 어린이집'
	2014.03.13	아침신문	여주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신축 협약 체결
	2014.03.13	CNB뉴스	생명보험어린이집, 내년 3월 여수에 개원
	2014.03.13	뉴스1	생명보험어린이집, 도내 처음으로 내년 3월 여수에 개원
	2014.03.14	메트로	생보재단-한림대 강남성심병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협약
	2014.03.14	뉴스1	생보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014.03.14	라포르시안	생보재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MOU
	2014.03.14	머니위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
	2014.03.14	서울파이낸스	생보재단,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
	2014.03.14	뉴스투데이	생보사회공헌재단, 한림대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협약식 가져
	2014.03.14	금융경제신문	생보재단, 강남성심병원과 의료비 지원사업 협약
	2014.03.14	뉴스웨이	생보사회공헌재단, 강남성심병원과 의료비지원 협약식 개최
	2014.03.14	한국보험신문	생보사회공헌재단, 한림대 강남성심병원과 협약 맺어
	2014.03.14	아시아투데이	생보사회공헌재단, 한림대 강남성심병원과 협약
	2014.03.14	국민일보	생보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014.03.14	그린경제	생명보험사-한림대 강남성심병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014.03.14	헤럴드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힘을 합친다
	2014.03.14	이데일리	[포토] 생보재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014.03.14	헤럴드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014.03.14	베이비뉴스	생보재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014.03.14	세계파이낸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014.03.14	이투데이	생보사회공헌재단, 생명숲어린이집 교사대상 리더십교육 실시
	2014.03.14	뉴스1	생보사회공헌재단, 재단설립 어린이집교사 대상 교육
	2014.03.14	한국보험신문	생보사회공헌재단, 어린이집 교사대상 교육 실시
	2014.03.14	이데일리	[포토] 생보재단, 생명숲어린이집 교사교육 실시
	2014.03.14	머니위크	생명숲어린이집, 전교사대상 리더십교육 실시
	2014.03.14	헤럴드경제	생명보험재단의 생명숲어린이집이 최고가 된 비결, 교사부터 공부한다
	2014.03.14	데일리안	생보재단, 어린이 보육환경 질향상 교육전도사 나서
	2014.03.14	아시아투데이	생보재단, 생명숲어린이집 교사교육 실시
	2014.03.14	서울파이낸스	생보재단, 어린이집교사 교육실시
	2014.03.14	이투데이	생명숲어린이집 최고 비결은 바로 교사교육
	2014.03.14	뉴스1	생보재단, 생명숲어린이집 교사교육 실시
	2014.03.14	아주경제	생보재단, 생명숲어린이집 교사대상 리더십교육 진행
	2014.03.14	아주경제	생보재단-한림대 강남성심병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014.03.14	한국NGO신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014.03.18	금융경제신문	생보재단, NOOM과 '도심걷기 지원 사업' 업무협약
	2014.03.18	한국보험신문	생보사회공헌재단, NOOM과 도심걷기 지원사업 협약
	2014.03.18	서울경제	생보사회공헌재단 도심 걷기 지원 MOU
	2014.03.18	매일경제	생명보험재단-NOOM, 직장인 건강증진 경진프로젝트 실시
	2014.03.18	이데일리	[포토] 생보재단, 도심걷기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2014.03.18	아시아투데이	[포토] 생보사회공헌재단, NOOM과 도심걷기 지원사업 협약
	2014.03.18	헤럴드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NOOM, 직장인들 건강증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2014.03.18	라포르시안	생보재단-NOOM, 직장인 건강증진 MOU 체결
	2014.03.18	EBN	생보재단-NOOM, 직장인 건강증진 프로젝트 개최
	2014.03.18	메트로신문	생보재단-NOOM, 도심걷기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2014.03.18	세계파이낸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NOOM, 직장인 건강증진 지원
	2014.03.18	아주경제	생보사회공헌재단, 도심걷기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2014.03.24	그린경제	생보사회공헌재단, 건강증진 지원사업 새롭게 추진
	2014.03.24	뉴스1	"선행도 알릴때 알려야죠" 생보재단 유석평 상임이사
	2014.03.28	뉴스웨이	생명보험재단, 종로구에 6번째 '생명숲어린이집' 개원
	2014.03.28	뉴스투데이	생보재단, 6번째 '생명숲어린이집' 개원
	2014.03.28	아시아투데이	생보재단, 평창동에 여섯번째 생명숲어린이집 개소
	2014.03.28	데일리안	생명보험재단, 종로구 평창동 6번째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2014.03.28	EBN	생보재단, 6번째 '생명숲어린이집' 오픈
	2014.03.28	라포르시안	종로 평창동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겼어요
	2014.03.28	메트로	생보재단, 평창동에 생명숲어린이집 오픈
	2014.03.28	보험매일	생보재단, 6번째 '생명숲어린이집' 오픈
	2014.03.28	초로신문	종로구, 평창동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어린이 웃음소리 듣는다
	2014.03.28	세계파이낸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빈 도심에 국공립어린이집 채우다
	2014.03.31	KBS	[이슈앤뉴스] 긴박한 생명 구조
	2014.04.03	뉴스1	[금융단신] 생명보험재단, '성남생명숲 어린이집' 개원 외
	2014.04.03	동양뉴스	'성남 생명숲 어린이집' 개원
	2014.04.03	경기tv뉴스	성남시, 예산 투입 없이 '성남생명숲 어린이집' 건립 문 열어
	2014.04.03	뉴스1	생명보험재단, 경기 성남시에 7번째 어린이집 개원
	2014.04.03	뉴스핌	[포토] 생명보험재단, 7번째 어린이집 개원

보도리스트	날짜	매체	제목
	2014.04.03	메트로	성남 정자동에 생명숲어린이집 개원
	2014.04.03	베이비뉴스	빈부격차 큰 성남 정자동에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2014.04.03	ebn	생보재단, 성남 저소득지역에 7번째 어린이집 개원
	2014.04.03	국제뉴스	성남시, '성남생명숲어린이집' 개원
	2014.04.03	보험매일	생명보험재단, '성남생명숲어린이집' 개원
	2014.04.03	신아일보	성남, 생명숲어린이집 개원
	2014.04.03	m이코노미	시 예산 투입 없이 '성남생명숲어린이집' 건립
	2014.04.03	아시아일보	성남시국공립어린이집, '성남생명숲어린이집' 건립
	2014.04.03	한국금융신문	생보재단, 성남에 생명숲어린이집 7호 개원
	2014.04.03	내외일보	'성남생명숲어린이집' 건립
	2014.04.03	그린경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신으로 사회공헌에 앞장”
	2014.04.03	아시아투데이	생명보험재단, 성남 광명에 7·8번째 어린이집 개원
	2014.04.03	헤럴드경제	생명보험재단, 성남 저소득지역에 7번째 어린이집 개원
	2014.04.03	그린경제	생명보험재단, 성남에 7번째 어린이집 개원
	2014.04.03	서울매일	'성남생명숲국공립어린이집' 문열어
	2014.04.03	플러스코리아	'성남생명숲어린이집' 건립
	2014.04.03	뉴스핌	성남시 '생명숲어린이집' 개원, 53번째 국공립어린이집
	2014.04.03	중앙뉴스	생명보험재단, 성남시에 어린이집 개원
	2014.04.03	세계파이낸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성남 저소득 지역 7번째 어린이집 개원
	2014.04.03	수도권일보	'성남생명숲어린이집' 문열어
	2014.04.03	전국매일신문	53번째 성남생명숲어린이집 개원
	2014.04.03	한국NGO신문	생명보험재단, 생명숲어린이집 열어
	2014.04.11	한국NGO신문	생명보험재단, 경기운동 장려 통해 시민건강 챙겨
	2014.04.12	이데일리	[포토] 유익한 정보, 즐거운 마음 '2014 정신건강박람회'
	2014.04.14	뉴스1	2014정신건강박람회
	2014.04.14	헤럴드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제45회 정신건강의날,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수상
	2014.04.14	데일리안	생보재단, '45회정신건강의날'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수상
	2014.04.14	한국보험신문	생보사회공헌재단,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수상
	2014.04.14	보험매일	생보재단,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수상
	2014.04.14	머니위크	복지부장관 표창받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무슨공로?
	2014.04.14	서울파이낸스	생보재단,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2014.04.14	금융경제신문	생보재단, 자살예방등 공로 '복지부장관표창'
	2014.04.14	뉴스웨이	생명보험재단, '정신건강의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2014.04.14	노컷뉴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4.04.14	뉴스1	생명보험재단, '자살예방기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4.04.14	조세일보	생보재단, 자살예방노력...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2014.04.14	EBN	생보재단,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2014.04.14	아시아투데이	[포토]생보재단,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2014.04.14	뉴스핌	[포토]생보재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014.04.14	연합뉴스	'지금은 상담중'
	2014.04.14	연합뉴스	2014 정신건강박람회
	2014.04.14	아주경제	생보사회공헌재단,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2014.04.14	한국NGO신문	생명보험재단, 정신건강의날 복지부장관 표창
	2014.04.15	동아일보	0~4세 3만명, 부모가 집 비우면 돌볼 곳 없어
	2014.04.15	MBC	진화하는 기업 기부.. 기업 사회공헌 연간 3조원
	2014.04.16	서울일보	대한민국 공무원이 위험하다?
	2014.04.17	한국금융신문	생애보장을 위한 7개의 약속
	2014.04.22	조선일보	"6년간 받은 선물...제 삶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2014.05.19	동아일보	"후~" 이산화탄소-기침 체크...인공호흡기 쓰자 답답
	2014.05.29	베이비뉴스	"남을 배려하는 마음습관을 배워요"
	2014.06.02	B&D키즈	이시행박사가 제안하는 세로토닌 키즈, 아이가 행복해 집니다
	2014.06.03	아시아투데이	[인터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살립니다"
	2014.06.12	베이비뉴스	"나는 대한민국의 멋진 영리더입니다"
	2014.06.13	동아일보	난치병 연우에 '안구 마우스'... 대학 진학 꿈 실현
	2014.06.23	머니투데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오산시 무료 미술치료 심리치료 상담
	2014.06.23	메트로신문	생명보험재단, 미술심리치료로 지역사회공헌에 '앞장'
	2014.06.23	복지연합신문	"미술심리치료받아요"
	2014.06.23	헤럴드경제	생보재단 "미술로심리치료 해드립니다"
	2014.06.23	매일일보	생보재단, 미술심리치료 무료제공
	2014.06.23	머니위크	생명보험재단, 21일 경기오산시 무료 미술심리치료 상담
	2014.06.23	뉴스투데이	생보재단, 오산시서 무료 '미술심리치료' 상담진행
	2014.06.23	헤럴드경제	생명보험재단, 미술심리치료로 지역사회공헌에 앞장
	2014.06.23	뉴스웨이	생명보험재단, 미술심리치료로 지역사회공헌에 앞장선다
	2014.06.23	보험매일	생명보험재단, 미술심리치료로 지역사회공헌에 앞장
	2014.06.23	아시아투데이	생명보험재단, 미술심리치료로 지역사회공헌에 앞장
	2014.06.23	데일리안	생명보험재단 "미술심리치료로 스트레스치료 하세요"
	2014.06.23	복지연합신문	생명보험재단, 생명숲어린이집 인근주민대상 미술심리치료
	2014.06.23	베이비뉴스	생보재단, 지역주민대상 미술심리치료 상담진행
	2014.06.23	금융경제신문	생보재단, 미술심리치료로 지역사회공헌 앞장
	2014.06.23	서울경제	생보재단 "미술로 마음의병 고쳐요"
	2014.06.23	베이비뉴스	그림을 통해 아이의 마음 이해해요
	2014.06.23	인더뉴스	생보재단, 미술심리치료에 나선다
	2014.06.23	아주경제	생보사회공헌재단, 무료 미술심리치료 상담 행사 실시
	2014.06.23	한국NGO신문	생명보험재단, 미술심리치료로지역사회공헌
	2014.06.24	동양뉴스	30~40대 직장인 건강상태 빨간불 서울시가 나선다

보도리스트	날짜	매체	제목
	2014.06.24	이투데이	생명보험재단, 직장인 위한 건강나눔도심견기 행사개최
	2014.06.24	이코노미리뷰	서울시-생명보험재단, 직장인 위한 건강나눔도심견기행사개최
	2014.06.24	머니투데이	"뛰어 내릴까..." 전화 한통이 살린 1338명
	2014.06.24	메트로신문	생명보험재단, 직장인 위한 건강나눔도심견기행사
	2014.06.24	헤럴드경제	생명보험재단, 직장인을 위한 건강나눔도심견기 행사 100세시대를 준비하며 건강행겨요!
	2014.06.24	복지연합신문	생명보험재단, 직장인 건강증진생활습관 개선 지원
	2014.06.24	매일경제	생명보험재단, 직장인 위한 건강나눔도심견기 행사
	2014.06.24	아시아투데이	[포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건강나눔도심견기행사 개최
	2014.06.24	연합뉴스	직장인 건강나눔 도심견기
	2014.06.24	뉴스웨이	[NW포토] 출발하는 건강나눔도심견기행사 참가자들
	2014.06.24	불교공뉴스	서울시, 직장인 건강 지키기
	2014.06.24	연합뉴스	서울시-8개기업 '직장男건강사수' 프로젝트
	2014.06.24	뉴스1	서울시, 기업과 손잡고 직장인 건강챙긴다
	2014.06.24	이투데이	서울시, LG전자 등 8개기업과 '직장건강증진사업' 추진
	2014.06.24	아시아투데이	서울시-8개기업 '직장男건강사수' 프로젝트
	2014.06.24	연합뉴스	서울시, 직장인건강지키기에 팔 걷어붙였다
	2014.06.24	식약일보	직장인 건강 지키기에 팔 걷어붙였다
	2014.06.24	뉴스웨이브	서울시, 직장인건강지키기에 팔 걷어붙였다
	2014.06.24	모닝뉴스	서울시, 직장인건강지키기 소매 걷었다
	2014.06.24	월드스타	서울시 30대~40대 직장인건강상태 적신타 "최소110살까지 살아야할텐데"
	2014.06.24	메디컬투데이	3040직장인, 스트레스에 찌들어 '흡연·음주·비만율'最高
	2014.06.24	푸드투데이	건강위협받는 30·40대위해 서울시가 나선다
	2014.06.24	데일리안	생명보험재단, '건강나눔도심견기프로젝트' 발대식
	2014.06.24	아주경제	생보사회공헌재단, 직장인건강증진프로젝트 발대식 개최
	2014.06.24	한국NGO신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서울특별시' 2014 이시행박사와 함께하는 건강나눔도심견기'
	2014.06.24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산책하고 비눗방울 놀이하며 몸도 마음도 튼튼
	2014.06.26	파이낸셜뉴스	생보업계의 아름다운 동행 <11>등급 외 판정 치매노인 건보 급여 지원도 없어.. 미술 등 프로그램 진행
	2014.06.26	국민일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하반기 접수
	2014.07.01	원음방송	[WBS 세상읽기] 생생토크 1 -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이해영, 사업파트장 : SOS 생명의 전화
	2014.07.04	머니투데이	생보사회공헌재단, 경증치매노인 지원사업워크숍
	2014.07.04	머니위크	생보사회공헌재단,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우수사례 발표
	2014.07.04	헤럴드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경증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우수사례발표·워크숍 개최
	2014.07.04	메트로	생보재단,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우수사례발표·워크숍 개최
	2014.07.04	아시아투데이	생보재단,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우수사례발표·워크숍 개최
	2014.07.04	뉴스1	생보재단, 성북·강동구에 경증치매주간보호센터 개소
	2014.07.04	ebn	생보재단,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우수사례발표
	2014.07.04	금융경제신문	생보사회공헌재단,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우수사례발표·워크숍
	2014.07.04	뉴스웨이	생보사회공헌재단,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우수사례발표 워크숍 개최
	2014.07.04	뉴스토마토	생보재단,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2014.07.04	베이비뉴스	생보재단, 경증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워크숍개최
	2014.07.04	보험매일	생보재단,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2014.07.04	복지연합신문	생명보험재단, 경증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우수사례 발표·워크숍
	2014.07.04	서울파이낸스	생보재단,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우수사례 발표
	2014.07.04	이투데이	생보사회공헌재단, 경증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워크숍 개최
	2014.07.04	인더뉴스	생보재단, 치매노인보호센터 우수사례 발표
	2014.07.04	경기북부포커스	의정부신곡노인종합복지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저소득치매노인지원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2014.07.04	강원일보	의정부신곡노인종합복지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저소득치매노인지원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2014.07.04	아주경제	생보사회공헌재단, 경증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워크숍개최
	2014.07.04	한국NGO신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경증치매노인 우수사례 발표
	2014.07.07	청년외사	전남대병원 희귀·난치성환자 인문학교실 운영
	2014.07.08	파이낸셜뉴스	생보업계의 아름다운 동행 <13>보육사각지대 해소... 생명꿈나무 돌봄센터 운영
	2014.07.11	국제뉴스	강원도,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사업 본격추진
	2014.07.11	국제뉴스	양구군보건소, 농촌마을에 농약안전보관함 지급
	2014.07.11	국민일보	[뉴스파일] 양구농촌마을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2014.07.11	쿠키뉴스	[뉴스파일] 강원도양구 농촌마을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2014.07.11	서울뉴스통신	생명존중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본격 추진
	2014.07.11	신아일보	양구, 농촌마을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2014.07.11	파이낸스투데이	강원도, 농약안전보관함지원사업 본격추진
	2014.07.11	뉴스1	강원도, 농약안전보관함지원... '생명존중·문화조성'
	2014.07.11	연합뉴스보도자료	강원도,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본격추진
	2014.07.11	뉴스와이어	강원도, 농약안전보관함지원사업 본격추진
	2014.07.11	엔디엔뉴스	강원도, 농약안전보관함지원사업 본격추진
	2014.07.11	전국매일신문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실시
	2014.07.11	환경법률신문	강원도,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본격추진
	2014.07.22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학원도 없던 산골에 무료로 아이 돌봐주는 곳 생겼어요"...보육 사각지대에 내린 단비
	2014.07.29	뉴스시스	성북생명숲어린이집착공식열려외1건(성북생명숲어린이집착공식)
	2014.07.29	머니투데이	착한비용, 질좋은 '성북생명숲어린이집' 탄생한다
	2014.07.29	EBN	생보재단, 서울성북구정릉동 어린이집 9호점 건립
	2014.07.29	국제뉴스	성북구, '성북생명숲어린이집' 착공
	2014.07.29	뉴스1	성북생명숲어린이집 착공식
	2014.07.29	뉴스웨이	생보사회공헌재단, 서울정릉동에 어린이집 9호점 건립
	2014.07.29	데일리안	생보재단, 9번째 국공립어린이집 성북지역에 첫삽
	2014.07.29	매일일보	성북구, '성북생명숲어린이집' 탄생
	2014.07.29	메트로신문	생보재단, 국공립성북생명보호어린이집 착공식 가져
	2014.07.29	베이비뉴스	'구립성북생명보호어린이집' 착공

보도리스트	날짜	매체	제목
	2014.07.29	베이비타임즈	국공립성북생명보호어린이집,서울정릉동서착공식
	2014.07.29	보험매일	생보재단, 서울성북구 정릉동에 9호점 어린이집 건립
	2014.07.29	복지연합뉴스	생명보험재단, 정릉동에 9번째 생명보호어린이집 착공
	2014.07.29	아시아경제	성북생명숲어린이집 착공
	2014.07.29	아시아투데이	생보재단, 성북구어린이집건립 착공식
	2014.07.29	여성종합뉴스	성북구-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성북생명숲어린이집' 짓는다
	2014.07.29	한강타임즈	성북구, '성북생명숲어린이집' 착공식 개최
	2014.07.29	한국금융신문	생보재단, 성북생명보호어린이집 착공식 개최
	2014.07.29	한국보험신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국공립어린이집 착공식 가져
	2014.07.29	헤럴드경제	국공립 성북생명보호어린이집 착공식 가져
	2014.07.29	시민일보	성북생명숲어린이집 첫삽
	2014.07.29	천지일보	[서울-성북구] 착한 비용, 질 좋은 어린이집 착공
	2014.07.29	환경미디어	성북구-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친환경어린이집 짓는다
	2014.07.29	전국매일신문	착한비용, 질좋은 '성북생명숲어린이집' 탄생한다!
	2014.07.29	한국NGO신문	생명보험재단, 성북구에 9번째 생명숲어린이집
	2014.08.01	뉴스시스	시립 여수생명보호어린이집 착공식
	2014.08.01	머니투데이방송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시립여수생명보호어린이집' 착공
	2014.08.01	경제투데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10번째 국공립어린이집짓는다
	2014.08.01	경향신문	여수 웅천동에 도내 첫'생명보호어린이집' 착공
	2014.08.01	남해안신문	도내 첫 생명보호어린이집, 여수 웅천에 착공
	2014.08.01	내일신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시립여수어린이집 착공
	2014.08.01	뉴스1	생보재단, 여수국공립어린이집 착공식
	2014.08.01	뉴스웨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10호점 '시립여수생명보호어린이집' 착공
	2014.08.01	데일리안	생보사회공헌재단, 여수생명보호어린이집 착공
	2014.08.01	매일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전남여수에10호점'생명보호어린이집'착공
	2014.08.01	머니위크	전남여수에 10호점 '시립여수생명보호어린이집' 착공
	2014.08.01	메트로	생보재단, '시립여수생명보호어린이집' 착공
	2014.08.01	무등일보	전남 첫 생명보호어린이집 여수에 착공
	2014.08.01	베이비뉴스	전남여수에 생명보호어린이집 10호점 생킨다
	2014.08.01	BBS(불교방송)	전남 첫 생명보호어린이집, 여수웅천동에 착공
	2014.08.01	브레이크뉴스	여수에 도내 첫 생명보호어린이집 착공
	2014.08.01	서울경제	여수생명보호어린이집 착공
	2014.08.01	시민일보	여수에 전남 첫 '생명보호어린이집'
	2014.08.01	아시아투데이	생보재단, 전남여수에 '생명보호어린이집10호' 착공
	2014.08.01	아침신문	여수시 웅천동에 전남도내 첫 생명보호어린이집 착공
	2014.08.01	양천방송	전남 첫 생명보호어린이집, 여수웅천동에 착공
	2014.08.01	연합뉴스	전남 첫 생명보호어린이집, 여수웅천동에 착공
	2014.08.01	연합뉴스	시립 여수생명보호어린이집 착공식
	2014.08.01	이투데이	생보사회공헌재단, 여수에어린이집 10호점 착공
	2014.08.01	전라닷컴	도내 첫 생명보호어린이집, 여수웅천동에 착공
	2014.08.01	프라임경제	보험아줌마 자녀격정 '이제그만...' 여수생명보호어린이집 착공
	2014.08.01	한국금융신문	생보재단, 여수에 '생명보호어린이집' 착공
	2014.08.01	한국보험신문	생보사회공헌재단,여수생명보호어린이집 착공식 개최
	2014.08.01	한국장애인신문	생명보험 어린이집 여수에 들어선다
	2014.08.01	한국타임즈	도내 첫 생명보호어린이집,여수웅천동에 착공
	2014.08.01	헤럴드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남여수에 10호점"시립여수생명보호어린이집"착공
	2014.08.01	CNN21	도내 첫 생명보호어린이집, 여수웅천동에 착공
	2014.08.01	EBN	생보재단, '시립여수생명보호어린이집' 착공
	2014.08.01	IPN뉴스	도내 첫 생명보호어린이집, 여수웅천동에 착공
	2014.08.01	NSP통신	전남내 첫번째 생명보호어린이집, 여수 웅천동에 착공
	2014.08.01	전남인터넷신문	[지역] 도내 첫 생명보호어린이집, 여수 웅천동에 착공
	2014.08.01	ysen	생명보호어린이집, 여수 웅천동서 착공식
	2014.08.01	복지연합신문	생명보험재단, 전남 여수에 생명보호어린이집 10호점 착공
	2014.08.01	한국NGO신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10번째생명보호어린이집
	2014.08.02	천지일보	[서울-성북구] 착한 비용, 질 좋은 어린이집 착공
	2014.08.02	한국NGO신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10번째 생명보호어린이집
	2014.08.03	메트로신문	생보재단, '시립여수생명보호어린이집' 착공
	2014.08.03	경향신문	여수 웅천동에 도내 첫 '생명보호어린이집' 착공
	2014.08.03	작은뉴스	도내 첫 생명보호어린이집, 여수 웅천동에 착공
	2014.08.04	남해안신문	도내 첫 생명보호어린이집, 여수 웅천동에 착공
	2014.08.04	신문고뉴스	전남도내 첫 생명보호어린이집, 여수 웅천동에 착공
	2014.08.04	복지연합신문	"말 못할 고통과 슬픔, 그림으로 풀어내요"
	2014.08.08	국제뉴스	전남대병원 11일 확장성 심근병증 교육
	2014.08.09	뉴스시스	전남대병원 11일 확장성 심근병증 교육
	2014.08.12	뉴스시스	원주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협약
	2014.08.12	국제뉴스	원주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협약 및 현판식
	2014.08.18	베이비뉴스	30대 이상 고위험임산부 증가..산전관리 중요
	2014.08.19	더나은미래	전화 한 통으로 SOS하면.. 골든타임 지키려 출동합니다
	2014.08.20	뉴스웨이브	강동구, 제도 밖 경증치매어르신 대상 기억키움학교 열어
	2014.08.20	매일일보	강동구, 제도밖 경증치매 '기억키움학교'운영
	2014.08.20	시민일보	돌봄 사각지대 '경증치매노인' 지원
	2014.08.20	아시아경제	강동구, 치매어르신 대상 기억키움학교 문 열어
	2014.08.20	전국매일신문	강동구, 제도 밖 치매어르신 '기억키움학교'
	2014.08.24	서울경제	"언극치료로 마음속 응어리 풀었어요"
	2014.08.25	베이비뉴스	"세상 자대로 아이를 물어붙이지 않을래요"

보도리스트	날짜	매체	제목
	2014.08.25	서울경제	농약안전보관함 '농촌 안전' 지킨다.
	2014.08.26	뉴스시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치매노인 대상 '기억키움학교' 설립
	2014.08.26	보험신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기억키움학교' 개소식 개최
	2014.08.26	뉴스웨이	생보사회공헌재단, 경증 치매어르신을 위한 '기억키움학교' 개소
	2014.08.26	아시아투데이	생보재단, 성북구에 치매어르신 위한 '기억키움학교' 개소
	2014.08.26	매일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성북구, 기억키움학교 개소
	2014.08.26	머니위크	성북구에 경증 치매어르신을 위한 기억키움학교 문 연다
	2014.08.26	이투데이	생보재단, 경증 치매어르신을 위한 기억키움학교 개소
	2014.08.26	메트로신문	생보재단, 치매노인 위한 '기억키움학교' 개소
	2014.08.26	서울경제	생보사회재단 기억키움학교 개소
	2014.08.26	조세금융신문	생보재단, 경증 치매어르신 위한 '기억키움학교' 개소
	2014.08.26	연합뉴스	성북구 '기억키움학교' 개소식
	2014.08.26	보험매일	생보재단, 경증 치매어르신 기억키움학교 연다
	2014.08.26	금융경제신문	생보재단, 경증 치매어르신 보호 '기억키움학교' 개소
	2014.08.26	한국경제TV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치매어르신을 위한 기억키움학교 개소
	2014.08.26	데일리안	생명보험재단, 성북구에 경증 치매어르신 기억키움학교 연다
	2014.08.26	EBN	생보재단-성북구, 치매노인 위한 기억키움학교 개소
	2014.08.26	복지연합신문	생명보험재단, 성북구에 경증 치매노인 위한 '기억키움학교' 개소
	2014.08.26	보험신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기억키움학교' 개소식 개최
	2014.08.26	아주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성북구에 치매어르신 위한 기억키움학교 개소
	2014.08.28	머니투데이	생보재단,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위한 마음학교 수료식
	2014.08.28	데일리안	생보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에게 희망 선사
	2014.08.28	머니위크	희귀난치성질환 환우를 위한 행복한 마음학교
	2014.08.28	베이비뉴스	"세상 첫째로 아이를 돌아볼지 않을래요"
	2014.08.28	보험매일	생보재단, 행복한 마음학교 수료식 개최
	2014.08.28	복지연합신문	생명보험재단, 희귀난치성질환 환우 위한 인문학 수업 수료식
	2014.08.28	아시아투데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행복한 마음학교 수료식' 개최
	2014.08.28	이투데이	생보재단, 희귀난치성 환우 위한 '행복한 마음학교' 수료식
	2014.08.28	EBN	생보재단, 희귀난치성 환우 위한 '행복한 마음학교' 수료식
	2014.08.28	뉴스웨이	생보사회공헌재단, "행복한 마음학교" 수료식 가져
	2014.08.28	헤럴드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성질환 환우를 위한 행복한 마음학교, 꿈을 향한 희망의 발걸음
	2014.08.28	메트로	생보재단, '행복한 마음학교 수료식' 개최
	2014.08.28	한국금융신문	생보재단, 행복한 마음학교 수료식
	2014.08.28	베이비뉴스	"아이스버킷 주인공도 인문학수업 들었어요"
	2014.08.28	NSP통신	전남대병원, 희귀난치성질환 인문학교실 성료
	2014.08.28	의협신문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2014.08.28	뉴스1	생보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성 질환 청소년 인문학교실 수료식
	2014.08.28	병원신문	전남대병원 희귀난치성질환 인문학교실 성료
	2014.08.28	의학신문사	전남대병원 희귀난치성질환 교실 수료식
	2014.08.28	엔지티브	전남대병원 희귀난치성질환 인문학교실 성료
	2014.08.28	한국타임즈	전남대병원 희귀난치성질환 인문학교실 성료
	2014.08.28	보험신보	이모저모-생보재단, 행복한 학교 수료식
	2014.08.28	조세금융신문	생보재단, 제3회 행복한 마음학교 수료식 가져
	2014.08.28	매일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행복한 마음학교 수료식'
	2014.08.28	메디포뉴스	전남대병원희귀난치성질환인문학교실성료
	2014.08.28	온투데이	전남대병원희귀난치성질환인문학교실성료
	2014.08.28	아주경제	아이스버킷 챌린지 캠페인 주인공들, 생보사회공헌재단의 인문학교실 수료
	2014.08.28	한국NGO신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행복한 마음학교 수료식
	2014.08.28	한국NGO신문	경증 치매어르신 위한 '기억키움학교' 개소
	2014.08.29	금융경제신문	생보재단, 제3회 행복한 마음학교 수료식 가져
	2014.09.01	서울경제	생명숲어린이집 덕분에 아이 팔길 걱정 덜었어요 (추가)
	2014.09.02	병원신문	전남대병원 희귀난치성질환 인문학교실 성료
	2014.09.02	서울경제	"발일 나간 얼마 대신 아이 봐드립니다"
	2014.09.10	한국보험신문	생보사회공헌재단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확산
	2014.09.12	동부교차로지널	꿈 만드는 하남생명꿈나무돌봄센터
	2014.09.18	EBN	생보재단, 강원도에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2014.09.18	복지연합신문	생명보험재단, 강원도에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2014.09.18	아시아투데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강원도에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2014.09.18	베이비뉴스	농가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이 음독자살 예방한다
	2014.09.18	코리아투데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강원도에 농약안전보관함 지원한다
	2014.09.18	보험매일	생보재단, 강원도에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2014.09.18	쿠키뉴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강원도에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2014.09.18	머니위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강원도에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2014.09.18	아주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강원도에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2014.09.19	동아일보	"대화가 막힌 가정에서 자살은 시작된다"
	2014.09.19	뉴스웨이	생보사회공헌재단, 강원도에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2014.09.19	조세금융신문	생보재단, 강원도에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2014.09.19	헤럴드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강원도에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2014.09.19	메트로신문	생보재단, 강원도서 '생명사랑 녹색마울'현판식 개최
	2014.09.19	매일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강원도에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2014.09.19	뉴스투데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강원 양양군에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2014.09.19	한국NGO신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양양에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2014.09.21	서울경제	"경증 치매 어르신, 웃음 되찾았어요."
	2014.09.24	동아일보	[Health&Beauty]경증치매 돌보는 주간보호센터 아세요?
	2014.09.24	베이비타임즈	생보재단 어린이집, 맞벌이 부부·저소득층 가정에 큰 힘!

보도리스트	날짜	매체	제목
	2014.09.25	서울구민신문	강동구치매지원센터,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기억키움학교' 개교식
	2014.09.29	뉴스시스	기억키움학교 개소식
	2014.09.29	보험신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강동구 경증 치매어르신 및 부양가족을 위한...
	2014.09.29	한국경제tv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치매어르신 위한 기억키움학교 개소
	2014.09.29	EBN	생보재단, 경증 치매노인 위한 기억키움학교 개소
	2014.09.29	복지연합신문	생명보험재단, 치매어르신 위한 기억키움학교 개소
	2014.09.29	매일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기억키움학교 개소
	2014.09.29	보험매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기억키움학교 개소
	2014.09.29	아시아투데이	생보재단, 경증 치매어르신 부양가족 위한 '기억키움학교'열어
	2014.09.29	뉴스웨이	생보사회공헌재단, 경증 치매어르신을 위한 기억키움학교 개소
	2014.09.29	한국보험신문	생보재단, 경증 치매어르신 위한 기억키움학교 개소
	2014.09.29	메트로신문	생보재단, 치매 어르신 위한 '기억키움학교'개소
	2014.09.29	이코노믹리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치매어르신 위한 기억키움학교 개소
	2014.09.29	아주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강동구 치매어르신 위한 기억키움학교 개소
	2014.09.29	보험신보	생보업계, 자살예방사업 강화
	2014.09.30	아시아투데이	생보재단, 자살고위험군 정신장애인 아르브뤼 치료활동 지원
	2014.09.30	데일리안	생보재단, '전국장애인학생 미술공모전 시상식' 개최
	2014.09.30	서울구민신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강동구 '기억키움학교' 개소
	2014.09.30	머니위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아르브뤼 미술공모전 시상식 개최
	2014.09.30	이코노믹리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자살위험 정신장애인 치료지원
	2014.09.30	뉴스1	생보재단, 자살위험 예방 학생 미술공모전 시상식
	2014.09.30	비마이너	특수학교 학생, 정신장애인 예술 작품 전시회 열려
	2014.09.30	헤럴드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강동구 경증 치매어르신 및 부양가족을 위한 기억키움학교 개소식
	2014.09.30	아주경제	생보재단, '아르브뤼 작품공모전' 시상식 개최
	2014.09.30	조세금융신문	생보재단, 강동구에 '기억키움학교'개소
	2014.09.30	한국NGO신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강동구 '기억키움학교' 개소
	2014.10.01	한국NGO신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국장애인학생 미술공모전...
	2014.10.07	아시아경제	서울 시민 몸무게, 반년 만에 14톤 줄었다
	2014.10.07	매일경제	독한서울시민, 6개월간14톤감량?
	2014.10.07	연합뉴스	서울시민 1만 2천여명, 반년 간 몸무게 14t 뺐다
	2014.10.09	보험매일	생보재단 직장인 건강증진사업 성공적으로 마쳐
	2014.10.09	머니위크	생보사회공헌재단, 건강증진 지원사업 100일 프로젝트 종료
	2014.10.10	머니투데이방송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100일간 '직장인 건강증진 지원사업' 진행
	2014.10.10	헤럴드경제	100일만에 22kg감량(?)..생보재단 직장인 건강증진사업 주목
	2014.10.10	아주경제	인구협회, 초기임산부 배려 캠페인 전개
	2014.10.10	매일경제	직장男 100일 만에 22kg 감량.. 비결은?
	2014.10.10	복지연합신문	비만? "생활습관을 바꿔라"
	2014.10.10	이코노믹리뷰	보험사 직원들이 알아야할 체중감량 비법은 '습관개선'
	2014.10.10	뉴스웨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100일간 직장인 건강증진 지원사업 진행
	2014.10.10	한국보험신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직장인 건강증진 지원사업 종료
	2014.10.10	베이비뉴스	비만고위험군 직장인, 100일만에 22kg 감량
	2014.10.10	데일리안	생보재단, 경쟁으로 '건강나눔 도심권기' 큰 성과 일궈
	2014.10.10	인더뉴스	생보재단 건강증진사업, 100명 평균체지방 5% ↓
	2014.10.10	베이비뉴스	"오늘은 임산부의 날, 임산부를 배려해 주세요"
	2014.10.10	아주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100일간 직장인 건강증진 지원사업 진행
	2014.10.10	인더뉴스	생보재단 건강증진사업, 100명 평균체지방 5% ↓
	2014.10.11	보험신보	생보사회공헌재단, '제5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서 희귀난치성질환 알리기
	2014.10.11	윌클리오늘	생보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성질환 알리기 동참
	2014.10.12	머니투데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여의도 나눔대축제 참여
	2014.10.12	아시아투데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직장인 건강증진사업 100일만에 체지방률 5%감량"
	2014.10.12	메트로신문	생보재단, '제5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참가
	2014.10.12	아시아투데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성질환 바로알리기 나서
	2014.10.12	서울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나눔대축제
	2014.10.13	헤럴드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직장인 건강증진사업 100일만에 22kg감량..비결은 '습관개선'
	2014.10.13	조세금융신문	생보재단, '직장인 건강증진 지원 사업'평균 체지방 5%p 감소
	2014.10.13	이코노믹리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성질환 바로알리기 동참
	2014.10.13	EBN	생보재단, 희귀난치성질환 바로알리기 캠페인 진행
	2014.10.13	머니위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성질환 알리기 동참
	2014.10.13	헤럴드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성질환 바로알리기 위한 행복한 동행
	2014.10.13	보험매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성질환 알리기 동참
	2014.10.13	한국금융신문	생보재단,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참여
	2014.10.13	텐아시아	'무한도전', 내달 11일 '대한민국나눔대축제' 참석
	2014.10.13	마이데일리	'무한도전', 10월 11일 나눔대축제 무대 선다
	2014.10.13	파이낸셜뉴스	제4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5~6일 전국 8개 도시에서 동시 개최
	2014.10.13	뉴스핌	복지부, 5~6일 전국서 '나눔대축제' 개최
	2014.10.13	연합뉴스	전국 9개 도시에서 '나눔 대축제' 열려
	2014.10.13	조세금융신문	생보재단, '제5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참여
	2014.10.13	한국NGO신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성질환 바로 알리는 행복한 동행
	2014.10.14	한국타임즈	전남대병원, 터너증후군 힐링캠프 개최
	2014.10.14	메디포뉴스	전남대병원, 터너증후군 힐링캠프 개최(10/18~19)
	2014.10.14	병원신문	전남대병원터너증후군힐링캠프개최
	2014.10.14	CNB뉴스	전남대병원 터너증후군 힐링캠프 개최
	2014.10.14	디지털보사	[의약단신]전남대병원 18일부터 이틀간 터너증후군힐링캠프
	2014.10.14	왓치데일리	전남대병원, 터너증후군 힐링캠프 개최
	2014.10.15	MBC	여성고용대책발표...기업기부로국공립어린이집늘린다

보도리스트	날짜	매체	제목
	2014.10.15	머니투데이	국공립·직장어린이집 늘려 '워킹맘' 걱정 덜다
	2014.10.15	여성신문	보육시설·아이돌보미 '워킹맘' 중심으로 바뀐다
	2014.10.15	뉴스1	기부채납형 국공립어린이집 활성화...교과서 '일·가정 양립' 강화
	2014.10.16	뉴스1	격려사하는 유석쟁 상임이사
	2014.10.16	아주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치매가족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4.10.16	EBN	생보재단, 치매가족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4.10.16	쿠키뉴스	생명보험재단, 치매가족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어
	2014.10.16	메트로신문	생보재단, 치매가족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4.10.16	한국금융신문	생보재단, 치매환자 가족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4.10.16	헤럴드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치매가족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4.10.16	아시아투데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2014치매 국제 심포지엄' 개최
	2014.10.16	뉴스웨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치매가족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4.10.17	조세금융신문	생보재단, '치매가족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4.10.18	한국NGO신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치매 국제 심포지엄...
	2014.10.20	한국보험신문	생보사회공헌재단 '치매국제심포지엄' 개최
	2014.10.21	머니위크	일곱살의 꿈
	2014.10.22	국민일보	[뉴스파일]천보산서 '치매가족 자연치유형' 행사
	2014.10.23	케이비뉴스	"혹부리 할아버지처럼 착하게 살래요"
	2014.10.28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치매 환자 부양자 62%가 우울장애... 이젠 가족에게도 든든한...
	2014.11.10	조선일보	會社서 스트레스·食單 조절만 해도... 3개월새 뱃살 '썩'(평균 1.4cm)
	2014.11.11	머니투데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건강프로젝트 최강팀에 시상
	2014.11.11	머니투데이방송	생명보험재단, 저소득 어르신 겨울나기 지원금 전달
	2014.11.11	세계파이낸스	생명보험재단, 저소득 어르신 겨울나기 지원금 전달
	2014.11.11	세계파이낸스	생명보험재단, 저소득 어르신 겨울나기 지원금 전달
	2014.11.11	데일리안	생명보험재단, 저소득 어르신 겨울나기 지원금 전달
	2014.11.11	머니위크	생명보험재단, 직장인 건강나눔 최고 감량팀 시상금 기부
	2014.11.11	메트로	생보재단, LG전자와 저소득 어르신에게 지원금 825만원 전달
	2014.11.11	조세일보	생보재단·LG전자, '저소득 어르신 겨울나기 지원금' 전달
	2014.11.11	이코노믹리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건강프로젝트 최강팀에 시상
	2014.11.11	뉴스1	"살 빼서 가뭄해 좋고, 상금은 기부해서 좋고"
	2014.11.11	서울파이낸스	생명보험재단-LG전자, 어르신 겨울나기 지원금 전달
	2014.11.11	케이비뉴스	생명보험재단, 직장인 건강나눔 프로젝트 시상금 기부
	2014.11.11	쿠키뉴스	생명보험재단-LG전자, 양재노인복지관에 지원금 전달
	2014.11.11	뉴스웨이	생보재단, LG전자와 노인종합복지관에 저소득 어르신 지원금 전달
	2014.11.11	이데일리	생보사회공헌재단, 저소득 노인 지원금 전달
	2014.11.11	한국보험신문	생보재단, 직장인 건강나눔 프로젝트 최고 감량팀 시상금 기부
	2014.11.11	서울경제	생보재단-LG전자 겨울나기 지원금
	2014.11.11	아시아투데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직장인 건강나눔 프로젝트 시상금 기부
	2014.11.11	파이낸셜뉴스	생명보험재단, LG전자와 저소득 어르신 겨울나기 지원금 전달
	2014.11.11	보험매일	생명보험재단, LG전자와 저소득 어르신 겨울나기 지원금 전달
	2014.11.11	뉴스투데이	생명보험재단, LG전자와 '저소득 어르신 겨울나기' 지원
	2014.11.11	EBN	생보재단-LG전자,저소득노인겨울나기지원금전달
	2014.11.11	조세금융신문	생보재단, LG전자와 저소득 어르신에게 지원금 전달
	2014.11.11	위클리오늘	생명보험재단, '건강나눔 도심걷기' 1위팀 시상금 기부
	2014.11.11	아시아경제	생보사회공헌재단, 저소득 노인 겨울나기 지원금 전달
	2014.11.11	경제투데이	생보재단-LG전자, 사회복지시설에 겨울나기 지원금 825만원 전달
	2014.11.11	더팩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어르신 겨울나기 지원금 전달
	2014.11.11	한국금융신문	생명보험재단, 노인종합복지관에 기부금 전달
	2014.11.11	이뉴스투데이	생명보험재단-LG전자, 노인종합복지관에 지원금 전달
	2014.11.11	한국금융신문	생보사회공헌재단, 겨울나기지원금전달
	2014.11.12	NGO신문	생명보험재단, 건강나눔 최고 LG전자 시상금 기부
	2014.11.12	뉴스1	양화대교에 'SOS생명의 전화' 개통
	2014.11.12	머니투데이	생보재단, 양화대교에 11번째 SOS생명의전화기 개통
	2014.11.12	세계파이낸스	생명보험재단, 양화대교에 11번째 생명의 전화 개통
	2014.11.12	국민일보	양화대교에 SOS생명의전화기
	2014.11.12	서울경제	양화대교에 '생명의 전화기' 설치
	2014.11.12	아시아투데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양화대교에 11번째 SOS생명의전화기 개통
	2014.11.12	이투데이	생보재단, 양화대교에 11번째 SOS생명의전화기 개통
	2014.11.12	헤럴드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양화대교에 11번째 SOS생명의전화기 개통
	2014.11.12	MBN뉴스	양화대교, 11번째 'SOS생명의 전화기' 개통
	2014.11.12	매일경제	생보재단, 양화대교에 11번째 SOS생명의전화기 개통
	2014.11.12	파이낸셜뉴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양화대교에 11번째 SOS생명의전화기 개통
	2014.11.12	연합뉴스	양화대교에 'SOS생명의 전화기' 개통
	2014.11.12	이데일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양화대교에 11번째 SOS생명의전화기 개통
	2014.11.12	EBN	생보재단, 양화대교에 11번째 SOS생명의전화기 개통
	2014.11.12	NSP통신	생보사회공헌재단, 양화대교서 SOS생명의전화기 개통식 가져
	2014.11.12	경제투데이	생보재단, 양화대교에 자살방지 위한 'SOS생명의전화기' 개통
	2014.11.12	금용경제신문	생보재단, 양화대교에 11번째 'SOS생명의전화기' 개통
	2014.11.12	뉴스1	SOS 생명의전화기 3년간 2,300여명 목숨 구했다
	2014.11.12	뉴스웨이	생보재단, 양화대교에 11번째 'SOS생명의전화기' 개통
	2014.11.12	뉴스타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양화대교에 11번째 SOS생명의전화기 개통
	2014.11.12	뉴스투데이	생명보험재단, 양화대교에 10번째 'SOS생명의 전화기' 개통
	2014.11.12	데일리안	생명보험재단, 양화대교에 'SOS생명의전화기' 설치
	2014.11.12	머니위크	생보재단, 양화대교에 11번째 SOS생명의전화기 개통
	2014.11.12	메트로신문	생보재단, 양화대교서 자살예방 'SOS생명의전화기' 개통식 개최

보도리스트	날짜	매체	제목
	2014.11.12	베이비타임즈	생보재단, 양화대교에 11번째 SOS생명의전화기 개통
	2014.11.12	보험매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양화대교에 SOS생명의전화기 개통
	2014.11.12	복지연합신문	생명보험재단, 양화대교에 11번째 SOS생명의전화 개통
	2014.11.12	서울파이낸스	생명보험재단, 11번째 'SOS생명의전화기' 개통
	2014.11.12	여성소비자신문	양화대교에 11번째 'SOS 생명의 전화' 설치
	2014.11.12	위클리오늘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양화대교 10번째 'SOS생명의 전화기' 개통
	2014.11.12	이코노믹리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11번째 SOS생명의전화기 개통
	2014.11.12	전자신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양화대교에 11번째 'SOS 생명의 전화기' 개통
	2014.11.12	조세금융신문	생보재단, 양화대교에 11번째 SOS생명의전화기 개통
	2014.11.12	조세일보	양화대교에 11번째 SOS생명의전화기 개통
	2014.11.12	쿠키뉴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양화대교에 SOS생명의전화기 개통
	2014.11.12	한국보험신문	생보재단, 양화대교에 11번째 SOS생명의전화기 개통
	2014.11.13	서울경제	생보재단 로렌조오일 지원
	2014.11.13	이코노믹리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로렌조오일 환자 지원
	2014.11.13	동아일보	한강다리 '생명의 전화' 설치 4년
	2014.11.13	파이낸셜뉴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회귀난치질환자 위한 특수식이 지원
	2014.11.13	경제투데이	생보재단, 회귀난치성질환자 위한 '특수식이' 지원
	2014.11.13	EBN	생보재단-한국회귀의약품센터, 회귀난치성질환자 위한 특수식이 지원
	2014.11.13	데일리안	생명보험재단, 로렌조오일병 환자 특수식이 지원
	2014.11.13	뉴스투데이	생명보험재단, 회귀난치성질환자 위한 특수식이 지원
	2014.11.13	대한금융신문	생보재단, 회귀난치성질환자에 특수식이 지원
	2014.11.13	메트로신문	생보재단, 회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특수식이 지원식 개최
	2014.11.13	위클리오늘	생보사회공헌재단, 난치병 치료제 '로렌조오일' 지원
	2014.11.13	쿠키뉴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회귀난치성질환자에 '로렌조오일' 지원
	2014.11.13	뉴스웨이	생보재단, 회귀난치성질환자 유일한 희망 '로렌조오일' 지원
	2014.11.13	금융경제신문	생보재단, 회귀난치성질환자에 '로렌조오일' 지원
	2014.11.13	베이비타임즈	생보재단, 회귀난치성질환자의 희망 '로렌조오일' 지원
	2014.11.13	복지연합신문	생보재단, 회귀난치성질환자의 유일한 희망 '로렌조오일' 지원
	2014.11.13	뉴스1	생보재단, 회귀난치성질환자 '로렌조오일' 구입 지원
	2014.11.13	아시아투데이	생보재단, 회귀난치성질환자에 '로렌조오일' 지원
	2014.11.13	채널A	'생명의전화'내용분석해보니...
	2014.11.13	YTN	서울 양화대교에 'SOS 생명의 전화기' 설치
	2014.11.13	서울신문	한강서 삶의 끈 놓으려 할 때 다리 위의 눈과 귀가 살렸다
	2014.11.14	이뉴스투데이	생명보험재단-한국회귀의약품센터, '로렌조 오일' 지원
	2014.11.14	한국금융신문	생보사회공헌재단, 회귀난치성질환자 특수식이 지원
	2014.11.18	머니투데이	생보재단, 회귀난치성질환자 의료보조용품 지원식
	2014.11.18	세계파이낸스	생명보험재단, 회귀난치성질환자 위한 의료보조용품 지원
	2014.11.18	헤럴드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회귀난치성질환자의 일상생활까지 케어하다
	2014.11.18	머니위크	회귀난치성질환자의 일상생활까지 케어하다
	2014.11.18	이코노믹리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회귀난치질환자에 의료용품 지원
	2014.11.18	파이낸셜뉴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회귀난치성환자 의료보조용품 지원
	2014.11.18	복지연합신문	생명보험재단, 회귀난치성질환자 의료보조용품 지원
	2014.11.18	경제투데이	생보재단, 회귀난치성질환자 위한 의료보조용품 지원식
	2014.11.18	한국보험신문	생보재단, 회귀난치성질환자의 일상생활까지 케어
	2014.11.18	EBN	생보재단, 회귀난치성질환자 위한 의료보조용품 지원
	2014.11.18	전자신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한국회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의료 보조용품 지원
	2014.11.18	메트로신문	생보재단, 회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의료보조용품 지원
	2014.11.18	베이비뉴스	생보재단, 회귀난치성질환자에 의료보조용품 지원
	2014.11.18	NSP통신	생보사회공헌재단, 회귀난치성질환자 위한 의료보조용품 지원
	2014.11.18	보험매일	생보재단, 회귀난치성질환자 위한 의료보조용품 지원식 개최
	2014.11.18	매일경제	생명보험재단, 회귀난치성질환자에 의료보조용품 지원
	2014.11.18	아시아투데이	생보재단, 회귀난치성질환자 의료보조용품 지원
	2014.11.18	베이비타임즈	생보재단, 회귀난치성질환자에 의료보조용품 지원
	2014.11.18	뉴스웨이	생보재단, 회귀난치성질환자 위한 의료보조용품 지원식 개최
	2014.11.18	서울경제	생명보험재단, 의료보조용품 지원
	2014.11.18	한국금융신문	생보재단, 회귀난치성질환자 의료보조용품 지원
	2014.11.18	이뉴스투데이	생명보험재단, '회귀난치성질환자' 일상생활 케어하다
	2014.11.19	한국NGO신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회귀난치성질환자 지원식...
	2014.11.24	동아일보	이시형 박사, 어린이 건강교육 강조
	2014.11.25	의학신문사	대사중후군 관리 비법 공개된다
	2014.11.25	조선일보	평생 치료 고통보다 무관심이 더 아프다는 걸 아시나요
	2014.11.27	세계파이낸스	생명보험재단, '저소득 아동 겨울 체육활동 지원금' 전달
	2014.11.27	서울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저소득 아동 겨울 체육활동 지원금 전달
	2014.11.27	MBN뉴스	생명보험재단, '저소득아동 체육활동기금' 기부
	2014.11.27	이뉴스투데이	생명보험재단, '저소득아동 체육활동기금' 기부
	2014.11.27	데일리안	생명보험재단, 상급 모아 저소득 아동 체육활동 지원
	2014.11.27	쿠키뉴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저소득아동 체육활동 지원금 365만원 기부
	2014.11.27	전자신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저소득 아동 겨울 체육 지원금 전달
	2014.11.27	위클리오늘	생보사회공헌재단, 서울아동센터협의회 지원금 전달
	2014.11.27	베이비뉴스	생보재단, 저소득 아동 체육활동 위해 기부
	2014.11.27	뉴스웨이	생보재단, 저소득층 아동 체육활동기금 기부
	2014.11.27	한국금융신문	생보 사회공헌재단, 서울시에 '저소득 아동 겨울 체육활동 지원금' 전달
	2014.11.27	서울파이낸스	생보재단, 저소득 아동 겨울체육활동 지원금 전달
	2014.11.27	아시아투데이	생보재단, 저소득 아동 체육활동기금 전달

보도리스트	날짜	매체	제목
	2014.11.27	NSP통신	생보사회공헌재단, 저소득아동 체육활동 지원금 전달
	2014.11.27	메트로신문	생보재단, 저소득 아동 체육지원금 365만원 기부
	2014.11.27	파이낸셜뉴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저소득 아동 겨울체육활동지원금 전달
	2014.11.27	EBN	생보재단, 저소득 아동 겨울체육활동지원금 전달
	2014.11.27	파이낸셜신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저소득아동 체육활동기금으로 기부
	2014.11.27	복지연합신문	생명보험재단, 저소득 아동 체육활동기금 기부
	2014.11.27	보현매일	생보재단, 저소득 아동 겨울 체육활동 지원
	2014.11.28	한국보험신문	생보재단, 저소득 아동 겨울 체육활동 지원금 전달
	2014.11.29	뉴스시스	저소득 아동 겨울 체육활동 지원
	2014.12.02	쿠키뉴스	한양대병원, 건강과 사랑나눔 함께 실천
	2014.12.09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다이어트했음뿐인데...어려운 이웃 돕게돼서 보람차네
	2014.12.11	뉴스1	학습용보조기기 전달식
	2014.12.11	세계파이낸스	생명보험재단, 희귀난치성질환 학생에 학습기기 지원
	2014.12.11	아주경제	생보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성질환학생 38명에 학습용보조기기 지원
	2014.12.11	매일경제	생보재단, 희귀난치성질환 학생에게 학습용 보조기구 지원
	2014.12.11	서울경제	생보재단, 희귀난치성질환 학생을 위한 학습용 보조기 지원식 가져
	2014.12.11	아시아투데이	생보재단, 희귀난치성질환 학생에게 학습용 보조기구 지원
	2014.12.11	뉴스1	생보재단, 희귀난치성질환학생에 학습보조기구전달
	2014.12.11	헤럴드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성질환 학생 38명에게 학습용 보조기구 지원
	2014.12.11	NSP통신	생보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성질환 학생 38명에 학습용 보조기구 지원
	2014.12.11	베이비타임즈	생보재단, 희귀난치성질환학생 38명에게 학습용보조기구지원
	2014.12.11	베이비뉴스	생보재단, 희귀난치성질환 학생 학습 보조기 지원
	2014.12.11	뉴스웨이	생보재단, 희귀난치성질환 학생에게 학습용 보조기구 지원
	2014.12.11	뉴스토마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성질환 학생들에게 보조기구 지원
	2014.12.11	이투데이	생보재단, 희귀난치성질환 학생 학습용 보조기구 지원
	2014.12.11	머니위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성질환 학생에 학습용 보조기구 지원
	2014.12.11	보현매일	생보재단, 희귀난치성질환 학생에게 학습용 보조기구 지원
	2014.12.11	데일리안	생명보험재단, 희귀난치성질환자 학습용보조기구 지원
	2014.12.11	조세일보	생보재단, 희귀난치성질환 학생에 인구마우스 등 지원
	2014.12.11	아시아경제	생보공헌재단, 희귀난치성질환 학습용 보조기 지원
	2014.12.11	전자신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희귀 난치성 질환 학생들이 쓸 학습용 보조기기 지원
	2014.12.11	미디어펜	생보재단, 희귀난치성질환 학생 학습용보조기 지원
	2014.12.11	서울파이낸스	생보공헌재단, 희귀난치성질환자 보조기기 지원
	2014.12.11	복지연합신문	생보재단, 희귀난치성질환 학생에게 학습용 보조기기 지원
	2014.12.11	연합뉴스	생명보험재단, 난치병 학생들에 학습기구 지원
	2014.12.11	EBN	생명재단, 희귀난치성질환 학생에게 학습용 보조기구 지원
	2014.12.11	이뉴스투데이	생보재단, 희귀난치성질환 학생에게 학습용 보조기구 지원
	2014.12.12	뉴스시스	생명보험의인상 소방 부문 시상식
	2014.12.12	세계파이낸스	생명보험재단, 순직·공상퇴직 소방가족에 '의인상'
	2014.12.12	아주경제	생보사회공헌재단, 순직·공상퇴직소방관가족에 '생명보험의인상'수여
	2014.12.12	미디어펜	생보재단, 순직 소방관 가족에 생명보험의인상 수여
	2014.12.12	연합뉴스	순직 소방관 가족 '생명보험 의인상' 수상
	2014.12.12	경제투데이	생보재단, 순직·공상퇴직 소방관 가족에 '생명보험의인상' 수여
	2014.12.12	보현매일	순직 소방관 가족 '생명보험 의인상' 수상
	2014.12.12	한국경제tv	순직 소방관에게 '생명보험의인상' 수여
	2014.12.12	시사제주	故강수철 소방령 '생명보험 의인상' 수상
	2014.12.12	머니위크	휴가 중 화재진압하다 숨진 강수철 소방관 등 39명에 '생명보험의인상'
	2014.12.12	한국보험신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의인상' 수여해
	2014.12.12	제민일보	故강수철소방령, '생명보험의인상'
	2014.12.12	뉴스웨이	생보재단, 순직·공상퇴직 소방관 가족에 '생명보험의인상' 수여
	2014.12.12	메트로신문	[포토] 생보재단, 순직·공상퇴직 소방관에게 '생명보험의인상' 시상
	2014.12.12	베이비뉴스	순직·공상퇴직 소방관 가족에 '생명보험의인상' 수여
	2014.12.12	조세금융신문	생보재단, 소방관 가족에게 '생명보험의인상' 수여
	2014.12.12	서울파이낸스	생보재단, 순직·공상퇴직 소방관 가족에 '생명보험의인상'
	2014.12.12	NSP 통신	생보사회공헌재단, 순직·공상퇴직 소방관 가족에 생명보험의인상 수여
	2014.12.12	이투데이	생보재단, 순직·공상퇴직소방관가족 '생명보험의인상'수여
	2014.12.12	서울경제	생명보험의인상 소방 부문 시상
	2014.12.12	뉴스1	휴가중화재진압나섰다순직소방관에'생보의인상'
	2014.12.12	서울경제	"학습 보조기로 공부할 생각 설레요"
	2014.12.12	헤드라인제주	순직 故 강수철 소방령에 '생명보험 의인상' 수여
	2014.12.12	EBN	생보재단, 순직·공상퇴직 소방관 가족 '생명보험의인상' 수여
	2014.12.12	복지연합신문	생보재단, 순직·공상퇴직 소방관 가족에 '생명보험의인상' 전달
	2014.12.12	베이비타임즈	생보재단, 순직·공상퇴직소방관가족에 '생명보험의인상'수여
	2014.12.12	파이낸셜뉴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순직·공상퇴직 소방관 가족 상금 전달
	2014.12.12	이코노믹리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소방관 가족에게 '생명보험의인상' 수여
	2014.12.12	MBN뉴스	생명보험재단,희귀난치성질환학생학습용보조기기지원
	2014.12.12	메트로신문	생보재단, 희귀난치성질환 학생 38명에 학습 보조기구 지원
	2014.12.13	데일리안	생명보험재단, 소방 가족에게 '생명보험의인상' 수여
	2014.12.14	제주매일	故강수철지방소방령 '생명보험의인상'
	2014.12.14	한라일보	故강수철소방령생명보험의인상
	2014.12.15	헤럴드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순직·공상퇴직 소방관 가족에게 '생명보험의인상'수여
	2014.12.15	한국금융신문	생보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의인상수여
	2014.12.15	한국NGO신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의인상 소방부문' 수여
	2014.12.16	민중의소리	청소년 자살 예방 위한 연극심리상담치료 '별을 향한 사람들'
	2014.12.19	뉴스시스	생보재단, '생명보험의인(義人)상 시상식'

보도리스트	날짜	매체	제목
	2014.12.19	세계파이낸스	생보재단, 사회적 공의 실천한 58명에 '생명보험의인상' 수여
	2014.12.19	한국보험신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의인상시상식'개최
	2014.12.19	서울파이낸스	생보재단, '생명보험의인상 시상식' 개최
	2014.12.19	한국보험신문	생보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의인상 시상식 개최
	2014.12.19	베이비타임즈	생보재단, 사회적공의실천한58명에 '생명보험의인상'수여
	2014.12.19	쿠키뉴스	생보재단, 사회적 공의(公義) 실천한 58명에 '생명보험의인상'수여
	2014.12.19	NSP통신	생보사회공헌재단, 사회적 공의 실천한 58명 선정해 생명보험의인상 수여
	2014.12.19	이투데이	생보재단, 사회적 공의 실천 58명 선정 '생명보험 의인상' 수여
	2014.12.19	머니위크	사회적 공의를 실천한 58명 '생명보험의인상' 수여
	2014.12.19	매일경제	생보재단, '생명보험의인상' 수상식
	2014.12.19	헤럴드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사회적 공의를 실천한 58명 선정 '생명보험의인상'수여
	2014.12.19	뉴스1	열음개진하천서초등생구조임산부등의인58명시상
	2014.12.19	데일리안	생명보험재단, 사회적 공의 실천한 의인 58명 선정
	2014.12.19	조세금융신문	생보재단, 58명에게 '생명보험의인상' 수여
	2014.12.19	뉴스웨이	생보재단, '생명보험의인상' 수여
	2014.12.19	뉴스토마토	생보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인의 상 수여
	2014.12.19	아시아투데이	파도 휩쓸린 어린이 구하고 세상 떠나... '생명보험의인상' 수여
	2014.12.19	메트로신문	생보재단, 58명 의인에 '생명보험의인상'수여
	2014.12.19	보현매일	생보재단, '생명보험의인상 시상식' 개최
	2014.12.19	전자신문	임신한 몸으로 열음을 뛰어들어 아이 구하고, 범인 쫓다 세상 떠나고... 생보재단, 사회적 의인 시상
	2014.12.19	한국금융신문	생보재단, 사회적 공의 실천 58명에 생보 의인상 수여
	2014.12.19	이뉴스투데이	생보재단, 사회적 공의실천 58명에 '생명보험의인상' 수상
	2014.12.19	유클리오늘	생보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의인상' 시상식 개최
	2014.12.20	베이비뉴스	생보재단, 58명 선정 '생명보험의인상' 수여
	2014.12.21	서울경제	2014년 생명보험의인상 시상
	2014.12.21	MBN뉴스	생보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의인상시상식개최
	2014.12.22	세계일보	자살예방 연구치료 "상처받기 전 모습을 되찾았다"
	2014.12.23	뉴스시스	시청역 건강기부재단 개통식
	2014.12.23	세계일보	[포토]시청역 '건강기부재단' 개통
	2014.12.23	국제저널	칠곡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2015 생명술어린이집 건립 공모 선정
	2014.12.23	대구신문	칠곡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2014.12.23	세계일보	자살예방 연구치료 "상처받기 전 모습을 되찾았다"
	2014.12.23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세상 위해 헌신한 그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
	2014.12.23	영남일보	자살기도 우울증 환자에 '희망' 전해
	2014.12.23	헤럴드경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서울시청역에 건강도 열고 기부도 하는 건강기부재단 개통
	2014.12.23	MBN뉴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서울시,건강기부재단설치
	2014.12.23	데일리안	생명보험재단,시청역에 '건강기부재단'설치
	2014.12.23	이코노믹리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시청역에 건강기부재단 개통
	2014.12.23	미디어펜	생보사회공헌재단, 시청역에 건강기부재단 설치
	2014.12.23	NSP통신	생보사회공헌재단, 서울시청역에 건강기부재단 개통
	2014.12.23	서울파이낸스	생보재단-서울시,시청역에 '건강기부재단' 설치
	2014.12.23	뉴스웨이	생보재단, 서울시청역에 '건강기부재단' 개통
	2014.12.23	아시아투데이	생보재단, 시청역 5번 출구 '건강기부재단' 설치
	2014.12.23	메트로신문	생보재단, 서울 시청역서 '건강기부재단' 개통식 개최
	2014.12.23	매일경제	생보재단,건강기부재단개통식개최
	2014.12.23	이뉴스투데이	생보재단, 서울시청역에 건강기부재단 개통
	2014.12.23	서울경제	계단오르면서 기부해요...생보재단, 건강기부재단 개통
	2014.12.23	유클리오늘	생보사회공헌재단, 시청역 건강기부재단 개통
	2014.12.23	EBN	생보재단-서울시, 건강기부재단 개통식 개최
	2014.12.23	조선일보	152초 생명 연장에 장애아동 지원 기부까지! 결을수록 착해지는 건강기부재단
	2014.12.23	베이비뉴스	서울시청역에서 건강도 열고 기부도 하세요
	2014.12.23	머니위크	건강도 열고, 기부도 하는 '건강기부재단' 서울시청역 개통
	2014.12.23	전자신문	시청역5번출구, 계단으로 올라가면 장애 아이들 도울 수 있어요
	2014.12.23	한국NGO신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 의인상' 시상식
	2014.12.23	보현매일	생명보험재단, 시청역에 '건강기부재단' 설치
	2014.12.23	금융경제신문	생보재단, 서울시청역 '건강기부재단' 개통
	2014.12.23	한국보험신문	생보사회공헌재단, 시청역 건강기부 계단 설치·개통식 가져
	2014.12.23	베이비타임즈	"서울시청역서 건강도 열고, 기부도 하세요"...생보재단, 건강기부재단 개통
	2014.12.23	연합뉴스	1석2조 건강기부재단
	2014.12.23	YTN	생보공헌재단-서울시, 건강기부재단 개통
	2014.12.23	한겨레	[포토]계단오르면10원씩기부
	2014.12.23	신아일보	칠곡군 '생명술어린이집 건립 공모' 선정
	2014.12.24	한국NGO신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건강기부재단 개통
	2014.12.24	중앙뉴스	서울시청역 기부도 하는 건강기부재단 개통
	2014.12.24	복지연합신문	서울시청역에 건강도 열고, 기부도 하는 건강기부재단 개통
	2014.12.24	조세금융신문	생보재단, 서울시청역에 '건강기부재단' 개통
	2014.12.24	동아일보	[수도권]한 걸음에 10원 기부... 생명의 계단 걸어요
	2014.12.24	GBN경북방송	경주소방서, 박병건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사회적 의인' 선정
	2014.12.25	금강일보	생명 구해 받은 포상금, 이웃돕기 성금으로
	2014.12.25	경북일보	칠곡 '2015 생명술어린이집 건립사업' 최종 선정
	2014.12.30	메트로신문	[금융가 사람들] "단발성 아닌 꾸준한 관심 지속적인 지원 절실해요"...유석쟁 생보재단 전무



2014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ANNUAL REPORT

발행일 2015년 3월
발행처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11 (서린동149) 청계11빌딩 12층
전화 02) 2261-2291~3
팩스 02) 2261-2294
홈페이지 www.lif.or.kr
블로그 <http://blog.naver.com/lifound>
기획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링크팩토리
디자인 링크팩토리